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 學位論文

중국 근대전환기의 시경론

—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를 중심으로 —

2018年 8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安 龍 洙

중국 근대전환기의 시경론

—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金 越 會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5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文學專攻

安 龍 洙

安龍洙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18年 7月

委 員 長 _____ (인)

副委員長 _____ (인)

委 員 _____ (인)

국문초록

《詩經》은 다른 경전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기 제국의 형성 및 유지에 있어서 중추적인 기능을 한 텍스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근대 이후 《詩經》의 활용 양태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 이러한 《詩經》 활용의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은 근대전환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다.

근대전환기의 시대적 배경은 《詩經》을 비롯한 六經 등의 활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야기한다. 서구의 침입으로 인한 中華 관념의 해체는 그 관념의 발달 및 유지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던 경학과 그것을 구성하는 경전의 해체로 이어진다. 또한 서학 및 일본 학문 수용은 경학과 경전의 해체를 가속화한다. 이 시대에는 잡지 및 강의 기록 등이 새로운 학문수단으로 등장한다. 잡지 및 강의 기록은 새로운 형태의 연구 결과물인 동시에 학문 전파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근대전환기의 지식인들은 근대화 시도의 맥락에서 《詩經》을 활용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근대전환기 시경론은 몇몇 중추적인 인물들의 시경론을 구축하고 분석함으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근대전환기 지식인 개인의 시경론은 그들의 《詩經》에 대한 언술 및 연구결과물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근대전환기 시경론을 형성한 중추적인 인물로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 등을 설정한다. 이들은 《詩經》에 대한 연구 결과 및 주장을 이전시기와 같은 주석서의 형태가 아닌, 근대전환기 연구결과물의 새로운 형태인 잡지 및 강연록 등을 활용하여 제창한다. 때문에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다섯 인물들의 《詩經》에 대한 언술 및 연구결과물들에서 그들의 《詩經》에 대한 인식,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등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한다.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 등의 시경론의 같고 다름을 비교함으로써,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 수 있다. 우선, 그들의 같음을 비교함으로써, 목도할 수 있는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근대전환기

지식인들은《詩經》의 의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그것의 기능을 설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그들은 각자《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하나, 그것들의 실제내용은 전통 시경학의 내용을 계승하고, 개념의 층위에서 서학 및 일본 학문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모두《詩經》을 활용하여 근대화의 시도를 도모하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으로, 그들의 다름을 비교함으로써, '《詩經》과 사회의 거리'라는 전통 시경학과 근대 시경학을 구분하는 새로운 척도를 세울 수 있다. '《詩經》과 사회의 거리'는《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이 사회개혁과 연관 지어 풀이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들의 차이점 및 공통점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은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와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양계초, 왕국유로 나누어 질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은《詩經》을 해석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유하고,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들은《詩經》의 해석이 사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유하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 등은 근대전환기의 지식인으로서 當代의 사회개혁을 위해 시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當代의 사회개혁, 즉, 근대화 시도의 맥락에서《詩經》을 활용하였다.

주요어: 근대전환기,《詩經》, 시경론,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
학　번: 2015-22443

목 차

국문초록 ····· i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 주제 및 범위 ····· 1
1.2. 기존 연구 검토 ····· 4
1.3. 연구 방법 및 목적 ····· 6

제 2 장 근대전환기의 시대적 배경 ····· 9

2.1 1890년대 이후의 시대적 화두: '정신문명'의 재건 ····· 9
2.2 근대전환기 詩經學의 변화 요인 ····· 12
2.2.1 서구의 침입: 中華의 위기로 인한 經學의 지위 변화 ····· 12
2.2.2 서학의 수용: 經典을 해석하는 맥락의 변화 ····· 13
2.2.3. 잡지 및 신문 등의 근대적 매체 발달: 家學과 師學의 약화 및 새로운 연구 결과물의 등장 ····· 15

제 3 장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양상 ····· 17

3.1 강유위의 시경론 ····· 17
3.2 장병린의 시경론 ····· 26
3.3 유사배의 시경론 ····· 34

3.4 양계초의 시경론 ····· 43
3.5 왕국유의 시경론 ····· 52

제 4 장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 ····· 62

4.1 근대전환기 《詩經》에 대한 인식: 《詩經》의 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 ···· 63
4.2 근대전환기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 전통의 계승 및 서학의 수용 ···· 70
4.2.1 《詩經》의 텍스트 외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 ····· 70
4.2.2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 ····· 77
4.3 근대전환기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사회개혁을 위해 활용된 《詩經》 ··· 80

제 5 장 결론 ····· 84

참고문헌 ····· 87

부록 ····· 90

中文提要 ····· 96

제 1 장 서론

1.1. 연구 주제 및 범위

본고에서는 근대전환기[1]의 詩經論[2]을 연구 주제로 삼는다. 康有爲[3], 章炳麟[4], 劉師培[5], 梁啓超[6], 王國維[7]의 詩經論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근대전환기에 서구

---

1) 본고에서 근대전환기는 1890년대부터 1919년 전후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문학사에서는 1840년부터 1917년 까지 혹은 1840년부터 1919년까지 사이를 "근대"로 구분한다. 본고에서는 "근대"라고 구분되는 시기 가운데 1890년대부터 1919년 전후 사이에 '근대성'이 집중적으로 형성된다고 파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시기를 '근대전환기'라 명명한다. 이로써 전통시기로부터 근대로 이행되는 의미를 보다 강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시기는 사회사와 문학사 등의 방면에서 모두 '근대성'이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시기이다. 우선, 중국의 서구 문물의 수입을 통한 근대화 시도는 1840년 아편전쟁 이후 시작된다. 이후의 근대화 운동의 흐름은, 1840년대의 "師夷長技論", 1860년대의 "中體西用論", 1890년대의 "變法維新論"의 순으로 개괄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1890년대의 변법유신론 운동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서학이 전통시기 중국의 학문과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지고 수용되었다고 판단하여, 1890년을 근대전환기의 시작으로 설정한다. (변법 자강시기의 서학 수용에 대해서는 조병한, 〈19세기 청제국의 개혁과 근대 지식인의 탄생〉, 474-478쪽을 참조할 것.) 대부분의 문학사에서는 1917년 혹은 1919년까지를 "근대"로 설정한다. (다양한 종류의 현대 문학사의 분기에 대해서는 김시준, 《중국 현대 문학사》, 16-26쪽을 참조할 것.) 그러나 실제 당시 지식인들의 저서를 살펴보면, 1920년대 초반까지도 많은 지식인들이 근대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사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1919년 전후까지를 '근대전환기'라 명명한다.

2) "詩經論"이라는 용어는 "詩經學"이라는 용어와 구분된다. "詩經學"과 유사한 용어로는 홍루몽에 대한 연구인 "紅學", 도연명에 대한 "陶學"이 있다. 특정 텍스트 혹은 인물에 대한 연구에 "학"이 붙기 위에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후대에 대한 영향력, (2) 질량 차원의 연구 성과, (3) 연구 영역 및 방법 등이 있다. "詩經論"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근대전환기 《詩經》에 대한 연구가 그 실체는 분명 존재하나, "詩經學"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3) 康有爲, "강유위는 자가 廣厦, 호는 長素로 광동 남해사람이다. 대대로 부유한 관료의 집에서 태어나 당시 이름난 학자 朱次琦로부터 송・명 이학을 공부하면서 또한 금문 공양학도 섭렵하였다."-신승하, 《중국사학사》, 336쪽.

4) 章炳麟, "장태염은 이름이 炳麟, 자는 枚叔으로 절강 여항사람이다. 후에 고염무(원래 이름은 絳) 황종희(자가 太沖)를 숭배하여 이름을 絳으로 고치고, 호를 太炎이라 하였다. 9세 유가 경전을 배워 다 외웠다. 22세 항주로 가 詁經精舍에서 당시 박학의 대가인 兪越에게서 배웠다."-신승하, 위의 책, 346쪽.

5) 劉師培, "유사배는 이름이 光漢, 자는 申叔, 호는 左庵이다. 강소성 의징출신으로, 劉家는 사배까지 4대에 걸쳐 《春秋左氏傳》 家學의 명가였고, '양주학파'라고 불리는 양주 출신의

문물과 서양 학문(이하 西學이라 칭한다.)은 본격적으로 중국의 지식인사회에 수용되기 시작한다. 그 결과 중국의 학문 패러다임은 변화[8]한다. 그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중국의 전통학문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학문체제의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학문체제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경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부터 야기된다. 경학은 중국 전통학문의 중핵으로 기능하였으나,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그 정당성을 의심받는다.

본고에서 다루는 《詩經》이라는 텍스트는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전통시기 《詩經》은 六經의 하나로서 제국의 유지와 지성사의 발달에 중추적인 기능을 하였다. 《詩經》은 다른 경전과 달리 문학의 영역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경전에도 문학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중국 문학사에서 詩라는 문학 장르가 지니고 있는 위상을 고려해 보았을 때, 《詩經》의 지위는 기타 경전의 그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다른 경전에 비해 보다 직접적인 문학성을 지니고 있다. 전통시기 중국에서 《詩經》은 경전으로서, 문학, 정치, 철학, 법률[9] 등 다

고증학 전통을 이어받았다. 젊어서 경학, 제자학, 문학, 고증학 연구에서 이름을 날렸지만, 서양 학문의 도입에도 힘을 기울였다."-린사오양, 서광덕 옮김. 《수사라는 사상》, 54쪽.

6) 梁啓超 "양계초는 자가 卓如, 호는 壬公으로 광동 신회사람이다. 어려서부터 《史記》와 《綱鑒易知錄》을 숙독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구학문의 좋은 기초를 갖고 있었다. 17세에 거인이 되었고, 다음해에 회시에 응시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리고 상해에서 처음으로 서학과 접촉하게 되었으며 광주로 돌아와 강유위를 스승으로 삼고 금문 경서를 전공하였다."-신승하, 앞의 책, 342쪽.

7) 王國維, 왕국유는 "절강 해녕사람으로 학문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신해혁명까지 건가 고증학과 강유위와 양계초의 영향을 받았고, 신해혁명 이후 나진옥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 그가 자살할 때까지(1927) 나진옥의 영향 아래 일본에서 서양 철학을 공부하고 번역서를 통하여 서양 학설과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신승하, 위의 책, 355쪽.

8) 학문 패러다임의 변화는 학문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변화 양태부터 알 수 있다. 가령, 근대전환기에 이루어진 학문기관, 학문 체재, 학문 수용의 주체 등의 변화에서 알 수 있다. 학문기관의 경우, 전통시기의 학당과 서원이 학원(현재의 학교)로 변화한다. 학문 체재의 경우, 전통시기의 유학 중심에서 점차 서학 중심으로 변화한다. 학문 수용의 주체의 경우, 전통시기에 비해 보다 넓어진다. 학문 기관의 변화와 학제 개편에 대한 내용은 김유리, 《서원에서 학당으로: 청말 서원의 학당개편과 근대학제의 수립과정》; 류준필,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을 참조할 것.

9) 《詩經》이 법률에서 활용된 경우는 김월회, 《춘추좌전: 중국 문화의 원형이 담긴 타임캡슐》, 277-280쪽; 이재규, 〈고대 동・서양의 법에 대한 비교 연구〉, 160-161쪽을 참고한다. 이 논문에는 漢代 초기 판결 과정에서 《詩經》이 직접적으로 판단의 준거로 활용되는 예시를 제시한다.

방면에서 활용된다. 근대전환기 중국에서 《詩經》에 대한 인식은 변화한다. 그러나 여전히 《詩經》은 문학, 사학 등의 학문 분과에서 활용되었다. 결과적인 양태로 보았을 때, 근대시기에 이르러 경학은 해체된다. 그러나 근대전환기에 이르러서도 경학에 근거한 사유는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많은 지식인들이 《詩經》을 비롯한 경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인식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설정한 다섯 인물들은 當代의 지식인으로 사회 및 학술의 방면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다섯 인물들은 모두 중국 전통학문과 서학을 수학하였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 응시한 경험이 있다.[10] 동시에 강유위[11], 장병린[12], 유사배[13], 양계초[14], 왕국유[15] 등은 서학을 학습한 경험이 있다. 이들은 중국의 전통학문과 서학을 활용하여, 사회운동을 실천하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의 전통학문과 서학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에 근거하여, 서로 다른 성향의 사회운동을 주장한다.

---

10) 다섯 인물 가운데 유사배와 양계초만이 擧人의 자격을 얻는다.

11) 강유위가 서학을 학습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캉유웨이가 당시 배우고 이해한 서양의 자연과학 등 근대지식에 의거하여 고대의 진부한 견해를 발양시킴으로써 자신의 자연관 체계를 건립했다는 점이다. 과학에 대한 믿음과 추구가 유물론적 요소를 지닌 그의 자연관을 구성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이택후, 《중국 근대 사상사》, 196-197쪽.

12) 장태염이 서학을 학습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章太炎은 西學을 무조건 숭배하며 國學을 무조건 배척해서도 안 되고, 國學의 일부만을 부여잡고 여타의 학술영역에 대해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면서 학문연구의 태도층위에서 西學의 수용가능성을 열어놓았다.”-김월회, 〈20세기초 中國의 文化民族主義 연구〉, 91쪽.

13) 유사배가 서학을 학습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그의 서양 아나키즘 이해 정도를 아는 데에 참고가 되는 것은 《천의》 제1호에 실린 〈유럽 사회주의와 무정부주의의 이동에 관한 고찰[歐洲社會主義與無政府主義異同考]〉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유사배는 여기에서 서양 사회주의의 흐름을 개설하였는데, 그는 아나키즘과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사가다카시, 이원석 옮김, 《유사배평전》, 79쪽.

14) 양계초가 서학을 학습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량치차오의 《삼십 자술》에 따르면 량치차오는 ... 캉유웨이를 스승으로 받든 뒤로는 육상산과 왕양명의 심학 및 사학과 서양 학문에 영향을 받았다.”-세시장, 김영문 옮김, 《량치차오 평전》, 78쪽.

15) 왕국유가 서학을 학습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평가에서도 알 수 있다. “왕국유... 철학방면에서는 중국 최초로 칸트와 쇼펜하우어, 니체 등을 소개하면서 중국철학의 주요 개념과 서양 철학의 개념을 비교분석하기도 하였다. 미학방면에서는 칸트와 쇼펜하우어, 니체, 쉴러 등의 미학을 받아들여 중국의 전통 미학과 융합시켰다.”-류창교, 《왕국유 평전》, 7쪽.

1.2. 기존 연구 검토

필자가 확인한 바로 근대전환기를 대표하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의 시경론을 독립된 주제로 다룬 단행본 및 논문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詩經論은 그들의 '경학관' 혹은 '국학'에 대한 논의의 맥락 속에서 언급[16]되는 수준에 머무른다. 이러한 연구들은 각 인물들의 학파를 분류하고, 사유의 경향성을 보여줌에 있어서는 뛰어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 경향은《詩經》이 라는 텍스트의 특수성을 경시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존 연구로는 통시적 관점에서 시경론 혹은 시경학을 다룬 연구서가 있다. 이러한 연구서들은 특정시기 시경론 및 시경학을 순차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정시기 학술 사상에 대한 분석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법론은 문학사 혹은 사상사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학술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술사는 필연적으로 몇몇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을 중심을 전개된다. 여기에서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물이란, 일반적으로 단행본 형태의 저서를 지칭한다.《詩經》의 경우, 전통시기 일반적으로《詩經》에 대한 연구 결과물은 주석서의 형태로 존재한다. 때문에 몇몇 연구자들은 특정시대의《詩經》에 대한 연구 결과들은 주석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17] 예컨대《詩

16) 강유위의 詩經論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 결과로는, 鍾賢培 主編,《康有爲思想研究》; 王鈞林,〈康有爲對儒學的改造〉등이 있다.
장병린의 詩經論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 결과로는, 姜義華,《章太炎思想研究》; 藺文龍,〈論章太炎的詩學觀及創作實踐〉등이 있다.
유사배의 詩經論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 결과로는, 사가 다카시, 이원석 옮김,《근대중국의 국학과 혁명사상》; 문병찬,〈劉師培對經學今古文的看法及其局限〉등이 있다.
양계초의 詩經論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 결과로는, 國立政治大學文學院 主編,《中國近代文化的解構與重建》, 易新鼎,《梁啓超和中國學術思想史》등이 있다.
왕국유의 詩經論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 결과로는 류창교,《왕국유 평전》; 洪國梁,《王國維之詩書學》; 遡艾,《一代大師: 王國維研究論叢》등이 있다.

17) 심경호,《조선시대 한문학과 시경론》; 이병찬,《한・중 시경학 연구》; 洪湛侯,《詩經學史》; Bruce Rusk. *Crtitics and commentators: The book of Poems as Classic and Literatu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經學史》[18], 《조선시대 한문학과 詩經論》[19], *Critics and commentators: The book of Poems as Classic and Literature*[20]는 모두 통시적 관점에서의 詩經學을 구축한 연구 성과이다. 이들은 모두 전통시기 詩經學 및 詩經論에 대한 연구서로, 《詩經》에 대한 주석서를 중심으로 각각의 논의를 전개한다. 전통시기 詩經學의 발전은 주석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방식은 일정정도 유효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을 근대전환기의 詩經學 연구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경전은 중국 지성사에서 가장 보수적인 연구대상이다.[21] 《詩經》에 대한 연구 주석서는, 학문 풍토의 변화보다 한 박자 늦게 이루어진다. 즉, 경전에 대한 하나의 주석서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존 연구 및 사회적 동의가 선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학문의 패러다임은 변화한다.[22] 근대전환기 잡지 및 신문의 발달은 학

---

c2012.에서는 모두 통시적 관점에서 시경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각 저자들은 몇몇 시대의 시경학의 특징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시대의 주석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전개하는 공통점을 지닌다.

18) 洪湛侯, 《詩經學史》에서 저자는 當代까지의 詩經學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는 역대의 詩經學을 왕조에 근거한 시기, 학파, 방법론 등을 중심으로 章을 나눈다. 각 장의 머리말 부분에 시대 및 학파의 의의에 대해 언급하고, 해당시기의 《詩經》 주석서들을 분류하고 나열하며, 간략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19) 심경호, 《조선시대 한문학과 詩經論》에서 저자는 조선시대 시경론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저자는 조선시대 시경론에 대해서 이황, 정조, 정약용 등의 인물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20) Bruce Rusk, *Crtitics and commentators: The book of Poems as Classic and Literature*에서 저자는 근대 이전까지의 詩經學에 대해서 설명하다. 그는 詩經學의 전환을 중심으로 장을 나눈다. 각 장에서, 저자는 詩經學 상의 변화의 의의 및 과정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인물 및 그의 연구 저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전개한다.

21) 가령, 淸代에는 고증학이 발달하였다. 당시에 많은 학자들은 고증학이라는 방법론의 대상을 설정함에 있어서, 諸子書를 우선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풀이함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들은 모두 고증학은 治經의 한 방법론이며, 그것을 우선적으로 諸子書에 실험했다고 한다. 그들은 비록 고증학이 궁극적으로는 경학을 위한 방법론 이지만, 경전이 지니는 신성성으로 인하여, 경학에 바로 적용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고증학자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방법론을 諸子書에서 먼저 사용해보고, 이후에야 경전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고증학자들의 경전과 諸子書에 대한 연구의 양상은 갈조광, 《중국사상사2》, 707-723쪽 참조할 것.)

22) 대중 매체의 발달 및 詩經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고의 2장에서 상술한다.

문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에 중요한 인자로 기능한다. 이는 연구 결과물의 형태의 변화에도 해당한다.

실제로 본고의 연구 대상들 대부분은《詩經》의 주석서를 직접 출판하지 않았다. 이들은《詩經》 및 국학에 대하여 잡지와 신문에 글을 투고하거나, 혹은 講演錄 등을 출판한다. 당시의 물리적 조건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유형의 자료들이 당시 학술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즉, 근대전환기의《詩經》과 관련한 자료들은 이전 시기의《詩經》에 대한 연구와 다른 양태를 지닌다. 그러나 그것의 영향력은 이전시기의 그것에 비해 넓고 강하였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단행본 형태의《詩經》에 대한 주석서뿐만 아니라, 당시에 잡지에 투고된 글 혹은 강의 기록 등을 적극 활용한다.[23)]

1.3. 연구 방법 및 목적

본고는 중국 근대전환기의 시경론 연구를 위한 질료를 마련하고, 그에 근거하여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우선적인 연구 목적으로 설정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의 각각의 시경론을 구축하고, 이를 종합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근대전환기의 시경론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세 가지 주제에 주안점을 두고 시경론을 구축한다. “《詩經》을 인식하는 관점”,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 “《詩經》을 활용하는 목적” 순으로 구성한다. “《詩經》을 보는 관점”에서는 주로, 각각의 인물들이 지니는《詩經》과 공자의 관계에 대한 관점,《詩經》을 구성하는 六義에 대한 관점 등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에서는 각 인물들이 주장 혹은 실제 활용한《詩經》을 해석하는 방법론과 그 의의에 대해서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에서는 각 인물들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언급하는《詩經》을 목적에 대해서 언급한다.

23) 이러한 방법론의 논증은 본고의 2장에서 수행한다.

3장에서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 등의 시경론을 구체화함으로써,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특징을 연구하기 위한 질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각 인물들의 《詩經》에 대한 언급은 여러 텍스트에 분산되어 있다. 이들은 《詩經》에 대한 자신들의 사상을 주석서의 형태로 제시하지 않고, 여러 강연 및 투고문에 분산하여 제시한다. 때문에 3장에서는 《詩經》에 대한 그들의 언급을 모아,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및 배치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에서는 강유위의 《孔子改制考》, 《大同書》를, 장병린의 《國學概論》, 〈原經〉, 〈辨詩〉, 〈文學總略〉, 〈經學略說〉을, 유사배의 《經學教科書》, 《毛詩詞例擧要詳本》, 《毛詩詞例擧要略本》, 〈漢代古文學辨誣〉, 〈群經大義相通論〉, 〈周末學術史序〉를, 양계초의 《要籍解題及其讀法》, 《中國之美文及其歷史》, 《中國歷史研究法》, 〈中國韻文里頭所表現情感〉을, 왕국유의 《經學概論》, 〈論哲學家與美術家之天職〉, 〈古史信證〉, 〈與友人論詩書中成語書〉, 〈毛公鼎考釋〉, 〈說勺舞象舞〉, 〈說周頌〉, 〈周大武樂章考〉, 〈漢以後所傳周樂〉, 〈論新學語之輸入〉[24]을 직접적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시경론을 구축한다. 그리고 각 인물들의 《詩經》에 대한 언급은 "《詩經》에 대한 관점",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순으로 내용에 맞추어 배치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구체화 된 각 인물들의 시경론을 활용하여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특징은 3장에서 구체화 된 각 인물들의 시경론을 비교함으로써 도출할 수 있다. 비교는 통시적 측면과 공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우선 공시적 비교, 즉 각각 인물들의 같고 다름을 통하여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특징을 추출한다. 다음으로 통시적 비교, 즉 전통 시경학 근대전환기의 시경론을 비교함으로써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도출된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특징 역시 "《詩經》에 대한 관점",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순으로 내용에 맞추어 배치한다. 다만 각각의 주제에서 비교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의 다섯 인물들을 "전통 시경학의 계승"과 "근대 시경학의 정초"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가 있고,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양계초와 유사배가 있다. 이러한 분류에 대한 정당화는 4장 전반에

24) 위의 텍스트들의 출판 연도 및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본 논문의 부록에서 제시한다.

서 예증의 방식을 통해 진행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근대전환기의 시경론을 고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목적을 도모한다. 우선, 기존에 연구되지 않았던 근대전환기의 시경론을 연구할 수 있는 질료를 마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밝혀낸다. 다음으로, 전통 시경학의 유산과 근대 시경학의 맹아가 공존하던 시기의 시경론을 고찰함으로써 전통 시경학에서부터 근대 시경학으로의 이동 과정을 보다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로써 근대전환기의 시경론뿐만 아니라 전통 시경학과 근대 시경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詩經》이라는 경학과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근대전환기 지식인들의 경학관과 문학관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제 2 장 근대전환기의 시대적 배경

본 장에서는 논의 전개를 위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한다. 우선, 근대전환기의 시대적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논의의 맥락을 설정한다. 본고에서는 근대전환기 시경론을 '정신문명'의 재건이라는 시대적 화두의 맥락에서 고찰한다. 다음으로 근대전환기 시경론에 변화를 야기한 변화 요인들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본고에서 설정한 전제들을 정당화한다. 근대전환기 서구의 침입으로 中華의 세계관은 해체되고, 중화라는 세계관을 구성하는 중추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경학의 지위 변화로 이어진다. 동시에 서학의 수용은 경전을 해석하는 맥락의 변화를 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家學과 師學이 약화 되고, 주석서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연구 성과물이 등장한다.

2.1 1890년대 이후의 시대적 화두: '정신문명'의 재건

본고에서는 '정신문명' 재건의 맥락에서 근대전환기의 시경론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고의 제1장에서 언급했듯이, 전통시기 중국에서 《詩經》은 문학, 정치, 철학, 법률 등의 방면에서 활용된다. 《詩經》은 다른 경전들과 함께 제국의 발전 및 유지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학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전통시기동안 지속되었던 《詩經》의 기능에 근거하여, 근대전환기의 시경론을 《詩經》과 사회와 연결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즉, 본고에서는 근대전환기 시경론을 연구함에 있어서, 《詩經》을 학술담론 혹은 학문형성의 맥락에서 고찰하지 않는다.

근대전환기 중국의 지식인들은 근대화를 위해 여러 차례 시도를 한다. 1890년대의 여러 근대화 시도들은 '정신문명'의 재건에 중점을 맞춘다. 중국의 근대화를 위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시대구분과 그 시대의 대표적인 표어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의 근대화를 위한 노력은 1840년대의 "師夷長技論", 1860년대의 "中體西用論", 1890년대의 "變法維新論"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어들은 근대화에 대한 중

국인들의 사유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근대전환기 중국의 지식인들은 근대화를 이원론적 관점을 지니고 접근했다. 그들인 '근대화'라는 개념을 크게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으로 나누어 인식하였다. 이는 중국의 근대화 시도를 개괄하는 세 가지 표어가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를 지칭하는 개념어로 이루어져 있음으로부터 알 수 있다. 1840년대의 "長技"는 1860년대의 "用"은 '물질문명'을 지칭하는 개념어이다. 중국인들은 초기 근대화 시도를 통해 서구에 버금가는 '물질문명'을 이루고자 하였다. 1860년대의 "體"는 '정신문명'을 지칭하는 개념어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당시 중국의 지식인들이 근대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을 구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근대화를 위한 시도 역시, 초기 '물질문명'을 강하게 강조하는 성향에서 점차 '정신문명' 또한 강조하는 성향으로 변함을 알 수 있다.

실제 각 시대에 행해지던 근대화를 위한 시도를 활용하여 위의 주장을 예증할 수 있다. 1840년대의 개혁은 정부주도의 개혁으로, 주로 서구의 무기를 확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860년대의 개혁 역시 정부주도의 개혁으로, 무기 및 그 원천 기술의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890년대 이후의 상황은 조금 변화한다. 이 당시의 변화는 근대화를 위한 시도의 주체와 그 내용에서 이전시기와 차이를 보인다. 강유위, 양계초와 같이 정부의 자장에서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도 존재한다. 하지만 동시에 嚴復, 林紓, 장병린, 유사배, 왕국유와 같이 정부의 자장 밖에서 개혁을 시도했던 인물의 영향력이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또한 "富國强兵"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러 '문화운동'이 제창된다. 강유위, 양계초, 장병린, 유사배, 왕국유는 모두 문화운동을 주장하였다.

1890년대 이후 근대화 시도의 맥락에서 본 '정신문명'의 재건, 즉 부국강병을 위한 문화운동은 두 가지 새로운 사상적 원천을 지닌다. 그것은 중국의 전통사상과 서양사상이다. 우선, 당시 중국의 전통사상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서양사상은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중국의 지식인 사회에 소개된다. 하나는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발간된 엄복과 임서 등의 번역서를 통한 소개이고, 나머지 하나는 일본 지식인 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소개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 역시 중국의 전통사상과 서양사상을 학습 및 수용한다. 다만 각각의 사상적 원천에 대한

각기 다른 태도로 인하여, 각기 다른 '정신문명'의 재건의 방안을 주장한다.

1890년대 이후 '정신문명' 중심의 근대화 시도의 의의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1890년대 이후 '정신문명' 중심의 근대화 시도는 '물질문명' 중심의 근대화 시도의 실패 이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전근대 지식인들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1890년대 이전 '물질문명' 중심의 근대화 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및 근대전환기 중국 지식인들의 일본의 부상에 대한 인식에 근거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 달리 1840년대부터 1890년대 사이의 '물질문명' 중심의 개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25] 1869년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同治帝의 제위 기간(1861~1875)을 "同治中興"이라 표현하고, 왕실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이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중국의 지식인들은 1840년대 이후 진행된 '물질문명' 중심의 근대화의 성과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중국 지식인들의 이러한 자신감이 실제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벤저민 앨먼은 중국과 일본의 기술을 비교하며, "강남기계제조국과 복주선정국이 주요한 경쟁 상대인 일본의 요코스카 조선소보다 기술적으로 더욱 앞섰다."[26]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중국의 1890년대 이전의 근대화 시도가 실제로 실패한 것이 아니며, 當代의 지식인들은 당시의 근대화 시도의 성과를 높게 평가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근대전환기 중국의 지식인들은 청일 전쟁의 패배 이후, 패배의 원인을 '물질문명'뿐만 아니라 '정신문명'의 측면에서도 찾았다.

1890년대 청일전쟁을 시발점으로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국제적 세력으로 부상한다.[27] 이러한 무력의 과시는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이어진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는 아시아 국가들에게 희망의 일종으로 인식된다. 이를 계기로, 중국의 지식인

25) 청말 근대화 시도에 대한 현대 연구자들의 평가 변천은 윌리엄 T. 로, 기세찬 옮김, 《하버드 중국사・청》, 377-384쪽을 참조할 것.
26) 윌리엄 T. 로, 기세찬 옮김, 위의 책, 384쪽, 주 30 재인용.
27) 일본의 국제 세계로의 진출은 1876년 조선과 맺은 강화도 조약으로 시작한다. 1894년 청일전쟁 이후, 미국과 영국에 의해 국제 세계에서 국제적 세력으로 인정받기 시작한다. 다만,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일본을 국제적 세력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다.-피터 듀오스, 김용덕 옮김, 《日本近代史》, 138-143쪽 참고.

들은 일본이 서구 못지않은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한다. 서구와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비서구 국가인 일본의 근대화 성공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게 근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근대화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이원론적 관점은 더욱 타당해지게 된다. 즉, 서구와 동일한 역사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근대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성취한다면 서구 문명을 능가할 수 있는 문명을 만들 수 있다는 사유가 타당하게 여겨진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1890년대 중국 지식인들의 '정신문명' 중심의 근대화를 주장은 근대화를 완성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즉, 그들의 시도는 근대화를 구성하는 두 요소 가운데 이미 구비된 '물질문명'외에, 나머지 요소인 '정신문명'을 구비함으로써 근대화를 이루려던 시도이다.

2.2 근대전환기 詩經學의 변화 요인

2.2.1 서구의 침입: 中華의 위기로 인한 經學의 지위 변화

서구의 침입은 중국의 지식인들로 하여금 자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1939년 제1차 아편전쟁을 시작으로, 1856년 제2차 아편전쟁, 1883년 청불전쟁, 1894년 청일전쟁 등의 일련의 전쟁과 南京條約 등의 일련의 외국과의 조약은 중국의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28]으로 다가온다.

중국의 지식인들은 中華의 관념이 점차 어그러짐을 느낀다.[29] 中華의 개념은 본디 국가 간의 관계를 차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념이다.[30]

---

28) "영국의 외교적 평등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모든 지배자에 대한 황제의 우월성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 우월성은 중국에서 황제가 그 지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주었다. 따라서 더 이상 아편무역을 용인하는 것은 銀兩과 銅錢의 교환비율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황제의 도덕적 위엄에도 손상을 가하게 될 터였다."-존 킹 페어뱅크, 김형종 옮김, 《신중국사》, 244쪽.

29) "또한 사회의 전영역이 全一的으로 통합되어 있던 전통질서의 붕괴를 직접 목도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중화의 세계가 완전히 해체되어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한 시기에 살았다."-김월회, 앞의 논문, 48쪽.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은 외부의 민족들을 '오랑캐[夷]'라 칭하며, 교화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외부의 민족들 역시 이러한 관념을 받아들여 스스로를 인식하였다.[31] 서구의 침입과 그로 인한 외교적 평등의 여러 조약들,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변화는 中華 개념의 근간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中華 문화의 중추가 되는 경학은 이전의 위상을 상실한다. 경학을 구성하던 시경 역시 이전의 위상을 잃는다.

中華의 해체에 대한 위기감 속에서 지식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서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였다. 반면 몇몇 지식인들은 서학의 무비판적 수용을 비난하고, 중국의 전통학문 체계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경향의 구분은 각각이 본고에서 다루는 인물들에 일정정도 적응할 수 있다. 가령,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왕국유, 양계초가 있고,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가 있다. 주목해야할 점은 이 두 종류의 반응 모두 서학의 학습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2.2.2 서학의 수용: 經典을 해석하는 맥락의 변화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서학은 중국의 사상계에 수용되고, 곧 사상계 전체를 지배한다.[32] 그것은 전통시기의 학문의 개념 및 목적, 방법론, 분과 학문 등의 방면에

30)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夏夷의 관념이 "하이의 구별(別)은 禮의 유무에 의한다."는 문화 가치적 차별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미조구치 유조, 김석근 옮김, 《중국 사상 문화 사전》, 303쪽.

31) 가령, 조선의 예가 대표적이다. 조선은 스스로를 '小中華'라 칭하기도 하고, 중국과의 사대형식의 외교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해 온다. 이러한 사대형식의 외교관계는 근대 시기에 이르러 해체된다. 中華와 事大 형식의 외교 관계의 연관성은 정용화, 〈사대・중화질서 관념의 해체과정〉, 98-103쪽을 참조할 것.

32) "만약 동치중흥, 무술변법, 5・4신문화운동 등 몇 가지 전형적인 역사적 사건을 경계로 서학 전파의 역사를 고찰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동치중흥 식 양무운동 기획자들은 대부분 유가 경전에서 개혁의 근거를 찾았다. 무술변법 시기가 되자 유신 변법 투사들은 늘 유가 경전을 회고했지만 이미 주된 방향을 서방으로 전환했다. 5・4신문화운동 시기 운동의 선동가들은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전통을 파기했다. 그들 입장에서 서양은 진리와 희망을 대표했다. 이 시기는 줄곧 보수를 외친 인사까지도 서방의 과학과 민주가 민족과 국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을 정도였다. 19세기 중엽부터 계산하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가운데 독립된 학문 분과 개념의 수용이야 말로, 이후의 변화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근본적인 변화이다. 전통시기 존재한 여러 '학문'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경전의 이해를 그 목적으로 삼는다. 예컨대 전통시기의 훈고학, 성리학, 고증학 등의 학문은 방법론 때문에 그것들은 큰 틀에서, 경학의 범주에 종속된다고 할 수 있다.

독립된 학문 분과 개념의 수용으로 인해, 경학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경학의 위상은 하나의 학문 분과로 격하되고, 그것은 다른 독립된 학문 분과들과 병치되기 시작한다. 장병린은 중국의 전통학술을 "國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칭한다. 그가 언급하는 "국학"은 문학, 철학, 경학, 소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과로 구성된다. 유사배는 《周末學術史》에서 周代의 학술계를 재구성한다. 이 글에서 그는 周代의 학술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종교학, 政法學, 計學, 兵學, 교육학 등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라 문단을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경학 중심의 학문체계 와해는, 경전을 새로운 학문 분과의 맥락에서 활용하며, 새로운 목적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서구의 침입에 의해 中華 관념이 와해되어 가는 사유가 전제된다. 中華 관념의 와해로 인해, 새로운 학문적 풍조는 전통 시경학에 존재하던 윤리적 기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즉, 中華의 와해, 경학의 위상 상실, 그리고 경전의 위상 상실 등이 진행되어가는 시대적 배경 하에, 당시의 지식인들은 경학 중심의 학문체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이러한 계기는 《詩經》을 비롯한 경전이 해석되고 활용되는 맥락의 변화로 이어진다.

면 서학이 중국에 전파돼서 사상계를 석권하는 데 단지 80 년밖에 안 걸렸다. 이 점은 불학이 중국의 본토 문화로 흡수되는 데 수백 년, 심지어 1000년 이상 걸린 데 비하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천샤오밍, 김영진 옮김, 《근대 중국사상사 약론》, 305-306쪽.

2.2.3. 잡지 및 신문 등의 근대적 매체 발달: 家學과 師學의 약화 및 새로운 연구 결과물의 등장

근대전환기 중국에 잡지 및 신문 등의 매체가 흥성하고 창간된다.[33] 최초의 근대적 중문 잡지로 평가되는 것은 1815년에 간행되기 시작한 《察世俗海月統記傳》이다.[34] 초기 선교를 목적으로 간행되던 잡지는, 학문의 분야에서도 활약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식의 전파 및 학문 전수 방법에 변화를 야기한다.

잡지 및 신문 등의 매체의 발달은 학술 방면에서 두 가지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지식인들은 공간을 초월하여 지식을 전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중국 각 지역의 특색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식의 전파에 있어서 공간의 제약이 극복됨만을 의미한다. 즉, 강남에 있는 지식인은 자신의 견해를 잡지 및 신문을 통해 제창하고, 이는 북경의 지식인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근대시기의 잡지는 하나의 토론장의 기능을 겸비한다. 가령, 당시에 문학과 종교, 현학과 과학과 관련하여 몇 차례 논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쟁들의 상당수는 잡지 및 신문을 통해 이루어 졌다.[35] 즉, 새로운 매체인 잡지와 신문은 공간을 초월하여 지식을 전수하고, 동시에 토론장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교류하는 기능을 한다.

새로운 지식의 전파 및 토론을 통한 권위의 약화는 當代의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전통시기의 학문 전수 방법인 家學과 師學의 영향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근대적 매

---

33) "1890년에 들어 중국인에 의한 중국어 신문도 속속 창간되어 上海를 비롯한 중국 각지의 신문 잡지의 창간은 고조기에 들어선다. 이 시기에는 梁啓超· 康有爲 등의 變法派의 기관지였던 《時務報》의 선도로 정론을 표방한 간행물들이 연이어 창간되었으며, 인민계몽의 필요성이 고양됨에 따라 1900년대 초반부터는 林獬 주편의 《中國白話報》를 비롯하여 《湖南白話報》, 《無錫白話報》 등이 속속 창간되었다."-김월회, 앞의 논문, 31쪽.

34) 민정기, 〈근대 중국 정기간행물의 지식 편제와 '문학'〉, 152쪽, 주3 재인용.

35) 이러한 논쟁의 대표적인 예로, 과학과 현학의 논쟁이 있다. 이는 1920년대 지식인들 사이에 발생한 논쟁으로 과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丁文江, 현학파를 대표하는 인물로는 張君勱 등이 있다. 각각 진영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주장을 잡지에 투고하는 형식으로 드러내었다. 그들은 주로 《淸華周刊》, 《努力週報》, 《時事新報》, 《學燈》 잡지를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 과학과 현학의 논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리쩌허우, 김형종 옮김, 《중국현대사상사론》, 105-126쪽을 참조할 것.

체의 발달과 家學과 師學의 해체 사이에 상관성은 있으나, 인과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근대적 매체의 발달로 인한 지식을 보급하는 경로가 다양화가 家學과 師學의 해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대적 매체 등을 통한 지식의 습득은 家學과 師學이 일정 정도 해체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때문에 양자 사이의 인과성은 규명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양계초와 유사배는 각각 자신의 스승과 가문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상을 주장한 대표적인 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當代 사람들로부터 師學과 家學을 등진 것에 대해 비난받지 않는다.[36] 이는 근대전환기의 지식인들이 이전시기에 비해 家學과 師學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보다 진보적인 사상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를 통해서, 본고에서 활용하는 몇몇 텍스트들, 즉 《詩經》에 관련한 잡지의 글들 및 강의 기록들이 근대 시경학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36) 이와 달리 전통시기에는 家學과 師學의 계승을 굉장히 중시한다. 전통시기 家學과 師學이 형성되고, 그 영향력이 강해지는 과정은 혼다 시게유키, 서경요 옮김, 《중국경학사》, 241-146쪽; 서복관, 고재욱 옮김, 《중국경학사의 기초》, 137-141쪽 등을 참조할 것.

제 3 장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양상

본장에서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 등의 시경론을 구체화한다. 각 인물들의 여러 편의 글에 분산되어 있는 그들의 《詩經》에 대한 언급을 모으고 재배치한다. 본고에서는 각 인물들의 시경론은 "《詩經》에 대한 인식",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으로 나누어 파악한다. 때문에 여러 편에 분산되어 있는 다섯 인물들의 《詩經》에 대한 언급을 모으고, 그것들을 "《詩經》에 대한 인식",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에 맞추어 유기적으로 재배치하여, 각 인물들의 시경론을 구체화한다.

3.1 강유위의 시경론

3.1.1. 강유위의 《詩經》에 대한 인식

강유위는 《詩經》을 공자의 저작이라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經"자의 정의, 《詩》와 《詩經》의 구분, 공자와 《詩經》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經"자를 정의하기 위해서, 전통시기 서적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의 정의를 그 논거로 삼는다. 강유위는 서적들을 지칭하는 "經", "傳", "記", "說"의 정의가 고정적이라 파악하며,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공자가 지은 것을 經이라 한다. 제자들이 전수 받아 기록한 것을 傳이라고 하거나 또는 記라고 한다. 제자와 후학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구전된 것을 說이라고 한다. 漢代 이전에는 경과 전에 대해 이론이 없었다. 따라서 《詩》, 《書》, 《禮》, 《樂》, 《易》, 《春秋》, 六經만 공자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經이라 불렀다. 예컨대 석가모니가 말한 것이 經이고, 禪師들이 만한 것이 論인 것과 같다. 제자들이 지은 책을 감히 참칭하는 경우는 없었다.[37]

그는 각각의 정의에 근거하여, 서적들을 위계화 한다. 서적들의 위계는 그 서적의 저자에 의해 결정된다. 그의 논리를 따르면, "경"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六經뿐이다. 실제로 강유위는 남조 시기의 7경, 唐代 9경, 宋代의十三經, 十四經 등은, "經"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38] 강유위는 "경"자의 정의를 통하여, 경전을 공자의 저작으로 설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이전시기의 문헌에서 언급되는 《詩》가 공자의 《詩經》을 구분해야 한다. 때문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淮南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른다.) "공구와 묵적은 앞선 성인의 학술을 닦고, 육예의 논의에 능통하여 입으로는 성인의 말을 진술하고, 몸으로는 서인의 뜻을 실천하고, 그 뜻을 흠모하고 교화를 좇았으나, 그들의 제자가 된 자는 수십 명에 지나지 않았다. 만약 그들이 천자의 지위에 있었다면, 천하는 온통 유가나 묵가였을 것이다." 이 문장에 근거하여 말한다면, 단지 《詩》, 《書》, 《禮》, 《樂》만이 삼대의 옛 명칭이 아니라, 《易》과 《春秋》 역시 그러하다. 곤과 건의 뜻, 그리고 손질하지 않은 《春秋》는 본래 묵자도 공유하던 것인데, 刪定하여 같지 않게 되었다.[39]

---

37) "孔子所作謂之經. 弟子所述謂之傳, 又謂之記. 弟子後學輾轉所口傳, 謂之說. 凡漢前傳經者無異論. 故惟《詩》, 《書》, 《禮》, 《樂》, 《易》, 《春秋》六藝, 爲孔子所手作, 故得謂之經. 如釋家, 佛所說爲經, 禪師所說爲論也. 弟子所作, 無敢僭稱者."-〈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康有爲全集・第三集》, 128쪽).

38) "후세에 거짓 고문경학으로 인하여 혼란스러워졌고, 傳과 記로 인하여 혼란이 가중되었다. 《樂》은 본래 글이 없었다. 이에 南朝代에 《周禮》와 《禮記》를 추가하여 7경이라고 했다. 唐代에는 또 《春秋》를 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春秋》의 세 개의 傳을 추가해서 9경이라고 했다. 宋代 명도 연간에 《孟子》를 추가하고, 위훈고 책인 《爾雅》도 경이라는 이름을 덮어씌워 13경이 되었다. 또 《大戴禮記》를 추가해서 14경이 되었다. 걸맞지 않고 거짓된 책이 어지럽게 올라타서 經이라는 명칭이 너무 심하게 잘못되어 버렸다. 주희는 또 예기 《禮記》〈大學〉의 첫 장을 經으로 삼고, 나머지 장을 傳으로 삼았으니, 하나의 記의 문장을 經과 傳으로 나눔으로써 더욱더 이상하게 되어버렸다. 이것을 모두 공자가 지은 책만이 經이 될 수 있는 의미를 몰랐기 때문이다. (後世亂以僞古, 增以傳記. 《樂》本無文. 於是南朝增《周禮》, 《禮記》, 謂之七經. 唐又不稱《春秋》, 增三傳, 謂之九經. 宋明道時增《孟子》, 甚至增僞訓詁之《爾雅》, 亦冒經名, 爲十三經. 又增《大戴記》爲十四經. 僭僞紛乘, 經名謬甚. 朱子又分《禮記》〈大學〉首章爲經, 餘章爲傳, 則又以一記文分經傳, 益更異矣. 皆由不知孔子所作, 乃得爲〈經〉之義.)"-〈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18쪽).

39) "孔丘, 墨翟, 修先聖之術, 通六藝之論. 口道其言, 身行其誌, 慕義從風, 而爲之服役者, 不過數十人. 使居天子之位, 則天下遍爲儒, 墨矣."以此言之, 不獨《詩》, 《書》, 《禮》, 《樂》爲三代舊

그는 이전 시기에도 《詩》라는 이름의 텍스트는 존재했지만, 그것은 공자가 지은 경전으로서의 《詩經》과는 구분된다고 풀이한다. 이외에도 공자는 《詩經》이 공자의 저작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사람들은 《春秋》가 공자에 의해 지어진 것을 알지만, 《詩經》 역시 공자에 의해 지어진 것은 모른다. (《春秋》之爲孔子作, 人皆知之. 《詩》亦爲孔子作, 人不知也.)"[40]라고 한다. 강유위는 여기에서 "짓다(作)"자[41]를 사용하는데, 이는 공자와 《詩經》의 관계에 대한 강유위의 관점을 시사한다. 강유위는 공자가 《詩經》을 刪詩함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보다는 적극적인 행위를 취하였을 것이라 설정한다. 그의 전체적인 의견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적극적인 행위는 '托古'와 '改制'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유위는 《詩經》을 포함한 六經이 공자가 '托古'의 방법론을 실천한 텍스트라 설정한다. 그는 공자가 제도를 고치기 위해 托古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공자가 六經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시기에 있던 명칭을 사용한 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얻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지적한다.[42] 강유위는 공자가 托古를 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비로소 그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풀이한다. 그는 예시를 들어 공

名, 《易》, 《春秋》亦然. 《坤》, 《乾》之義, 不修《春秋》, 固墨子所同者也, 惟刪定不同耳."-〈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219쪽).

40) 《孔子改制考》〈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95쪽).

41) 이 구절에서, "作"자를, "저작"이 아닌, "짓다"로 풀어 문장 전체를 피동형 문장으로 보는 것은 한문 어법에 맞고, 강유위의 사상과 부합된다. '爲'자는 피동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는, "고대중국어에서 자주 보이는 또 다른 피동문형은 전치사 '爲'자를 동사 앞에 사용하여 행우의 주동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주어의 피동 성질을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는 경우이다." (궈시량, 학이사 옮김, 《고대중국어》, 123쪽)를 참조할 수 있다. 또한 강유위는 공자의 六經이 공자에 의해 새로 지어진 것이라 주장하며, "六經의 내용은 비록 공자가 새롭게 지은 것이지만, 책의 이름은 실제로 예전부터 부르던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六經"文辭, 雖孔子新作, 而書名實沿舊俗之名.)"(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128쪽)라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하여 보았을 때,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피동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42) "六經의 내용은 비록 공자가 새롭게 지은 것이지만, 책의 이름은 실제로 예전부터 부르던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이는 아마도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고, 믿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六經을 존중하고, 쉽게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란다.("六經"文辭, 雖孔子新作, 而書名實沿舊俗之名. 蓋無征不信, 不信民弗從, 欲國人所共尊而易信從也. 《詩》, 舊名. 有三千餘篇. 今三百五篇, 爲孔子作, 齊, 魯, 韓三家所傳是也.)"-〈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128쪽).

자가 托古하여, 《詩經》을 짓고 활용하였음을 증명한다. 예컨대 강유위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공자의 道는 부부로부터 시작된다. 《詩經》〈葛覃〉과 《詩經》〈桃夭〉가 남아 있으니, 결혼을 허가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무릇 혼인을 제때에 하는 것은 정욕의 감흥에 신중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옛날 제도처럼 남자를 높이고 여자를 억누르면 제 때가 지나서 결혼하는 수도 있고, 적절한 시기에 미치지 않아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 공자가 제도를 개혁하여 여성의 배움을 중신한 것이 이와 같다.[43]

강유위의 주장에 의하면, 공자는 당시의 결혼 제도를 바꾸기 위하여 《詩經》을 활용한다. 즉, 공자는 《詩經》을 지으며, 결혼과 관련한 내용을 기록한다. 《詩經》에 기록된 내용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전시기에 존재했던 사실로 인식된다. 그리고 공자는 《詩經》에 내용에 근거하여, 당시의 결혼제도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자가 《詩經》에 예전의 사실처럼 기술한 내용,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한 방법은 모두 托古의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시의 제도를 개혁하기 위함이다.

3.1.2. 강유위의 《詩經》 해석 방법

강유위는 '托古'의 방법을 통하여 《詩經》을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공자가 托古의 방법을 통하여 六經을 지은 사실 이외에, 托古의 방법이 당시의 보편적 방법론이었던 사실, 맹자가 탁고의 방법을 활용하였던 사실을 언급한다.

강유위는 《孔子改制考》〈諸子改制托古〉에서 묵자, 노자, 양자, 장자, 열자, 추자, 시자, 상군, 한비자, 관자, 여불위, 황제, 유안 등을 예시로 들어[44], 그들이 각각의

43) "孔子之道 : 造端夫婦. 《詩》存《葛覃》, 《桃夭》, 言可許嫁. 蓋婚姻以時, 所以愼乎情欲之感也. 若舊制尊男抑女, 則有過時, 不及時者矣. ... 孔子改制而重女學如此"-〈孔子改制弟子時人據舊制問難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159쪽).

44) 이는 《孔子改制考》〈諸子改制托古〉를 구성하는 편목에서 알 수 있다. 《孔子改制考》〈諸子改

사상을 '托古'의 방법으로 주장하였다고 풀이한다. 또한 맹자가 공자에 '托古'함을 근거로, 이를 통해 '托古'를 하나의 보편적인 방법론으로 설정한다.

강유위는 托古를, 유학자들이 본받아야할 방법론으로 설정한다.[45]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행한 유학자로 맹자를 언급한다. 그는 《孟子》에서 잦게 활용되는 요임금과 순임금에 대한 언급[46]이, 실제로는 공자를 지칭[47]한다고 풀이한다. 이는 곧 맹자가 공자에게 托古하여, 입론하였음을 의미한다. 唐代 이후 맹자가 유가에서 공자에 버금가는 지위를 지닌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강유위는 맹자를 托古의 방법론을 활용하는 인물의 전범으로 설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비록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지만 공자, 맹자, 諸子 사이에는 위계가 형성된다. 이들 사이의 우열은 '托古'의 방법론에 대한 평가가 아닌, '改制'에 대한 평가에 달려있다. 이에 대해 강유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이제 제자백가의 제도개혁에 대해 말하겠다. 제자백가들이 제도를 개혁한 것이 분명하다. 하물며 위대한 성인으로 문물제도를 만든 공자가 혼란한 세상을 가만히 좌시한 채, 어찌 제도를 개혁하여 바로잡아서 올바른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벌주는 것은 오직 '義'에 달려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결코 천박한 선비나 견문과 지식이 좁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48]

制托古〉는 〈墨子托古〉, 〈老子托古〉, 〈楊子托古〉, 〈莊子托古〉, 〈列子托古〉, 〈騶子托古〉, 〈屍子托古〉, 〈商君托古〉,〈韓非托古〉, 〈管子托古〉, 〈呂氏托古〉, 〈《內經》托古〉, 〈《鶡冠子》托古〉, 〈《淮南子》托古〉, 〈方士托古〉 등, 총 15개의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45) "유학자는 옛날을 말하고, 선왕을 예찬하며, 托古함으로써 현재를 바꾼다.(儒者道上古, 譽先王, 托古以易當世也.)"-〈六經皆孔子改制所作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147쪽).

46) "맹자의 책에는 요임금과 순임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며, 성선설을 주장한다. 이는 또한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에게 托古하여 그 뜻을 밝힌 것이다.(孟子書多稱引堯, 舜, 故言性善, 亦托之堯, 舜, 以明其旨.)"-〈孔子改制托古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쪽).

47) 공자의 道는 요임금과 순임금에게 托古되어 있다. 때문에 맹자 역시 요임금과 순임금에 대해 말한 것이다. 맹자가 말하는 요임금과 순임금은 공자이다. (孔子之道托之堯舜, 故孟子言必稱之. 凡孟子之堯舜, 卽孔子也.)"-〈孔子改制法堯舜文王〉《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155쪽).

48) "今揭諸子改制之說. 諸子之改制明, 況大聖制作之孔子, 坐睹亂世, 忍不損益, 撥而反之正

강유위는 공자와 제자백가들이 모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모두 '托古'의 방법을 통하여, 제도 개혁을 도모한다. 이들의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은 '義'에 달려있다. 이는, "나를 알아주거나 나를 벌주는 것은 오직 '義'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知我罪我, 惟義所在)"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강유위의 이 구절은 《孟子》〈滕文公下〉의 "이에 공자가 두려워하여, 《春秋》를 지었다. 《春秋》의 내용은 천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까닭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를 알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春秋》뿐이고, 나를 벌할 수 있는 것도 오직 《春秋》뿐이다."[49](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其惟《春秋》乎. 罪我者其惟《春秋》乎.)"[50]라는 구절을 참고[51]하였다. 《孟子》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풀이될 수 있다. 즉, 공자는 당시의 세상을 위해서 《春秋》를 지었는데, 그는 《春秋》에 자신의 사상을 반영하였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春秋》의 내용을 활용하여, 공자에 대해 이해하고, 비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풀이를 위의 《孔子改制考》의 구절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공자는 '托古'의 방법을 통해, 당시 제도의 개혁을 도모한다. 공자가 주장하는 제도 개혁의 내용에는

乎？知我罪我, 惟義所在, 固非曲士, 夏蟲所能知矣."-〈諸子創敎改制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위의 책, 21쪽).

49) 이 구절의 해석은 James Legge 의 번역을 참고한다. 그는 *The Works of Mencius*에서 이 구절을 "Again the world fell into decay, and principles faded away. Perverse speakings and oppressive deeds waxed rife again. There were instances of ministers who murdered their sovereigns, and of sons who murdered their fathers. Confucius was afraid, and made the "Spring and Autumn." What the "Spring and Autumn" contains are matters proper to the sovereign. On this account Confucius said, "Yes! It is the Spring and Autumn which will make men know me, and it is the Spring and Autumn which will make men condemn me."(Mengzi, James Legge trans, *The Works of Mencius*, 281-282쪽)이라고 번역한다.

50) 《孟子》〈滕文公下〉에 등장하는 이 구절의 전체적인 맥락은 다음과 같다. "세상이 쇠퇴하고, 道가 희미해지니, 삿된 말과 포악한 행동이 일어났다. 신하가 그 군주를 죽이고, 자식이 그 아비를 죽이기도 하였다. 이에 공자가 두려워하여, 《春秋》를 지었다. 《春秋》의 내용은 천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러한 까닭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를 알아주는 것은 오직 《春秋》뿐이고, 나를 벌하는 것도 오직 《春秋》뿐이다."(世衰道微, 邪說暴行有作, 臣弑其君者有之, 子弑其父者有之. 孔子懼, 作《春秋》. 《春秋》, 天子之事也. 是故孔子曰, 知我者其惟春秋乎！罪我者其惟春秋《春秋》乎.")"(孟子, 焦循 點校, 《孟子正義》, 452쪽) 이 구절에서 맹자는 《詩經》이 사라지고, 그 기능을 대체하기 위하여 《春秋》가 지어졌다고 풀이한다.

51) 이 구절이 《孟子》를 참고하였다는 사실은 강유위, 김동민 역주, 《孔子改制考・1권》, 243쪽, 주15번을 참고한다.

공자의 '義'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제도 개혁 내용을 통해, 공자의 義를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공자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제자백가에도 적용된다. 즉, 한 사람의 改制의 주장과 그 내용에는, 그 사람의 義가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의 改制의 주장을 살핌으로써, 그를 이해하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강유위가 언급하는 六經 및 《詩經》에 담겨져 있는 '의'는 후학들이 탐구해야 하는 하나의 목적이 아닌, 공자와 제자백가를 구분 지어주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강유위는 '改制'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 '義'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반면에 《詩經》을 '托古'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것은 강조한다. 이를 통해, 강유위는 《詩經》에 담겨있는 '義'를 파악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강유위의 托古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우선, 공자의 托古이다. 이때의 '古'는 공자가 지은 六經 및 《詩經》에 기록되어 있는 요임금과 순임금을 비롯한 이전 시기와 관련한 기록으로 한정된다. 두 번째는, 공자 이후의 유학자들이 경학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서의 托古이다. 이는 공자의 六經을 답습하는 托古이다. 이때의 '古'는 공자가 지은 六經 및 《詩經》의 내용 전반을 가리킨다. 즉, 강유위는 후대의 유학자들이 공자가 지은 六經을 활용하여 입론[托古]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제도를 개혁[改制]할 것을 주장한다.

3.1.3. 강유위의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강유위는 托古를 통한 改制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강유위가 경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大同"이라 평가된다. 그는 실제로 《大同書》[52]에서도 경전을 활용하여, 자신의 입론을 펼친다.

52) 강유위는 1919년 《大同書》를 출판한다. 필자는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이 책에서 그는 총 10개의 部로 나누어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는 甲部에서, "人世界觀衆苦"라는 제목 하에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을 6가지로 구분한다. 그리고 나머지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에서 甲部에서 제시한 고통을 없애며, 大同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들을 나열한다.

그는 경전을 활용하여 대동서의 핵심 개념들을 추출한다.[53] 다만 《詩經》은 특정 개념을 도출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강유위는 《大同書》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詩經》을 활용한다. 이러한 활용 방법은 두 가지 맥락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우선, 그것은 강유위 자신의 관점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맥락에서 활용된다. 다음으로 그것은 강유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맥락에서 활용된다.

강유위는 《大同書》에서 《詩經》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이 사실임을 증명한다. 가령 그는 《詩經》을 활용하여, 이전시기에 나무로 지은 집이 많았음을 증명한다.[54] 또한 강유위는 《詩經》을 활용하여, 전통시기 여성들의 공무에 대해서 추측한다.[55]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의 《詩經》 활용은 단순 사실 관계의 증명 만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가령, 《大同書》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유전인자가 나쁘거나 독한 전염병에 걸리면 단경 같은 현인도 〈芣苢〉 노래를 부른 것을 면치 못했다. 이것이 폐질의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다.[56]

---

53) 강유위는 大同의 세계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三世', '小康', '大同' 등의 개념을 활용한다. 우선, '三世'는' 據亂世-升平世-太平世'의 순으로 세계가 발전한다는 주장인데, 강유위는 이 개념을 《春秋公羊傳》, 何休의 註에서 추출한다. 다음으로, '小康'과 '大同'은 태평세 이후의 단계로, 각각이 '소란하던 세상이 평안하게 되는 세상', '차별이 없고, 화평하게 잘 다스려지는 세상' 등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은 모두 《禮記》〈禮運〉에 등장한다. 즉, 강유위는 大同이라는 하나의 이상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春秋公羊傳》과 《禮記》〈禮運〉 등의 경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4) "일반적으로 신개척지는 나무가 무성하게 우거져 나무로 집을 짓지 않은 곳이 없는데, 대륙들도 마찬가지다. 〈秦風〉에서도, "그는 나무 집에서 사네"라고 한다. 일본만 해도 전역이 모두 그렇다. 중국에서도 아직 이러한 집들을 堂構라고 부른다. (蓋新辟之地, 蟠木蓊郁, 無所往而不以木爲屋, 大地皆然也. 《秦風》曰 : 在我板屋. 而日本則擧國皆然矣, 今中國猶稱堂構也.)"-《大同書》(姜義華, 張榮華 編校, 《康有爲全集・第七集》, 18쪽).

55) "예컨대 누에를 치고, 뽕나무를 심는 일 같은 것들은 여자의 일이 된다. 《詩經》에서는, "여자는 公事가 없으니, 누에치고 베 짜는 일을 기뻐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후세의 왕비들도 역시 몸소 누에를 쳤다. 여자들이 처음 시작한 일이었으므로 여자들의 전문적인 일이 된 것이다. (若夫蠶桑, 亦歸女業. 《詩》曰 : 婦無公事, 休其蠶織, 故後世後妃亦尙親蠶, 蓋亦必婦女所創, 故專歸婦女之業.)"-《大同書》(姜義華, 張榮華 編校, 위의 책, 66쪽).

56) "惑由傳種之惡, 或感疫癘之毒, 雖以冉耕之賢, 猶不免歌〈芣苢〉也, 此爲廢疾之最苦痛者矣."-《大同書》(姜義華, 張榮華 編校, 위의 책, 11쪽).

강유위는 '불치병의 고통[廢疾之苦]'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치병으로 고통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는 고통을 받은 현인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현인이 《詩經》의 〈芣苢〉를 노래한다고 표현한다. 이는 《毛詩序》에서 그것을 "후비의 아름다움을 읊은 것이다. 세상이 평화로우면 부인들은 자식이 있음을 즐거워한다."라고 풀이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해석이다. 이처럼 그는 《詩經》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이 사실임을 증명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詩經》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이 반영된다.

다음으로, 강유위는 《詩經》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가령 그는 《大同書・戊部》〈去形界保獨立〉에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한다. 강유위는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詩經》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57] 또한, 그는 《大同書・己部》〈去家界爲天民〉에서 부모에게 孝를 행할 것을 주장함에 있어서도 《詩經》을 활용한다.

> 은혜를 입는 것 가운데 부모의 그것만큼 귀하고 큰 것은 없다. 그러므로 부모에 대한 보답은 마땅히 자식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詩經》에서도, "부모의 은덕을 갚으려 하니, 하늘처럼 그지없다."라고 한다. 공자께서 孝를 중시한 것은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만약 불효자가 있으면 빚을 갚지 않는 자를 다스리듯 처벌해야 마땅하다.[58]

이 부분에서 그는 《詩經》에 언급된 내용이 응당 따라야 할 대상임을 전제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는 《詩經》의 내용이 공자의 가르침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본 절의 앞부분에서 언급했지만, 그는 공자의 권위에 기대어 《詩

57) "정치와 교화를 잘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즐거움을 함께하고 이익을 함께하며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길러주고 원하는 바를 공급해주는 데 있다. 《詩經》에서 정치에 대해, "안에는 원망하는 여자가 없다."라고 한다. 어찌 어두운 원망이 하늘을 메우고, 추위와 굶주림이 도처에 깔린 것을 훌륭한 정치라고 하겠는가? (夫善爲治教者, 在使民樂其樂而利其利, 養其欲而給其求. 詩之言治曰 : "內無怨女", 豈有以幽怨彌天, 寒餓遍地爲至治哉 !)"-《大同書》(姜義華, 張榮華 編校, 위의 책, 73쪽).

58) "受恩之重大莫過於父母, 故酬報之重大當責之於人子矣. 《詩》曰 : "欲報之德, 昊天罔極", 孔子之重孝, 以爲報而已矣 ; 若不孝者, 其律可依欠債不還, 科而罪之."-《大同書》(姜義華, 張榮華 編校, 위의 책, 83쪽).

經》의 내용을 후대 사람들이 따라야할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두 가지 활용 양태는 托古의 방법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3.2 장병린의 시경론

3.2.1. 장병린의 《詩經》에 대한 인식

장병린은 《詩經》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여러 편의 글에 분산적으로 존재하는, 장병린이 《詩經》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보았을 때, 《詩經》에 대한 장병린의 인식은 '경전'[59]으로서의 《詩經》과 '문학'[60]으로서의 《詩經》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

59) 본 절에서 후술하겠지만, 장병린은 諸子書의 위상을 經의 층위로 격상시킨다. 즉, 그가 사용하는 '經'의 범주는, 유가의 중심서적을 지칭하는 '經'과는 다르다. 장병린이 활용한 '경', 즉 '경전'은 신성성이 탈각된, "사유의 원천"으로 파악될 수 있다. 경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장병린뿐만 아니라 유사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장병린과 유사배는 모두 '經'의 범주에 기존의 유가 경전과 諸子書를 포함시킨다. 유사배의 '경'에 대한 관점은 본 절의 3.2.3에서 상술한다. 이후 장병린과 유사배가 "사유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텍스트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경전"은 '경전'이라 표기함으로써, 기존의 경전과 구분한다.

60) 본고에서 장병린의 시경론에 대해서 언급함에 있어서, '文學'이라는 용어는 장병린의 '협의의 文'을 지칭한다. 장병린의 언어 구조물로서의 '文'에 대한 개념은, '광의의 文'과 '협의의 文'으로 나누어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문장은, 〈文學總略〉 " '文學'이라는 것은, 문자가 있고, 대나무 혹은 비단에 적힌 것을 '文'이라 칭한다; 그 법식에 대해 논하는 것은 '文學'이라 칭한다.(文學者, 以有文字著於竹帛, 故謂之文 ; 論其法式, 謂之文學.)"(章炳麟, 陳平原 導讀, 《國故論衡》, 49쪽) 이라 할 수 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언어구조물로서의 '文', 즉, '文學'은 그 자체로 '文'과 '文學'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文'에 대한 정의는 '광의의 文', '文學'에 대한 정의는 '협의의 文'으로 나누어 파악될 수 있다. 때문에 논자는 이에 대해서, "種概念인 문학도 文과 마찬가지로 그 개념이 이중으로 규정되고 있다. ...'文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의 法式을 논한 것'이라는 협의의 개념으로서의 규정과, ... '문자로 기록된 모든 것을 문학으로 여기는' 광의의 개념설정으로의 규정이다."라고 언급한다. (김월회, 〈장병린의 문학이론〉, 54쪽) 전통시기 '文'자가 지니는 의미는 다양하였다. 그것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 파악될 수 있다.'文'자는 단순히 언어구조물만을 지칭하지 않고, 사회제도를 지칭하는 의미 등으로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文'자의 정의 때문에, 중국의 지식인들은 언어구조물로서의 '文'과 사회제도 전반을 지칭하는 '文'을 결합하여, 독특한 '文'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였다. 때문에 근대전환기의 여러 지식인들은 '文'자의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 노력한다. 가령, 장병린, 유사배, 왕국유

장병린은 '경전'으로서의 《詩經》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경전'[61]에 독특한 관념을 지닌다. 그는 〈原經〉에서 '경전의 근원을 파헤치는 연구'를 진행한다. 그는 〈原經〉의 시작 부분에서 경전의 기능을 설정하고, 이후의 과정에서 '經'자의 범주에 초점이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경전의 독자를 "위정자"로, 그리고 그들이 경전을 '활용하여' 정치를 한다고 설정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옛날에 정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늘에 근원을 두었으니, 내려진 천명을 본받았다. 천명이 국가에 내려온 것을 "殽地"라고 일컫는다. 천명이 조묘에 내려온 것을 "仁義"라고 일컫는다. 천명이 산천에 내려온 것을 "興作"이라 일컫는다. 오사에 내려온 것을 "制度"라 일컫는다. 고로 하늘의 여러 가르침과 명령이 부호화 된 것을 "經"이라 일컫는다.[62]

이 부분에서 그는 '경전'의 기능을 고정한다. 그는 '경전'에 "하늘의 여러 가르침과 명령[教令]"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것이 정치 행동의 근간이 되는 텍스트로 기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그가 '경전'을 "사유의 원천"[63]으

등은 '文'에 대하여 서로 다른 정의를 내린다. 이들의 각기 다른 '文'에 대한 관념에 대해서는 류준필, 《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165-194쪽을 참조할 것.

61) 장병린의 경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유사배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장병린과 유사배는 모두 '經'의 범주에 기존의 유가 경전과 諸子書를 포함시키고, 그것이 "사유의 원천"으로 기능한다고 설정한다. 이후 장병린과 유사배가 "사유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텍스트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경전"은 '경전'이라 표기함으로써, 기존의 경전과 구분한다.

62) "古之爲政者必本於天, 殽以降命. 命降於社之謂殽地, 降於祖廟之謂仁義, 降於山川之謂興作, 降於五祀之謂制度. 故諸教令符號謂之經."-〈原經〉(章炳麟, 薑玢 編選, 《革故鼎新的哲理》, 325쪽).

63) "사유의 원천"이라는 표현은 김월회, 〈20세기초 中國의 文化民族主義 硏究〉에서 차용한 것이다. 논자는 20세기 초의 장병린과 유사배의 제자학 복권에 대해 이야기 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한대 이후 "독존유술, 파출백가"정책으로 公論의 영역에서 주변부로 밀린 諸子學은 淸代 考證學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일차적으로 부활한다. 그러나 제자학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성찰이 담긴 '철학적 텍스트'로서 부활된 것이 아니라 '小學用 텍스트'로서 복구된 것에 불과했다. 이와는 달리 현실문제의 근본 원인을 탐색하던 문화민족주의자들은 유학의 경직화를 그 주요원인의 하나로 지목하여 유학이 지니는 기존의 권위를 해체한다. 이로써 유학은 '獨尊'의 위치에서 제자학의 한 분야로 자리가 조정된다. 이는 역으로 제자학의 철학적 텍스트로서의 진정한 복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들은 복권된 제자학에서 서구의 학술사상에 견줄 수 있는 다양한 사유의 원천을 발굴해내고자 했다." (김월회, 〈20세기초 中國의 文化民族主義 硏究〉, 56쪽) 즉, 장병린에게 있어서, 경전은 諸子書

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병린은 〈原經〉에서 '경'의 범주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章學誠의 六經皆史說을 적극 활용한다. 그는 六經이 모두 역사서라는 장학성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經이 官撰이라는 장학성의 주장은 반박한다. 장병린은 이에 대한 논거로 "經史子集"의 분류체계가 관습에 의한 것임을 그리고 역대에 私撰한 텍스트들에도 역시 "經"자가 붙었음을 제시한다. 즉, 그는 정치를 행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서적들은, 官撰과 私撰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경전'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경전'에 대한 인식은 궁극적으로 諸子書를 경전의 반열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과 연결된다.

장병린은 '경'자의 범주를 다시 설정함으로써, 경전이 지니고 있던 신성성은 탈각시키고, 본연의 기능은 유지시킨다. 경전이 지니는 본연의 기능은 '사유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금문학자와 고문학자 사이에는 六經에 대한 의견 차이가 여러 층위에 걸쳐 존재한다. 그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공자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해서, 六經의 내용에 대한 인식, 六經을 구성하는 주석서의 진위여부 등의 문제에 걸쳐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六經에 근거하여 본인들의 사유를 전개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장병린이 다시 정의한 '경전'은 기존의 경전이 지니던 신성성은 탈각된 채, 그 기능은 유지되는 특이성을 지닌다. 이와 같은 장병린의 경전에 대한 사유는 《詩經》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장병린은 '문학'작품으로서의 《詩經》의 위상 인정한다. 그는 《詩經》을 四言體 문학의 기원으로 설정한다. 그는 《辨詩》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여러 四言의 음운을 가진 것들은 모두 《詩經》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는 그것이 해이해짐을 심히 걱정한다. '箴'이 하나의 문체가

와 더불어 사유의 원천으로 기능하는 텍스트로 인식된다. 이 표현은 텍스트의 기능에 근거한 표현이다. 즉, 이 표현이 텍스트의 '철학적 텍스트로서의 기능'을 표현한다. "철학적 텍스트로서의 기능"은 권위가 해체되기 전의 경전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던 기능이다. 따라서 이 용어가 권위가 해체된 경전 및 諸子書 뿐만 아니라 권위가 해체되기 전의 경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것을 차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된 후, 양웅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이 그것을 정비하였다. 이후에 그 말의 장단이 가지런하지 않게 되었다.[64]

장병린은 《詩經》이 특정 문체의 기원일 뿐만 아니라, 四言體 문학 작품 자체로서의 가치 역시 긍정한다.

《詩經》은 四言 문학의 극치였다. 漢代에 이르러, 위맹 이후로 그 담백함이 줄어들었다.[65]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장병린은 문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전통시기의 《詩經》에 대한 평가를 수용한다. 《詩經》을 문학의 기원이자, 전범으로 설정하는 사유는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다. 전통시기의 詩論에서는 《詩經》을 문학의 기원으로 설정하고, 詩라는 문학 장르가 지향해야하는 전범으로 설정하고 활용한다. 장병린 역시 《詩經》을 근거로 하여 이후의 문학을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詩經》을 문학의 전범으로 설정하는 장병린의 주장에서 그의 국수사상과 관련한 그의 사유도 엿볼 수 있다. 그는 《詩經》에 근거하여 확립된 문체가 도리어 정비된 이후 어지러워졌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사유는 양웅을 비롯한 몇몇 인물들 혹은 위맹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문화에 오염되지 않은 漢族 문화의 정수는 《詩經》을 비롯한 선진시기의 문헌에 존재한다는 국수사상으로 이어진다.

3.2.2. 장병린의 《詩經》 해석 방법

본고에서는 장병린이 주장한 국학의 맥락에서, 그가 주장하는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장병린은 국학을 파악함에 있어서, 경학을

64) "諸四言韻語者, 皆《詩》之流, 而今多患解弛. 箴之爲體, 備於楊雄諸家, 其語長短不齊."-《辨詩》(章炳麟, 陳平原 導讀, 앞의 책, 91쪽).
65) "三百篇者, 四言之至也, 在漢獨有韋孟, 已稍淡泊."-《辨詩》(章炳麟, 陳平原 導讀, 위의 책, 93쪽).

그것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로 파악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詩經》이라는 텍스트는 경학의 범주에 속한다. 즉,《詩經》은 국학의 범주에 속하는 텍스트이다.

그는 "국학"을 연구함에 있어서, 1) 서적 진위의 판별, 2) 소학의 정통, 3) 지리의 파악, 4) 고금 인정의 변천 파악, 5) 문학에의 응용 여부에 대한 분별 등을 그 방법론으로 언급한다.[66] 그는 국학의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때문에 개별의 방법론이《詩經》에 적용되는 여부는, 일일이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위의 다섯 가지 방법 혹은 주의 사항 가운데, 1) 서적 진위의 판별은《詩經》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는《經學略說》에서《詩經》과《書經》은 판본의 진위여부가 확실하다고 언급[67]한다.《詩經》의 경우, 그것이 구전되었기 때문에, 협서와 분서 같은 지식인 억압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68]한다. 즉, 그는《詩經》이라는 텍스트를 믿을만한 서적으로 인정한다.

2) 소학을 활용한《詩經》의 분석은 이전시기부터 존재해 왔던 방법론이다. 소학을 통한 경전의 해석은 淸代에 이미 보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69] 또한 이

---

66) "우선 "국학 개론"이란 강의를 대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국학의 본체. 1) 경사는 신화가 아니다. 2) 제자의 저술은 종교가 아니다. 3) 역사는 소설 전기가 아니다. 2. 국학의 학문 방법. 1) 서적 진위의 판별, 2) 소학의 정통, 3) 지리의 파악, 4) 고금 인정의 변천 파악, 5) 문학의 응용과 분별이 있다.(今天先把"國學概論"分做兩部研究 : 甲, 國學的本體. 一, 經史非神話. 二, 經典諸子非宗教. 三, 歷史非傳奇. 乙, 治國學的方法. 一, 辨書籍的眞僞. 二, 通小學. 三, 明地理. 四, 知古今人情的變遷 五, 辨文學應用.)"-《國學概論》(章炳麟, 董玢 編選, 위의 책, 348쪽).

67) "이는 공자 시대에 이미《禮記》와《樂記》의 글이 부분 소실되었고,《詩經》과《書經》의 글이 산정되고, 갖추어 졌다는 주장의 명확한 증거가 된다. (是孔子時《禮》,《樂》已闕, 惟《詩》,《書》被刪則俱有明證.)"-《經學略說》(章炳麟, 慶善 編, 앞의 책, 187쪽).

68) "秦代에는 책을 태웠다. 秦代의 분서 정책으로 인하여《尙書》에 가해진 위협이 제일 크다. 秦 조정의 의도를 헤아려보면, 그들이 어찌 六經을 모두 소멸시키기를 바라지 않았겠는가. 다만 방법이 없었을 뿐이다.《詩經》은 구송되어 전해지기 쉬웠었다.《禮記》는 당시에 이미 크게 읽히지 않아서, 분서의 주요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에 분서 정책은《詩經》과《書經》을 중시하였고, 그 정책은《禮記》에까지 미치지는 않았다. (秦焚書. 秦之焚書,《尙書》受厄最甚. 揆秦之意, 何嘗不欲全滅六經. 無如《詩》乃口誦, 易於流傳 ;《禮》在當時, 已不甚行, 不須嚴令焚之. 故禁令獨重《詩》,《書》, 而不及《禮》."-《經學略說》(章炳麟, 慶善 編, 위의 책, 203쪽).

69)《四庫全書》에서는 經史子集 가운에, 經部 小學類를 배정한다. 이는 소학을 통한 경전의 해석이 보편적이었음을 방증한다.-벤자민 엘먼,《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342-345쪽.

는 장병린의 대표적인 학술 방법론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소학을 활용한 《詩經》분석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고염무의 《音學五書》〈詩本音〉이 있다.[70] 고염무는 《音學五書》를 통해 當代와 古代의 字音을 비교한다.[71] 이현선은 《音學五書》〈詩本音〉에 대해 "《詩本音》은 《古音表》의 古韻 10부를 얻어내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 부분이다. 顧炎武는 《詩本音》에서 《詩經》305篇에서 압운 상황을 종합하고 그것을 기초로 《廣韻》206韻을 재구성하여 古韻 10部를 세웠다."[72]라고 풀이한다.

3) 지리의 파악은 《詩經》 연구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예를 들어, 明代의 王夫之는 《詩經稗疏》에서 이 방법론을 사용하여 《詩經》을 분석한다. 그는 지리를 파악함으로써, 《詩經》의 〈周南〉과 〈召南〉의 편명이 생긴 연원을 파악하였다.[73] 《詩經》의 〈周南〉과 〈召南〉은 역대로 논쟁이 많은 편명으로, 그것의 지리학적 위치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74]

---

70) 장병린은 직접적으로 《詩經》에 활용할 수 있는지 언급하지 않는다. 장병린이 주장하는 소학을 활용한 《詩經》의 분석은 장병린의 정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다. 우선, 본고의 2장에서 1절에서 《詩經》과 중심적으로 연관되는 考證學의 분야로 名物과 音韻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고염무의 《詩經》에 대한 연구 성취는 주로 《詩經》 체제론과 음운을 활용한 《詩經》의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염무의 《詩經》 연구에 대한 개괄적인 평가 및 정리는 김경천, 〈고염무의 《詩經》체제론〉, 234-235쪽 참조할 것.) 장병린이 고염무를 존경하여 자신의 이름(字)을 개명한 사실과 장병린이 소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 언어학 방면을 강조한 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장병린이 주장하는 소학을 활용한 《詩經》의 분석은 고염무의 음운을 활용한 《詩經》 분석과 연관 지어질 수 있다.

71) 이현선은 이 책의 전반적인 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顧炎武의 《音學五書》는 처음으로 고증알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古音 韻部를 수립한 淸代 古音學의 開山之作이다. 《音學五書》는 그의 음운학 이론 및 견해를 집약한 《音論》 3권, 《詩經》시 305편의 韻字에 일일이 《廣韻》의 운목을 단 《詩古音》 10권, 《易經》에 주음한 《易音》 3권, 풍부한 고증을 통해 각 字의 古音가 今音을 논한 《唐韻正》 20권, 古音을 종합하여 10部로 정리한 뒤 표로 나열한 《古音表》 2권으로 구성된다."-이현선. 〈《音學五書・詩本音》 연구〉, 345-346쪽.

72) 이현선, 〈《音學五書・詩本音》 연구〉, 408쪽.

73) 왕안석의 저서에 대한 내용은 洪湛侯, 《詩經學史》, 466쪽을 참고한다.

74) 〈周南〉과 〈召南〉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병찬은 "詩經學에서 논란이 많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二南 문제이다.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은 이남이 일반 제후국의 풍과 구별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느 특정지역을 가리킨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이다. ... 지명에 周南과 召南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周之南', '召之南'의 의미로 보기도 한다. 따라서 周와 召의 지역이 어느 곳인가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설이 존재하고 있는데 雍州岐山之南說과 周召分陝說이 그것이다." (이병찬, 《漢・中 詩經學 硏究》, 218쪽)라고 언급한다.

4) 고금 인정의 변천 파악 역시 《詩經》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人情의 정의에 따라 두 가지 풀이가 가능하다. 우선, 人情을 집단의 맥락에서 정의하면, 고대의 采詩 제도에 근거한 활용이 가능하다. 周代에는 采詩제도를 시행하여, 각 지방의 시를 모으고 살핌으로써 민정을 살폈다. 이는 당시에 시를 통해 사람들의 人情, 즉 民情을 살필 수 있다는 사유를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人情을 개인의 맥락에서 정의할 경우, 성리학자들은 "學詩觀"과 연관된 활용이 가능하다. 주희는 《詩經》을 활용하여, 자신의 性情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75]

마지막 방법론으로 5) 문학에의 응용 여부에 대한 분별이 있다. 이 역시 《詩經》에 적용될 수 있다. 본 절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장병린은 《詩經》이 四言體 문학의 효시이자 전범이라고 언급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그가 주장하는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은 전통시기의 연구 방법들을 총합하고 개념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가 언급하는 내용 자체에 새로운 방법론은 없다.

3.2.3. 장병린의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장병린의 국학에 대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장병린

75) 가령 주희는 《詩經》의 학습 목표 중 하나를 개인의 '性情'고찰이라 설정하며, 《詩集傳》 〈序〉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누군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이것을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주희가 말하였다. "二南에 근거하여, 그 단서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여러 나라의 風을 참고하여, 그 變詩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 雅에 근거하여 바르게 하고, 그 규모를 키워야 한다. 頌에 근거하여 화합하고, 그 그침을 구해야 한다. 이것이 시를 배우는 큰 요지이다. 이에 章句를 가지고 큰 벼리로 삼고, 訓詁를 가지고 작은 벼리로 삼아라. 읊음으로써 그것을 노래하고, 젖어 체득함으로써 그것을 체득하라. 그리고 性情의 은미한 사이를 관찰하고, 言行의 구기의 시작에서 살펴라. 그렇다면 곧 몸, 국가, 천하를 평안케 하는 도 등을 닦는 것이다. 그것들은 다른 데서 구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구해질 것이다." 이에 묻는 이가 긍정을 하며 돌아갔다. 나는 당시에 막 《詩傳》을 편집하고 있었다. 이에 이 말을 모두 차례로 엮어서, 이 편의 머리말로 삼는다.(曰 : 然則其學之也, 當奈何？曰 : 本之二南, 以求其端, 參之列國, 以盡其變, 正之於雅, 以大其規, 和之於頌, 以要其止. 此學詩之大旨也. 於是乎, 章句以綱之, 訓詁以紀之, 諷詠以昌之, 涵濡以體之, 察之情性隱微之間, 審之言行樞機之始, 則脩身及家, 平均天下之道, 曰 : 然則其學之也, 當奈何？其亦不待他求, 而得之於此矣. 問者唯唯而退. 餘時方輯詩傳. 因悉次是語, 以冠其篇云.)"(朱熹, 성백효 옮김, 《詩經集傳》, 23쪽. ※ 원문 번역은 필자. 이하 마찬가지임.)

은 國學이 西學과 동등한 위상을 지니는 정도로 회복하고자 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국학을 당장에 활용 가능한 사유의 원천으로 기능하도록 하고자 한다. 장병린의 국학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1) 장병린의 國學에 대한 연구는 그의 민족주의 사상과 연관되어 자주 언급된다.[76] 이러한 연구는 주로 《春秋》와 민족주의 사상과의 관계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2) 장병린은 당시의 중국 지식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서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77] 3) 장병린은 유가의 경전 및 諸子書를 당장의 활용 가능한 사유원천으로 설정한다.[78]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장병린은 "국학"을 "서학"과 비슷한 위상으로 설정하고, "국학"을 활용하여, "서학"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학의 위상을 서학의 그것과 동등하게 설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단계 중 하나는 중국 문화의 復古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곧 《詩經》은 문학의 전범이자, 문화현상의 전범으로 기능한다. 본 절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詩經》을 중국의 四言體 문학의 효시로 설정하고 활용한다. 여기에서 《詩經》은 후대의 문학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동시에 좇아야할 전범이 된다.

《詩經》이 당시의 사유원천으로 기능하고, 그로부터 추출된 사유가 실제 사회운동의 형식으로 발현된 예는, 20년대의 "가요운동"[79]이 있다. 장병린이 "가요운동"에 직접참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린사오양은 가요운동의 주축이 되던 '다섯 선

76) 장병린의 國學운동과 민족주의 사상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姜義華, 《章太炎思想研究》, 425-426쪽; 李潤蒼, 《論章太炎》, 105-106쪽; Young-tsu Wong, *Beyond Confucian China: the rival discourses of Kang Youwei and Zhang Binglin,* 131쪽 등을 참조할 것.

77) 장병린의 서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는 Young-tsu Wong, 앞의 책, 136-138쪽; 김월회, 앞의 논문, 67-68쪽 등을 참조할 것.

78) 장병린의 國粹에 대한 강조 및 전통시기 중국의 텍스트에 대한 태도는 姜義華, 앞의 책, 449-451쪽; 李潤蒼, 앞의 책, 105-106쪽; Young-tsu Wong, 앞의 책, 138-140쪽; 김월회, 앞의 논문, 51-57쪽 등을 참조할 것.

79) 192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각 지방의 가요를 모아 학술 자료로 활용한 운동이다. 모여진 자료들의 활용 방향은 인물마다 조금씩 다르다. 가요운동의 대표적인 잡지로는, 주간지 《가요》가 있다. 周作人(1885-1984)과 常惠(1894-1985)는 이 잡지의 발행에 중대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주작인은 가요를, '민속학적', '교육적', '문예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상혜는 학술과 문예의 맥락에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린사오양, 서광덕 옮김. 《수사라는 사상: 장병린과 한자권의 언어론적 비평이론》, 259-265쪽.

생'과 장병린 사이의 관계를 언급하며, 장병린이 실제로는 "가요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80] "가요운동"은 《詩經》의 采詩說과 깊은 연관이 있다. 비록 양자 간의 목적성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보이지만, 각 지방의 민요를 모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3.3 유사배의 시경론

3.3.1. 유사배의 《詩經》에 대한 인식

유사배는 '경학'과 문학의 맥락에서 《詩經》을 인식한다. 그는 《經學教科書》와 《中古文學史講義》에서 직접적으로 《詩經》을 언급한다. '경학'의 맥락에서, 《詩經》에 대한 그의 인식은 《詩經》의 저자, 내용, 역할 등에 대해서, 그리고 《詩經》의 판본인 四家詩에 대해서 맞추어져 있다. 그는 《經學教科書》에서 공자와 《詩經》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詩分四家說〉에서 《詩經》의 판본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힌다.

유사배는 孔子刪詩說을 인정한다. 그는 《經學教科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六經은 본래 선왕의 舊典이다. 다만, 공자가 따로 수정하고 편찬한 판본이 있을 뿐이다. 周代의 말엽에 제자백가들은 비록 《六經》을 연구하기는 했지만, 모두 판본을 정하지 않았다. 오직 공자가 《六經》을 수정하고 편찬한 판본만이 보인다.[81]

---

80) "가요운동 전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다섯 교수'의 리스트를 보자면, 유복 이외에 전현동, 심겸사, 심운묵, 주작인 4명은 모두 장병린이 일본에 망명했을 때 그의 소학 강의를 청강했던 어쨌거나 제자에 해당하는 이들이었다. 전기의 가요운동에서 이러한 참여자와 장병린 사이에는 시의 '음'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겹치고 있다. 하지만 양자는 모두 '국학'의식이 있었지만, 그 '국학'에 대한 이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가 있었다."-린사오양, 서광덕 옮김. 위의 책, 259-260쪽.

81) "《六經》本先王之舊典, 特孔子另有編訂之本耳. 周末諸子, 雖治《六經》, 然咸無定本. 致後世之儒, 只見孔子編訂之《六經》; 而周室《六經》之舊本, 咸失其傳."-〈尊崇六經之原因〉《經學教科書》(劉師培, 萬仕國 點校, 《儀徵劉申叔遺書》, 5982-5983쪽).

비록 공자가 刪詩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자만이 《詩經》을 "수정하고 편찬하였다[編訂]"고 풀이한다. 이는 유사배가 사마천의 공자 刪詩說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로 보는 편이 비교적 타당하다. 사마천의 공자 刪詩說은, 공자와 《詩經》의 관계를 연관 지어서 풀이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풀이이다. 이어서 그는 같은 글에서 상고시대의 《詩經》과 공자의 《詩經》을 구분하여 말한다. 상고시대의 《詩經》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가요와 속담의 흥기는 태고에 시작되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뜻으로 여기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시로 여긴다. 요임금과 순임금 이래로 모두 채시를 하는 관리가 있었다. 그것을 민간에서 채집하여, 천자에게 늘어놓았다. 천자는 이로써 민간의 風尙을 보았다. 이것을 《詩經》의 시작이라고 여긴다.[82]

이 부분에서 유사배는 공자가 刪詩하기 이전 《詩》의 특성에 대해서 풀이하고 있다. 이어서 공자가 刪詩한 《詩經》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문득 막히는 것과 같은 것에 이르자, 이에 노나라로 물러났다. 그리고《十翼》을 지어, 100편으로 하였다. 은나라와 주나라의 《詩經》을 刪定하여, 310편으로 정하였다. 이후 다시 노나라로 돌아와서 음악을 바르게 하고, 《詩經》의 가르침을 펼쳤다. 이로써 〈雅〉와 〈頌〉으로 하여금 지금의 위치를 얻도록 하였다.... 《詩經》은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국가의 교본이다.[83]

이러한 《詩經》에 대한 관점은, 《詩經》의 가치를 두 가지로 설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우선, 《詩經》은 상고시대의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다음으로, 《詩經》은 공자가 손을 거쳐 가요집이 되고, 교본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이 두 가지 가치는 각각 《詩經》을 사학과 '경학'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부분에

82) "謠諺之興, 始于太古, 在心爲志, 發言爲詩. 虞・夏以降, 咸有采詩之官, 採之民間, 陳于天子, 以觀民風, 是爲《詩經》之始."-〈古代之六經〉《經學敎科書》(劉師培, 萬仕國 點校, 위의 책, 5977쪽).

83) "刪殷, 周之《詩》, 定爲三百一十篇.復反魯正樂, 播以絃歌, 使《雅》, 《頌》各得其所.... 《詩經》者, 唱歌之課本也."-〈孔子定六經〉《經學敎科書》(劉師培, 萬仕國 點校, 위의 책, 5979쪽).

서 유사배는 공자 이전에도 《詩》가 있었다고 언급한다. 그리고 당시에 전해지던 《詩經》은 공자에 의해 刪詩된 것이라 주장한다. 그는 공자를 《詩經》의 전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설정한다. 그는 자신의의 주장이 오용될 소지를 차단한다. 특히 그는 《詩經》에 대한 자신의 풀이가, 강유위의 素王說을 방증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이는 《詩經》을 신성성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탈피시키고, 그것을 이성의 토대위에서 활용하고자 한 노력이라 평가된다.

유사배는 《詩經》의 판본인 四家詩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大義"[84]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는 四家詩의 〈序〉사이의 같음과 四家詩의 분류가 공자의 의도가 아님을 근거로 제시한다. 유사배는 《漢代古文學辨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리하여 내가 四家詩의 《序》들을 합하여 살펴보았다. 가령, 《韓詩序》에서는 〈常棣〉가 연나라 형제의 시라고 풀이하고, 〈伐木〉이 문왕이 옛것을 숭상하는 시라고 풀이하며, 〈賓之初筵〉이 위나라 무왕이 지난날을 후회하는 시라고 풀이하고, 〈抑〉이 위나라 무왕이 왕실에 간언함으로써 스스로를 경계삼은 시라고 풀이하며, 〈雲漢〉이 선왕이 어려움을 만난 시기에 대한 시라고 풀이하니, 이러한 풀이는 모두 《毛詩》에서의 풀이와 같다. 또한 《齊詩》에서는 〈伐檀〉이 현자가 뛰어난 군주를 만나지 못한 것임을 풍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魯詩》에서 〈載馳〉에 대해 풀이하며, 이 시를 허목부인의 저작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견해들은 《毛詩》의 견해와 부합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四家의 《詩》가 하나의 근원에서 나왔음을 증명하기에 족하다.[85]

---

84) 유사배는 四家詩 사이의 상동성을 주장함에 있어서, "大義"자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群經大義相通論》에서 《漢代古文學辨誣》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群經大義相通論》의 제목에서 "大義"자를 차용한다.

85) 然吾合四家之《序》 觀之, 若《韓詩序》以《常棣》爲燕兄弟之詩, 《伐木》爲文王敬故之詩, 《賓之初筵》爲衛武悔過之詩, 《抑》爲衛武刺王室以自戒之詩, 《雲漢》爲宣王遭難之詩, 均與《毛詩》相合. 《齊詩》說《伐檀》,爲刺賢者不遇明王, 《魯詩》述《載馳》以爲許穆夫人作, 與《毛詩》相符. 足證四家之《詩》, 同出一原也.-《漢代古文學辨誣》(劉師培, 萬仕國 點校, 위의 책, 4199쪽).

그는《詩經》이 4 개의 분파로 나누어 진 것은 공자의 의도가 아님을 지적하며,《漢代古文學辨誣》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또한《詩經》의 四家詩는 漢代 초기에 나왔다. 무릇 사가의 설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들이 서로 다르다고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공자가 刪詩한《詩經》은 여러 개의 시파로 나누어진 적이 없었다. 대저 공자가 편찬한《詩經》은 그저 경문만이 대나무와 비단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그가《詩經》에 대해 설명하고 풀이하는 말들은, 상당 부분이 구술 전수에 의지되었다. 이에 그 제자들이 들은 바가 서로 다른 것이다.[86]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유사배는 四家詩를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詩經》이 四家詩로 분리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본래 공자의《詩經》은 여러 파로 나누어질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수되는 과정에서 구술에 의지하였기에 부득이 나누어 졌다고 풀이한다. 四家詩의 大義가 서로 통한다는 그의 풀이는, 곧 四家詩를 함께 보아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사배는《詩經》을 문학의 맥락에서도 활용한다. 그는《中古文學史講義》에서《詩經》을 문학 작품의 기원으로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만일 諸家들 각각의 문학의 연원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 근본을 경전에까지 미루어보아야만 한다. ... 반고의 문장 역시《詩經》과《書經》,《春秋》에서 많이 나왔다. 그렇기에 한 구절도 농후하지 않은 구절이 없고, 한 편도 그 기세가 깊고 아름답지 않은 편이 없다.[87]

---

86) "又如詩分四家, 亦出于漢初. 夫四家之說, 自後世觀之, 似各不同, 然孔子之編詩, 未嘗分爲數派也, 大抵孔子編詩, 只著經文于竹帛, 而說詩釋詩之詞, 則多憑口授, 故弟子所聞各不同."-《漢代古文學辨誣》(劉師培, 萬仕國 點校, 위의 책, 4197-988쪽).

87) "欲擇各家文學之淵源, 仍須推本於經. ... 班固之文亦多出自《詩》,《書》,《春秋》, 故其文無 一句不濃厚, 其氣無一篇不淵懿."-劉師培, 程千帆 點校,《中國中古文學史講義》, 141쪽.

이 부분에서 유사배는 장병린과 마찬가지로,《詩經》을 문학의 기원이자 전범으로 설정하는 전통시기의 사유를 받아들인다. 다만, 그는 장병린과 달리《詩經》을 四言體 문학에만 연결하지 않고,《詩經》을 보다 넓은 의미의 문학에 연결한다. 그는《詩經》,《書經》,《春秋》를 나란히 놓고, 그것들이 모두 문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3.3.2. 유사배의《詩經》해석 방법

유사배가 주장하는《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字義와 글의 大義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져서 인식된다. 그는《詩經》을 해석함에 있어서 字義를 중요시한다. 그는《毛詩詞例擧要詳本》과《毛詩詞例擧要略本》[88]에서, 나름의 설명체계를 설정하고,《毛詩》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췌한다.

유사배는《毛詩詞例擧要詳本》과《毛詩詞例擧要略本》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체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편장을 구성한다.《毛詩詞例擧要詳本》의 편장은 (1)連類並稱例, (2)擧類爲釋例, (3)增字爲釋例, (4)傳備兩解例, (5)擧此見彼例, (6)因此及彼例, (7)似偶實喬例, (8)似奇實偶例, (9)據本義爲釋例, (10)前傳探百爲釋例, (11)後傳補上爲釋例, (12)後詞足成前訓例, (13)誥詞省擧經文例, (14)副詞不涉字義例, (15)訓詞不限首見例, (16)副詞而義實別例, (17)兩句似異實同例, (18)兩篇同文異義例, (19)兩篇異文同義例, (20)後章不與前章同義例, (21)訓詞以上增益謂字例, (22)訓詞以下增益之字例, (23)以正字釋經文葭字例, (24)釋詞先後不依經次例, (25)繞釋全句兼寓副詞例, (26) 緯釋一字僅擧辜例, (27)連擧一字僅釋辜例, (28)臥字聯詞分釋台釋例, (29)馴字聯詞同義僅釋享例, (30)一字同章同意僅釋辜例, (31)經文上下同字傳誥見下例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89]《毛詩詞例擧要略本》의 편장은 다음과 같다. (1) 倒文例, (2)錯序例, (3)省文例, (4)互詞見意例, (5) 互省例, (6) 反詞若正例, (7)上下文同義異例,

88)《毛詩詞例擧要詳本》의《毛詩詞例擧要略本》동일한 서적의 원본과 요약본의 관계가 아니다. 이 두 서적은 특정 주제에 대해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나, 그 체계 및 분량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洪湛侯 , 앞의 책, 466쪽). 두 서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할 것.

89)《毛詩詞例擧要詳本》의 목차는 劉師培, 萬仕國 點校, 앞의 책, 1055-1162쪽을 참조할 것.

(8)上下文異義同例, (9)虛詞同字異義例, (10) 虛詞異字同義例, (11)句法似同實異例, (12) 兩篇同文異義例, (13)後章不與前章同義例, (14) 兩句似異實同例, (15)連類竝稱例, (16)擧此見彼例, (17)因此及彼例, (18)二句連讀例, (19)文平義側例, (20)偶語錯文例, (21)實詞活用例, (22)動詞靜詞實用例, (23)單詞狀物等于重言例, (24)問詞例, (25)虛數例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90]

이러한 작업은 유사배가 《詩經》을 해석함에 있어서, 字義의 정확한 파악을 중시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위의 두 책을 구성하는 편목은, 유사배가 글자의 뜻을 파악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는 편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毛詩》의 注를, 그가 중시하는 설명체계를 중심으로 재배치한다. 이러한 방법론을은 두 가지 층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우선, 《詩經》을 해석함에 있어서, 《毛詩》의 注를 비교 및 평가 대상이 아닌, 활용대상으로만 설정하고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에도 있던 방법이다. 가령 《詩經學史》에서는 淸代의 陳奐의 《毛詩傳義類》을 유사배의 저서와 유사하다고 언급하고 있다.[91] 실제로 진환은 《毛詩傳義類》를 총 다섯 편, (1)釋故, (2)釋言, (3)釋訓, (4)釋親, (5)釋宮으로 구성하고 있다.[92] 그는 《毛詩》注의 내용을 주제에 근거하여 그것을 5가지로 분류하고, 재배치한다. 진환의 이러한 방법론은 유사배의 그것과 유사하다. 다음의 평가 대상은, 유사배가 편목을 나누기 위한 근거로 설정한 설명체계이다. 그는《毛詩詞例擧要詳本》과 《毛詩詞例擧要略本》에서 각각 서로 다른 31개, 25개의 설명체계를 설정한다. 그가 제시한 설명체계 單詞, 反詞, 虛詞, 問詞, 聯詞, 副詞, 倒文 등의 언어개념을 활용하여, 《毛詩》 注의 풀이를 체계화한다. 그가 활용한 언어개념, 즉 현대의 품사를 지칭하는 용어들은 이전시기부터 품사로 활용된 용례가 있다.[93] 그가 체계화 《毛詩》 注의 풀이방식을 체계화하며 사용한 용어는 이전의 용례를 찾아볼 수 없는 造語이다. 그러나 그 용어의 형태가 새롭다고 하여, 그것의 내용을 새롭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유사배가 제시하는 설명체계의 내용자체는 역

90) 《毛詩詞例擧要略本》의 목차는 劉師培, 萬仕國 點校, 위의 책, 1163-1177쪽을 참조할 것.
91) "歷來探討《毛侍》釋詞之義例者頗不乏人, 陳奐《毛詩傳義類》是淸代最有影響的一家 ..." (洪湛侯, 앞의 책, 789쪽)
92) 陳奐, 《毛詩傳義類》의 판본은 《四庫全書本》을 참고한다.
93) 이는 《基本古籍庫》를 검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대의《詩經》주석서에서 분산적이나마 존재한 내용이다. 때문에 그의 설명체계 자체가 새롭다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록 새로운 방법론 혹은 새로운 개념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유사배의 저서들은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그것들은 후대의 학자들이《詩經》의 字義를 연구함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참조체계를 제시할 가능성을 지니는 사실에 그 의의가 있다.

유사배는 大義가 통함을 근거로 하여,《詩經》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 諸子書를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우선 그는《群經大義相通論》에서《公羊傳》과《齊詩》를,《荀子》와《毛詩》를 연관 지어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94] 유사배는 같은 글에서, "公羊齊詩相通考", "左傳荀子相通考", "穀梁荀子相通考", "公羊荀子相適考" 등[95]의 제목의 장을 편성한다. 이를 종합하면, "《齊詩》-《公羊》-《荀子》", "《毛詩》-《荀子》-《穀梁》-《公羊》"의 흐름이 발생한다. 이러한 두 개의 흐름은 공양과 순자의 義가 서로 통함을 근거로,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질 수 있다. 즉, 유사배의 주장에 의하면, "《齊詩》-《公羊》-《荀子》-《穀梁》-《毛詩》"의 大義가 모두 통한다. 본 절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유사배는 四家詩들의 〈序〉에 기술되어있는 (大)義가 모두 통함을 근거로, 그것들을 함께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四家詩와 群經에 대한 유사배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그는《荀子》,《公羊》,《穀梁》등의 텍스트를 활용하여《詩經》을 해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유사배의 주장은 경전을 연구하는 유사배의 태도를 잘 드러낸다. 그는 경전을 연구함을 넘어서, 학술 자체에서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96] 유사배는《春秋左傳》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삼는 揚州學派의 후손이다.[97] 이는

94) 그는《群經大義相通論》에서 "公羊齊詩相通考", "毛詩荀子相通考"라는 제목의 장을 편성한다. 이 장들에서 그는 각각의 글들의 義가 서로 통함을 증명한다.

95) 이 외에도 "周官左氏相通考". "周易周禮相適考"의 장이 더 있다. 이들은《詩經》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본문에 기입하지 않는다.

96) 이는 사가 다카시의 주장과 부합한다. 그는 유사배의 학술 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그가 고문학의 정통성을 강조하였지만, 결코 이외의 학문을 배척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오히려 학술에 대한 그의 자세는 뒤에 살펴보는 것처럼 각각의 뛰어난 점을 취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자세는 중국전통사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널리 외국의 학술 사상에도 적용되었으며, 결국에는 그의 혁명사상의 구축에도 용이하였다." (사가 다카시, 이원석 역,《유사배평전》, 33쪽)

유사배의 家學은 고문학파의 계열에 속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러 경전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유사배의 방법론은 금문학자들의 그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실제로 大義를 治經의 중심 요소로 설정한 점, 《春秋》의 《公羊》과 《穀梁》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관점은 타당해 보인다. 이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유사배는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설정함에 있어, 家學에 얽매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에 여러 경전을 통합하여 보아야 한다는 유사배의 주장과 그 논거 방식에서, 그의 또 다른 학술적 태도상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경전"의 범주를 이전 시기에 비해 확장시키려고 하다. 《荀子》라는 텍스트는 '경전'이라는 개념의 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唐代 이후 유가 경전으로서 《荀子》의 위상은 점차 하락한다.[98] 이후 《荀子》는 淸代 고증학의 부활과 더불어 재조명된다. 그러나 재조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荀子》를 경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는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배는 《群經大義相通論》에서, "여러 경전[群經]"의 범주에 《荀子》를 포함시킨다. 이러한 유사배의 주장은, 장태염이 "經"자를 재정의함으로써, 그것의 범주에 諸子書를 포함시키려던 시도와 그 목적을 같이 한다. 그들은 모두 '사유의 원천'인 '경'의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당장의 개혁을 위해 활용 가능한 자원의 범주를 넓히는 동시에 전통학술 유산을 보존할 명분을 세우고자 한다.

---

97) 양주학파의 학술적 특징과 그 전수과정에 대해서는 사가 다카시, 이원석 역, 위의 책, 29-30쪽을 참조할 것.

98) 이는 唐代 韓愈가 주장한 道統論과 宋代에 정의된 十三經의 범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유는 〈原道〉 道統論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이 내가 도라 부르는 바로서, 도교나 불교의 도가 아니다. 요임금은 이를 순임금에게, 순임금은 이를 우임금에게, 우임금은 이를 탕왕에게, 탕왕은 이를 문왕, 무와, 주공에게 전했다. 문왕, 무왕, 주공은 이를 공자에게 전했으며, 공자는 이를 맹자에게 전했다. 그러나 맹자가 죽자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다.(斯吾所謂道也, 非向所謂老與佛之道也. 堯以是傳之舜, 舜以是傳之禹, 禹以是傳之湯, 湯以是傳之文, 武, 周公, 文, 武, 周公傳之孔子, 孔子傳之孟軻, 軻之死, 不得其傳焉.)"(吳楚材, 吳調侯 編, 謝冰瑩 注譯, 《古文觀止》, 538쪽) 한유는 요임금으로부터 시작된 道가 공자로 전해졌고, 이후에 맹자에게로 전해져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맹자 이후에 그것을 제대로 전수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 宋代의 학자들은 十三經의 범주에 맹자를 포함시키지만 순자는 제외시킨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唐代 이후 순자는 점차 유가 경전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난다.

3.3.3. 유사배의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유사배는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詩經》이 경학에 속하는 텍스트임에 근거하여, 경학전반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토대로, 그의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유사배는 금문과 고문의 차이는 인정하지만, 그 구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는 금문과 고문이 나누어진 이유가, 학문을 사익과 관직을 추구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그는 〈漢代古文學辨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요약해서 말하도록 하겠다. 금문의 학문은 속된 유생들의 학문이고, 이록만을 구하는 학문이다. 학문을 하나의 경으로 회통하게 한 것 외에는, 장점이 없다. 생각건대, 금문 학자들이 고문경학이 기치를 뺏을 수 있고, 무고하게 죄를 씌울 수 있던 것은, 고문학의 잘못을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그 뜻을 미루어 살펴보니, 개인의 이록을 지키고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에 서한 초반에는, 박사가 세워지지 않아서 금문과 고문이 나란히 행해져도, 서로 충돌함이 없었다. 금문학이 박사로 세워지게 되자, 나날이 고문학과 원수가 되었다.[99]

이 부분에서 그는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근거하여, 금문학자들을 비난한다. 또한 그는 정주학을 따르는 청나라의 名臣들을 비난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학문을 행하였음을 근거로 삼는다. 그는 〈淸儒得失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義理의 학문은 도덕을 팔아서 이름을 사니, 비천한 자는 이록의 길로 삼고, 고상한 자는 이권의 미끼로 이용한다. 겉으로는 시정을 바로 잡고 풍속을 교

99) "要而論之, 今文之學, 俗師之學也,, 利祿之學也. 舍通一經而外, 別無他長. 慮古學之可以奪已幟也, 則深文周內, 以折古學之非. 推其義旨, 無非欲保一已之利祿耳. 故西漢初年, 博士未立 今文, 古文, 竝行不悖. 及今文旣立博士, 則日與古文爲仇."-〈漢代古文學辨誣〉(劉師培, 萬仕國 點校, 앞의 책, 4229쪽).

> 화한다고 말만 한다. 그러나 실제와 명분이 부합하지 않으니, 반성하여 스스로 생각해봐도 아연실소할 뿐이다. 이것은 겸애의 이름을 빌어서 개인의 실익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배운 바를 보면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재덕이 충만하지 않았다.[100]

그는 학문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며, 공적인 이익을 추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학문의 왜곡과 부패의 원인으로, 학자들이 학문을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의 전통시기에서 "私"는 "公-私"의 대립구도에서 읽힐 수 있다. 즉, 유사배는 경학을 활용하여, 공적인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경학에 속하는 텍스트인 《詩經》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

3.4 양계초의 시경론

3.4.1. 양계초의 《詩經》에 대한 인식

양계초의 《詩經》에 대한 인식은 《詩經》과 공자와의 관계 그리고 《詩經》의 六義의 분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선, 양계초는 《詩經》의 孔子刪詩說을 부정한다. 그는 비록 공자가 《詩經》을 편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공자가 《詩經》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전의 시는 모두가 음악에 맞추어질 수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혹자는 그것을 음악에 맞추려고 하며, 악보를 어지럽게 하였다. 공자는 음악을 가장 즐기고, 음악을 가장 통달한 분이었다. 때문에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후에 음악의 이치[樂理]를 노나라의 악관에게 가르쳐

100) "義理之學, 借道德以沽名, 卑者視爲利祿之途, 高者用爲利權之餌, 外逞匡時化俗之談, 然實不副名, 反躬自思亦必啞然失笑. 惟包世臣稍近有用. 是則托兼愛名而博爲我之實益, 故考其所學亦彪外而不繃中."-〈淸儒得失論〉(劉師培, 萬仕國 點校, 위의 책, 4652쪽).

주었다. 또한 3백 편의 악보를 정리하여 없어진 것을 보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이 바로 잡히고, 〈雅〉와 〈頌〉이 제자리를 찾았다."[101]라고 말한 것이다. 또 "현악에 맞추어 노래하여 소와 무의 음조에 맞게 하였다."[102]고 한 것이다. 즉, '제자리를 얻는다' 혹은 '제자리를 잃는다' 라고 하는 것은 현악에 맞추거나 가창하거나 무용에 맞추거나 해보아야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다. 이에 공자가 음악을 바로잡는 '正樂'은 바로 시구를 바로 잡는 '正詩'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음악은 경이 없으니, 시로 경으로 삼아 《詩經》이 된다. "공자가 雅言을 쓰는 것은 《詩經》과 《書經》을 읽을 때와 예를 집행하는 때였다."[103]고 한다. 음악은 《詩經》 안에 있으니, 시와 음악은 떨어질 수 없다. 시와 음악의 합일은 아마도 공자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된다.[104]

양계초는 詩와 음악의 관계 그리고 《史記》와 《論語》의 몇몇 구절을 근거로, 공자와 《詩經》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다. 양계초는 공자가 《詩經》의 모든 시를 음악으로 연주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105] 그는 음악과 《詩經》을 그리고 《詩經》과 공자를 연결시킴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도모한다. 우선, 음악성에 근거하여 《詩經》

---

101) 《論語》〈子罕〉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공자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뒤, 음악을 바로 잡은 연후에, 雅와 頌이 각각 그 자리를 얻게 되었다. (子曰, 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程樹德 撰, 程俊英 點校, 《論語集釋》, 606쪽.

102) 《史記》〈孔子世家〉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시 305편을, 공자는 모두 이를 직접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韶・武・雅・頌의 음에 합치하도록 하였고, 예악은 이로부터 얻어지고 표현될 수 있었다. (三百五篇, 孔子皆弦歌之, 以求合 韶, 武, 雅, 頌之音, 禮樂自此可得而述.)"(司馬遷 撰; 裴駰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 《史記》, 1936-1937쪽) 이 구절은 孔子刪詩說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103) 《論語》〈述而〉의 구절이다.

104) "竊意前此之詩不皆能入樂, 或入樂而淪紊其譜. 孔子最嗜音樂, 最通音樂, 故反魯之後, 以樂理詔魯太師, 又取三百篇之譜闕者補之, 舛者訂之, 故云樂正而《雅》《頌》得所, 故云弦歌以求合韶, 武. 是故《雅》《頌》之文猶昔也. 失所得所, 則弦之歌之舞之而始見. 孔子正樂卽正《詩》也. 故故《樂》無經無經, 以《詩》爲經. "雅言詩書執禮"而無樂, 樂在《詩》中, 不可分也. 詩樂合體, 其或自孔子始也.)"-《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앞의 책, 4652쪽).

105) "그렇다면 공자는 《詩經》에 대하여 아무런 공로도 없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큰 공로가 있었다고 해야 한다. 《論語》에 공자가 한 말로 "내가 위로부터 노로 돌아온 후에 비로소 음악이 바르게 되고 〈雅〉와 〈頌〉이 각각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라고 한 구절이 있다. (然則孔子之於《詩經》未嘗有所致力耶? 曰 : 有之. 《論語》述孔子言曰 : "吾自衛反魯, 然後樂正, 《雅》《頌》各得其所.")"-《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위의 책, 4652쪽).

을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공자의 권위를 활용할 계기를 마련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전통시기에도 《詩經》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존재했다. 그것은 이전시기부터 "詩全入樂"과 "詩有入樂不入樂"라는 용어로 표현되며로 논쟁의 대상이었다.[106] 그는 《詩經》의 모든 시가 음악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전제하여, 다음의 논의를 발전시킨다.

그는 《中國之美文及其歷史》에서 風・雅・頌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그는 우선 《詩經》, 樂府, 歌謠 등을 "미문"의 범주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107] 이 글에서 그는 《詩經》에 내재되어 있는 음악성의 한 요소인 박자[節奏]에 근거하여 그것을 "美文"의 범주에 포함시킨다. 그는 《詩經》을 風・雅・頌으로 나누는 기존의 견해에 반대한다. 그는 《詩經》을 風・雅・頌・南으로 나누어 인식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구분의 기준으로 음악성의 한 요소인 박자[節奏]로 설정한다.[108] 《詩經》을 4가지 詩體로 보는 양계초의 관점은 이전에도 존재하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詩分四類說"이라 명명 되며, "北宋 蘇轍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되고 程大昌이 극렬하게 주장"[109]하였다.

3.4.2. 양계초의 《詩經》 해석 방법

양계초는 《詩經》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文意와 詩意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

---

106) "詩全入樂"과 "詩有入樂不入樂"의 갈등 양상에 대해서는 洪湛侯 , 앞의 책, 62-65쪽 참고.

107) "본 권에서 서술하는 바는, 漢 악부시를 그 중추로 삼아, 위로는 고대의 가요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기원을 살피고, 아래로는 南北朝의 短調와 雜曲에까지 넓혀서 그 굴곡과 변천을 살핀다. 위진 시기 이후에 악부조의 사용하여 그 표제를 지은 여러 작품이 있다. 그들은 곧 그 각각의 시대의 詩에 속하게 되니, 여기에서 다시 논하지는 않는다. (本卷所敍錄, 以漢樂府爲中堅, 上溯古歌謠以窮其源. 下附南北朝短調雜曲以竟其委. 魏晉後用樂府調名標題諸作, 則各以歸諸其時代之詩, 不復在此論列.)"-《中國之美文及其歷史》(梁啓超, 陳引馳 編, 《梁啓超學術論著集》, 5쪽).

108) "나는 南・雅・頌・風이 《詩經》의 4가지 詩體라고 여긴다. 이 4가지 시체의 같고 다름이 있다. 이는 '리듬'을 사용해야 비로소 구분된다. (我以爲南・雅・頌・風 是四種詩體. 四體的異同, 是從音樂節奏上才分得出來.)"-《中國之美文及其歷史》(梁啓超, 陳引馳 編, 위의 책, 86쪽).

109) 김경천, 〈고염무의 《詩經》 체제론〉, 235쪽.

전 시기의 주석서를 참고할 것을 주장한다. 우선, 그는《詩經》을 文意와 詩意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이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나는《詩經》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훈고, 명물에 관한 것이다. 淸代 유가의 箋釋이 80-90%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것을 참조하여 옳은 것을 살리면서 새로운 주석서를 만들면, 독자가 文意를 이해하는 데 막히는 데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詩意에 관한 것이다.《左傳》에 보이는 당시 사대부의 '賦詩斷章'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음으로《論語》·《孟子》·《禮記》 및 周代와 秦代의 諸子들이《詩經》의 義를 취하여 인용한 것, 그 아래로《韓詩外傳》·《新序》·《說苑》 및 두 개의《漢書》의 각 전에 존재하는 시를 인용한 말에 이르기까지, 널리 그 설을 채집하여《詩經》 시에 맞추어 분류하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인의 '以意逆志'와 '古往知來' 등의 방법론을 살펴서, 시학을 인생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110]

여기에서 언급되는 "文意"는 '문면상의 의미'로, "詩意"는 '詩句가 내포하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문면상의 의미는 글자의 풀이뿐만 아니라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까지 포함한다. 때문에 그것은 훈고와 명물의 방법론의 대상이 된다. 이를 근거로 보았을 때, 文意에 대한 이해는 詩句가 지칭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함을 가리킨다. 그는《詩經》의 文意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淸代 고증학의 성취를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는 이전 시기의 연구 결과들의 수가 상당히 많음을 지적하며, 그것을 선별적으로[111] 활용할 것을 주장하며 구체적인

110) "吾關於整理《詩經》之意見有二. 其一, 訓詁名物之部, 淸儒箋釋, 已十得八九, 匯觀參訂, 擇善以從, 泐成一極簡明之新註, 則讀者於文義可以無閡. 其二, 詩旨之部, 從《左傳》所記當時士大夫之"賦詩斷章"起, 次《論語》《孟子》《禮記》及周秦諸子引《詩》所取義, 下至《韓詩外傳》《新序》《說苑》及《兩漢書》各傳中之引《詩》語止, 博采其說分系本詩之下, 以考見古人"以意逆誌", "告往知來"之法, 俾詩學可以適用於人生. 玆事爲之並不難,"-《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앞의 책, 4658쪽)

111) "《詩經》은 六經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여 漢對 이래로 전습이 매우 성하고 해설자도 무려 천백 가를 헤아리며 현존하는 전주·해석 등 유서만도 천백 종에 이르러 대강을 읽는다고 하여도 머리가 세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학자에게 다음과 같이 권한다. 조금만 읽는 것이 좋다. 만약 꼭 참고하겠다고 하면 아래의 책들을 참고하라. ... (《詩》居六藝之首, 自漢以來, 傳習極盛, 解說者無慮千百家. 卽今現存之箋釋等類書亦無慮千百種,

예시를 제시한다.[112] "詩意", 즉 '詩句가 내포하는 의미'를 파악은 개인의 인생관에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양계초는 《詩經》의 詩意를 파악하기 위해 '詩에 드러난 뜻을 가지고, 저자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以意逆志][113]'과 '옛것을 가지고 미래를 예

略讀之已使人頭白, 故吾勸學者以少讀爲妙. 若必欲參考, 則姑擧以下各書. ...)"-《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위의 책, 4658쪽).

112) "西漢의 금문경학가가 《詩經》을 해설하는 책으로는 《魯詩》, 《齊詩》, 《韓詩》 三家가 있었다. 그러나 그 전해지는 바가 없고, 《韓詩》의 서자인 《韓詩外傳》만이 있다. 劉向의 《新序》와 《說苑》에는 《詩經》을 풀이한 말이 많다. 劉向은 《魯詩》를 공부한 사람이다. 西漢의 詩說의 대강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위의 세 책을 읽으면 좋다. 淸代 陳喬樅 《三家詩遺說考》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삼가설의 대강을 수집 채록한 것으로, 참고할 만하다. 현행의 《十三經註疏》의 《詩經》은 《毛傳》, 《鄭康成箋》, 《孔穎達疏》로 구성되어 있으니, 고문가의 책이다. 《毛傳》의 〈詩序〉를 전혀 믿을 수 없음은 내가 이미 극언하였다. 다만, 《毛傳》은 훈고에서는 자못 간결하여 읽을 만하다. 鄭玄의 箋注는 10분의 9는 《毛傳》을 부언하고, 때로는 잘못을 가리기도 하고, 천착하여 부회한 것도 많으니 분별해서 보아야 한다. 孔穎達의 疏는 널리 통달한데다가 독단이 적다. 淸代 유가의 새로운 疏에는 陳奐의 《詩毛氏傳疏》가 가장 정심하여 오직 《毛傳》를 추종하니, 鄭玄조차 그에 따르지 못한다. 그 다음은 馬瑞辰 《毛詩傳箋通釋》, 胡承珙 《毛詩後箋》 또한 좋은 책이다. 王引之의 《經義述聞》, 《經傳釋詞》 가운데 《毛詩》에 관한 대목들은 모두 매우 좋다. 배우는 사람이 이 종류의 책을 읽을 때에는 훈고와 사물의 명칭 따위에 관한 것은 참고로 할 것이나, 禮制에 관한 것은 신중히 가려서 보아야 한다. 文意나 詩意에 관한 것은 절대로 그들의 영향하에 받아서는 안 된다. 宋代 유가 주석서로는 朱熹의 《詩經集傳》이 자못 정결하게 정리되어 《毛傳》, 《鄭箋》의 굴레를 벗어나서 순수하게 詩意를 감상하게 해주어 배울 점이 있다. 그러나 역시 독단적 해석이 많고, 훈고와 명물에 있어서는 淸代 유가들의 정심한 연구에 멀리 미치지 못한다. 《詩經》의 뜻을 통론한 책으로서는 淸代 魏源의 《詩古微》, 崔述의 《讀風偶識》가 대단히 깊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으니 읽을 만하다. 姚際恒의 《九經通論》의 《詩經》 부분은 매우 훌륭하지만, 아직 읽지는 못하였다.(西漢今文詩說有魯, 齊, 韓三家, 其傳皆亡, 僅余一《韓詩外傳》爲韓詩之別子. 劉向之《新序》及《說苑》, 說《詩》語極多. 向固治魯詩也, 欲知西漢詩說之大槪, 此三書宜讀. 淸陳喬樅有《三家詩遺說考》, 搜采三家說略備, 可參考. 現行《十三經註疏》本《詩經》, 爲毛傳, 鄭康成箋, 孔穎達疏, 所謂古文家言也. 毛序之萬不可信, 吾已極言之. 惟毛傳於訓詁頗簡絜, 可讀也. 鄭箋什九申毛, 時亦糾之, 穿鑿附會者不少, 宜分別觀. 孔疏頗博洽而斷制少. 淸儒新疏, 有陳奐《詩毛氏傳疏》最精審, 專宗毛, 雖鄭亦不苟同也. 次則馬瑞辰《毛詩傳箋通釋》, 胡承珙《毛詩後箋》亦好. 而王引之《經義述聞》《經傳釋詞》中關於毛詩各條皆極好. 學者讀此類書, 宜專取其關於訓詁名物方面觀之, 其關於禮制者已當愼擇, 關於說《詩》意者切勿爲其所囿. 宋儒註釋書, 朱熹《詩經集傳》頗絜淨, 其敎人脫離傳箋直玩詩旨, 頗可學, 但亦多武斷處. 其對於訓詁名物, 遠不逮淸儒之精審. 通論《詩》旨之書, 淸魏源《詩古微》, 崔述《讀風偶識》, 極有理解, 可讀. 姚際恒《九經通論》中《詩經》之部當甚好, 但我尙未見其書.)"-《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위의 책, 4658쪽).

113) 맹자가 주장한 讀詩法이다. 《孟子》〈萬章〉에는 "시를 말하는 사람은 문장 때문에 문체를 해치지 않고, 문체 때문에 뜻을 해치지 않는다. 문체와 문체에 드러나는 뜻(意)을 근거로 시인의 생각(志)을 탐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터득했다는 것이다. (說詩者不以文害辭,

측하는 방법[古往知來]'[114]을 활용하여, 《論語》·《孟子》·《禮記》와 諸子書 등에 기록되어 있는 시들을 파악하라고 언급한다.

양계초가 주장하는 《詩經》의 文意와 詩意를 파악하는 방법론은 전통 詩經學의 방법론을 계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는 《詩經》의 文意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전 시기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詩經》의 詩意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주장하는 내용에는 강유위의 영향이 남아있다. 양계초는 《詩經》이 공자뿐만 아니라 諸子에 의해 인용 및 활용되었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그의 관점은 강유위의 《詩經》이 공자와 여러 지식인들에 의해 '托古'의 대상으로 활용되었다고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양계초가 《論語》, 《孟子》 및 諸子書를 동일한 층위에 놓았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차이가 도드라진다. 그는 이들 사이에 위계를 형성하지 않고, 모두를 《論語》와 《孟子》로부터 讀詩法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양계초의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론은 이전시기의 학문적 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3. 양계초의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양계초는 《詩經》을 文學과 史學의 영역에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우선, 양계초는 《詩經》을 문학 작품[115]과 절대적 신뢰성을 지니는 사료[116]로 설정한다.

不以辭害志, 以意逆志, 是爲得之.)"(孟子, 焦循 點校, 위의 책, 637쪽)라는 구절이 있다. 맹자는 이 구절에서 "以意逆志"의 방법을 주장한다.

114) 《論語》에서 파생된 讀詩法이다. 《論語》〈學而〉에는 "자공이 말하였다. "가난하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하면서도 교만하지 않다면, 어떻습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적당하다. 그러나 가난하면서도 즐기고, 부유하면서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자공이 말하였다. "《詩經》에서는 '깎아 다듬은 듯하고, 조각하여 갈아낸 듯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방금 하신 말씀을 이르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자공아. 이제는 너와 더불어 《詩經》을 논할 수 있겠구나. 옛 것을 알려주니 미래에 대해서 아는구나."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程樹德 撰, 程俊英 點校, 위의 책, 54-58쪽)라는 구절이 있다.

115) "《詩》 3백 편은 중국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다.(《詩三百篇》, 爲我國最古而最優美之文學作品.)"-《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위의 책, 4655쪽).

양계초는 문학작품을 통해 “情感”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中國韻文里頭所表現情感》[117] 운문에서의 “정감”은 크게 7가지 방법으로 표출된다. 그것은 “奔進的表情法”, “回蕩的表情法”, “新同化之西北民族的表情法”, “蘊籍的表情法”, “象徵派的表情法”, “浪漫派的表情法”, “寫實派的表情法”이다.[118] 이 가운데 양계초가, 직접적으로《詩經》의 구절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이 외의 정감이 표출되는 방식은,《詩經》이후의 것이다. 그것들은《詩經》의 표현법을 기반으로 하여 발달한 것 혹은 서구의 개념이나《詩經》및 초사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奔進的表情法”에 대해서《詩經・小雅》의〈蓼莪〉,《詩經・小雅》의〈黃鳥〉를 예시로 사용한다. “回蕩的表情法”에 대해서《詩經・國風》〈鴟鴞〉,《詩經・小雅》의〈小弁〉을,《詩經・國風》의〈黍離〉《詩經・國風》의〈鴇羽〉,《詩經・國風》의〈柏舟〉예시로 사용한다. “蘊籍的表情法”에 대해서《詩經・國風》의〈雄雉〉,《詩經・小雅》의〈采薇〉,《詩經・國風》의〈君子于役〉,《詩經・國風》의〈陟岵〉,《詩經・國風》의〈東山〉,《詩經・國風》의〈七月〉을 사용한다.[119] 그는 정감을 표현하는 방식의 예시를《詩經》에서 찾음으로서, 문학 작품에서 정감을 느껴야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詩經》〈國風〉과〈小雅〉만을 활용하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음악을 기준으로《詩經》의 4가지 시체를 나누려는 그의 시도를 약하게 할 수 있다.

양계초는 문학을 통해 느끼는 정감을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한다. 그는 공자를 규범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한다.

---

116) “현존하는 선진시대의 고서로서 진위가 뒤섞여 있는 문제가 없는 책으로, 그 안의 한 자, 한 구를 모두 정금미옥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詩經》을 첫손에 꼽아야 한다. 그러므로《詩經》은 문학적 가치 이외에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고대의 사료’ 혹은 ‘사료의 척도’라 할 수 있다.(現存先秦古籍, 眞贋雜糅, 幾乎無一書無問題. 其精金美玉, 字字可信可寶者,《詩經》其首也. 故其書于文學價値外尙有一重要價値焉, 曰可以爲古代史料或史料尺度.)”-《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위의 책, 4657쪽).

117)《中國韻文里頭所表現情感》은 운문에 표현된 정감을 주제로 한 글이다. 이 글의 주제가, 운문이라는 특정 장르에 국한되어 있기에, 이 책에 근거한 논의가 일반론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118) 정감이 표현되는 방법은 양계초의 저서《中國韻文里頭所表現情感》의 목차에 근거한다. 이 글의 목차에는 이 일곱 가지 이외에도, “導言”, “附論女性文學與女性情感”, “文學里頭所顯的人生觀”, “情感所用文體的比較” 등이 있다.

119) 梁啓超, 陳引馳 編, 앞의 책, 169-234쪽.

《詩經》을 연구 감상하려는 사람은 무엇보다 《詩經》 전체를 문학작품으로서 읽어야 한다. 오직 그 감정표현에 주안점을 두고 감상한다면, 《詩經》의 진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란 마음을 떨쳐 일으키게 한다. 사물을 깊이 관찰하게 한다.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내게 하며, 세상에 대한 원망스러움도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게 한다." 공자는 문학과 인생의 관계에서 가장 참되고 절실한 것을 체득하였다. 때문에 그는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전에 《詩經》을 교육의 주요한 도구로 삼았다. 그 목적은 일반사람들이 미적 감정을 길러서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면 인격이 저절로 향상되어 높고 밝은 것이 된다는 것이다. 명시는 다만 소리 내어 읊조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에 젖는다. 그것으로 얻는 바가 큰 것인데, 하물며 공자는 3백 편을 온통 현악에 맞추어 노래하였다. 이는 문학과 음악을 합일하여, 사회 교육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그 큰 감화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공자가 일찍이 무성에 가서 현금과 노랫소리를 들었을 때의 일로 자유가 공자에게 대답한 말로서 "선생님께서는 전에, 군자가 도를 배우면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다스리기 쉬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한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시로 교화하는 것이요. 미적 감정이 사회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우리가 《詩經》을 배움은 공자가 배운 바를 배우는 것이다.[120]

양계초는 결국 문학작품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를 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학 작품을 통한 개개인의 인격 수양은, 결국에 教化와 같은 효과를 자아낸다. 이는 전통시기 지식인의 문학관과 유사하다. 양계초는 《詩經》이라는 텍스트의 독자를 지식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로 규정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일반 사람은 근대적 개념의 시민이 아닌, 전통적 개념의 백성에 가깝다. 즉, 이들은 교화의 대상으로, 이들의 교화는 궁극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됨을 목표로 한다.

---

120) 故治《詩》者宜以全《詩》作文學品讀, 專從其抒寫情感處註意而賞玩之, 則《詩》之眞價値乃見也. "孔子曰 : "詩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孔子於文學與人生之關系看出最眞切, 故能有此言. 古者以詩爲教育主要之工具, 其目的在使一般人養成美感, 有玩賞文學的能力, 則人格不期而自進於高明. 夫名詩僅諷誦涵泳焉, 所得已多矣, 況孔子擧三百篇皆弦而歌之, 合文學, 音樂爲一, 以樹社會教育之基礎, 其感化力之大云胡可量!子之武城, 聞弦歌之聲, 子遊對以"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 謂以詩教也, 謂美感之能使社會向上也. 吾儕學《詩》, 亦學孔子之所學而已."-《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앞의 책, 4656쪽).

양계초는 《詩經》을 사료를 "감별"[121]하는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는 《詩經》을 기타 경전과 분류하여 인식한다. 《詩經》은 "순수한 사료"이다.[122] 그는 이러한 주장의 논거로, 《詩經》과 《書經》을 비교한다.

> 가령 《詩經》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시월 달, 초하루인 辛卯日에 일식이 일어나니, 매우 나쁜 일일세." 六朝代, 唐代, 元代, 淸代를 거치면서 여러 유생들은 주나라 유왕 6년 10월 辛卯日에 일식이 있었음을 추산하였다. 중원 외의 역법과 대조해 보았을 때, 아마도 기원전 776년 즈음일 것이다. 유럽의 학자들 역시 그해 양력 8월 29일에 중국 북부에서 일식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고찰하여 정하였다. 앞에서 예시로 들었던, 《書經》〈胤征〉편에서 일식에 대해 이설이 많은 것과는 상반된다. 이를 통하여 《詩經》이 진서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것들은 전부 사료로 여기는 것이 믿을 만하다.[123]

그는 이렇게 설정된 차별성에 근거하여, 《詩經》을 다른 사료들을 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한 것을 제시한다. 역사 문헌의 내용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전통시기부터 존재하던 방법론이다. 그러나 양계초는 기존의 방법론을 채택함과 동시에, 서구의 지식을 활용한다. 그는 서구의 지식을 경전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척도

---

121) 감별이라는 용어는, 양계초의 용어를 차용한다. 그는 《中國歷史硏究法》에서 "史料之搜集與鑑別"이라는 편을 지었다.

122) 여러 경전들 가운데 가령 《尙書》와 《左傳》 같은 것들은 모두 사료로 분류된다. 《詩經》 가운데에 사詩意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들 역시 모두 순수한 사료에 속한다. 앞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말하였다. 나는 《易經》의 《卦辭》와 《爻辭》 같은 것들은 주나라의 제례에 대한 좋은 사료이다. 가령 《詩經》의 모든 부분들과 의례 같은 것들은, 주나라와 춘추시대 이전에 대한 좋은 사료이다. 저 시기의 사적들이 매우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종이쪼가리, 한 글자까지도 모두 진귀하게 여겨진다. 이것들은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사료들로서, 모았을 때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群經之中如《尙書》, 如《左傳》, 全部分殆皆史料, 《詩經》中之含有史詩性質者亦皆屬純粹的史料, 前旣言之矣. 余如《易經》之卦辭爻辭, 卽殷周之際絶好史料 ; 如《詩經》之全部分, 如《儀禮》, 卽周代春秋以前之絶好史料. 因彼時史跡太缺乏, 片紙只字, 皆爲瑰寶, 抽象的消極的史料, 總可以向彼中求得若幹也.)-《中國歷史硏究法》(위의 책, 4113쪽).

123) "例如《詩經》 : "十月之交, 朔日辛卯, 日有食之, 亦孔之醜."經六朝唐元淸諸儒推算, 知周幽王六年十月辛卯朔確有日食. 中外歷對照, 應爲西紀前七七六年, 歐洲學者亦考定其年陽歷八月二十九日中國北部確見日食. 與前所擧《胤征》篇日食異說紛紜者正相反. 因此可證《詩經》必爲眞書, 其全部史料皆可信."-《中國歷史硏究法》(위의 책, 4133쪽).

로 활용한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활용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지식이들 사이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던 서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려해보면, 양계초의 활용법은 당시에 무난히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詩經》은 사료를 감별하는 기준으로 활용됨으로써, 역사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이바지 한다. 역사학은 과거의 사실을 기반으로, 현대에 맞는 새로운 의의와 가치를 창출함을 그 목표로 한다.[124] 사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현대에 맞는 가치를 창출해 내는 데에 있다. 양계초는 이러한 작업은 사료의 정확성을 전제로 한다고 여긴다.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실들의 진위여부를 통해 사료를 감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양계초는 《詩經》을 다른 경전들에 비해 순수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며,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료들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3.5 왕국유의 시경론

3.5.1. 왕국유의 《詩經》에 대한 인식

왕국유의 《詩經》에 대한 인식은 공자와 《詩經》의 관계, 六義의 정의, 사료로서의 《詩經》에 대한 평가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왕국유의 언급은, 하나의 사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는 이전시기의 논제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해명할 뿐,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사상을 주창하지는 않는다.

왕국유는 《詩》와 《詩經》을 구분한다. 이전 시기에 《詩》라는 텍스트가 존재하였

124) “어떠한 학문을 연구하든, 모두 각자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역사라는 학문의 목적은 무엇인가? 간단히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역사의 목적은 과거의 사실에 새로운 의의와 새로운 가치를 줌으로써, 현대 사람들의 활동의 본보기로 이바지 하는 데에 있다. (無論研究何種學問, 都要有目的. 什麽是歷史的目的？簡單一句話, 歷史的目的在將過去的眞事實予以新意義或新價値, 以供現代人活動之資鑒.)”-《中國歷史研究法補編》(위의 책, 4103쪽).

으나, 그것은 공자의 《詩經》과는 다르다고 지적한다.[125] 그러나 이는 그가 공자의 刪詩說을 수용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經學槪論》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고로 공자는 누차 제자들로 하여금 《詩經》을 공부하게 하여, 교육의 방술이라 여겼다. 《詩經》이 孔氏에게서 나온 것은 311편이다, 그 6편은 가사가 없으니, 고로 305편이라 일컫는다. 한나라가 흥하고 《詩經》에 대해서 전하는 것으로는 魯, 齊, 韓 삼가가 있었다. 그러나 후세에 이르러서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毛詩》는 조금 후에 나왔는데, 이후에는 홀로 존재하게 되었다.[126]

그는 이전시기의 《詩》의 형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는 공자의 손을 거친[出] 텍스트가 《詩經》이 되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창작인지 혹은 이전시기의 시를 刪詩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만, 현존하는 《詩經》이 공자의 손을 거쳤음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三家詩가 이전시대에 소실되었음을 지적하며, 《詩經》의 판본으로는 《毛詩》만을 인정한다.

그는 〈風〉, 〈雅〉, 〈頌〉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따른다. 그는 《經學槪論》에서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 여러 지방[國]에서 모은 것을 〈風〉이라 한다. 〈風〉에는 〈周南〉, 〈召南〉, 〈邶風〉, 〈鄘風〉, 〈衛風〉, 〈王風〉, 〈鄭風〉, 〈齊風〉, 〈魏風〉, 〈唐風〉, 〈秦風〉, 〈陳風〉, 〈檜風〉, 〈曹風〉, 〈豳風〉이 있으니, 이는 무릇 15개 지방[國]의 것이다. 왕조에서 지은 것으로 찬미하고 풍자하는[美刺] 것을, 〈雅〉라고 일컫는다. 선왕과 여러 신을 관찰하는 것을, 〈頌〉이라 일컫는다. 〈雅〉에는 〈小雅〉와 〈大雅〉가 있

125) "공자 이전에 《易》, 《書》, 《詩》, 《禮》, 《樂》, 《春秋》 등의 여러 책이 있었으나, '經'이라는 명칭은 아직 없었다. (孔子以前, 有易, 書, 詩, 禮, 樂, 春秋諸書, 而未有經名.)"-《經學槪論》(謝維揚, 房鑫亮 主編, 《王國維全集・第6卷》, 313쪽).

126) "故孔子屢令弟子學詩, 以爲教育之方術. 詩出於孔氏者三百十一篇, 其六篇無辭, 故爲三百五篇. 漢興, 傳詩者有魯, 齊, 漢三家, 至後世俱亡. 毛詩稍後出而獨存."-《經學槪論》(王國維, 謝維揚 主編, 위의 책, 316-317쪽).

다. 〈頌〉에는 〈周頌〉이 있다. 노나라에서는 周公 이후에, 宋代에서는 선대 이후에, 모두 천자의 예악을 얻어 사용하였으니, 그러한 시들 역시 〈頌〉이라고 불렀다. 〈國風〉의 시에는 민간가요가 많다. 옛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서, 풍속과 정치의 시비를 살펴보았다. 〈雅〉와 〈頌〉에 이르러서는 대부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다. 어떤 것은 선왕의 덕을 읊고, 어떤 것은 옛것을 늘어놓음으로써 오늘날을 풍자한다. 그 말들은 모두 암송할 수 있다. 그리고 도덕 정치에 있어서의 교훈 역시, 그 안에 기탁되어 있다.[127]

위의 풀이에 따르면, '風'은 각 지방[國]의 민요, 〈雅〉는 大夫에 의해 지어진 풍자의 시, 〈頌〉은 大夫에 의해 지어진 제례악으로 파악될 수 있다. 왕국유는 當代의 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風〉, 〈雅〉, 〈頌〉을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그는 〈說周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風〉, 〈雅〉, 〈頌〉의 구별은 응당 소리[聲]에서 구해야 한다. 〈頌〉이 〈風〉과 〈雅〉와 다른 점은 알 수 없었다. 오늘날 몇몇 저서들의 설명을 취해보면, 〈頌〉의 소리가 〈風〉과 〈雅〉에 비해서 비교적 느슨함을 알 수 있다. 이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風〉, 〈雅〉에는 韻이 있는 작품이 많고, 〈頌〉에는 韻이 없는 작품이 많다. 무릇 樂詩라는 것은 韻을 사용한 것으로, 같은 韻部의 음을 가지고 지어야, 비로소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다.[128]

이 부분에서 그는 소리[聲]를 활용하여, 〈風〉, 〈雅〉, 〈頌〉을 구별해야 할 것을 주

127) "其採諸各國者, 謂之風, 有周南, 召南, 邶風, 鄘風, 衛風, 王風, 鄭風, 齊風, 魏風, 唐風, 秦風, 陳風, 檜風, 曹風, 豳風 凡十五國. 其王朝所作, 以美刺政事者, 謂之雅. 以祭先王及百神者, 謂之頌. 雅有小雅, 大雅. 頌有周頌; 又魯爲周公之後, 頌爲先王之後, 皆得用於天子禮樂, 故其詩亦謂之頌焉. 國風之詩, 多民間歌謠, 古人採之 以觀風俗及政治之美惡. 至於雅, 頌, 則多出於士大夫之手, 惑詠歌先王之德, 惑陳古以刺今, 其言均可諷誦, 而道德政治上之教訓, 亦多寓其中."(王國維, 謝維揚 主編, 위의 책, 316쪽).

128) "竊謂風, 雅, 頌之別, 當於聲求之. 頌之所以異於, 風, 雅者, 雖不可得而知, 今就其著者言之, 則頌之聲較風, 雅爲緩也. 何以證之? 曰風雅有韻, 而頌多無韻也. 凡樂詩之所以用韻者也, 以同部之音間時而作, 足以娛人耳也." (王國維, 謝維揚 主編, 《王國維全集・第8卷》, 59쪽).

장한다. 그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風〉, 〈雅〉, 〈頌〉의 작품들에 있는 韻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각각 작품의 드러나는 특징을 풀이한다. 이 과정에서 왕국유는 자연스레 《詩經》과 樂詩를 연관 짓는다. 《詩經》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문학과 연관 지어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풀이는 중국 전통시기의 文論, 詩論에서 音韻과 聲律을 강조하는 사실에 근거하다.[129] 왕국유는 문학과 시에서 자주 사용되던 음악성을 가지고 六義를 분석하고, 그를 근거로 六義가 야기하는 효과를 분석 비교한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일반적인 시론을 가지고 《詩經》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왕국유의 이와 같은 풀이는 《詩經》이 경전으로서 지니는 위상을 부정하고, 《詩經》을 인식함에 있어서 문학과 연관 짓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보인다.

왕국유는 《詩經》을 사료로 인식하는 전통시기의 관점[130]을 수용한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수용하지는 않고, 일련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古史新證》에서 나타난다.

> 옛 역사에 관한 사료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안타까워한다. 오늘날에 태어난 우리 세대는 종이위의 재료 외에도, 땅 아래의 재료를 사용할 수 있으니 행운이라 할 수 있다. ... ... 소위 종이에 적힌 사료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대에 따라 기술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詩經》, 《易經》, 《五帝德》, 《帝繫姓》, 《春秋》, 《左氏傳》, 《國語》, 《世本》, 《竹書紀年》, 《戰國策》, 《史記》 등

129) 중국에서의 본격적인 문학 비평은 曹丕의 《典論》〈論文〉으로 평가한다. 魏晉南北朝 시기에는 문학 비평이 발달함에 따라, 文과 筆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을 구분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문장의 音韻이 활용되었다. (魏晉南北朝 시기 문장을 구별하는 기준과 그 활용에 대해서는, 蕭華榮, 《中國詩學思想史》, 81, 82쪽을 참조할 것.) 또한 詩라는 문학장르는 그 자체로 音韻 및 聲律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詩와 그것들의 관계는, 詩에 존재하는 押韻法, 近體詩에 존재하는 平仄의 운용 등에서도 알 수 있다.

130) 중국 전통시기의 지식인들은 《詩經》을 사료로 인식하였다. 이는 章學誠(1738~1801)의 "六經皆史"라는 주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文史通義》〈易教〉에서, "六經은 모두 역사서이다. 옛 사람은 책을 저술하지 않았다. 옛 사람은 사실을 떠나서 이치를 말한 적이 없으므로, 六經은 모두 선왕의 政典이다. (六經皆史也. 古人不著書, 古人未嘗離事而言理, 六經皆先王之政典也.)"(章學誠, 《文史通義》, 1쪽) 라고 말하며, 六經을 모두 역사서로 볼 것을 주장한다.

> 이 있다. 땅 아래에 있는 재료로는 2가지가 있다. 갑골문자 그리고 殷代와 周代의 金文이 있다. 오늘의 강연에서 나는 두 종류의 재료에서 여러 책을 증명할 수 있는 것 혹은 보충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취하여, 하나하나 기술하겠다.131)

그는《詩經》을 사료로써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완전성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이는 그가 문헌상의 자료뿐만 아니라, 갑골문과 같은 실재 자료를 활용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다. 가령 그는 〈古史新證〉에서《詩經》 및 여러 사료들을 활용하여 古史의 몇몇 요소들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詩經》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그에게 있어《詩經》은 사료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當代의 새로운 학문을 적극 참조하여 증명해야만 한다.

왕국유는《詩經》을 인식함에 있어서, 이전의 설을 수용하며, 동시에 당시의 새로운 참고자료를 활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자와《詩經》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확언을 하지 않는다. 그는《詩經》의 문체를 구분함에 있어서, 당시의 音韻에 대한 이론을 참고한다. 또한《詩經》이 사료로서 지니는 가치를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3.5.2. 왕국유의《詩經》해석 방법

왕국유는《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그가《詩經》을 활용한 양태에 주목하여, 그의 방법론을 추론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가《詩經》을 중심으로 저술한 글들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131) "然惜於古史材料, 未嘗爲充分之處理也. 吾輩生於今日, 幸於紙上之材料外, 更得地下之新材料. ... 所謂紙上之材料, 玆從時代先後述之. (一)《尙書》, (二)《詩》, (三)《易》, (四)《五帝德》及《帝繫姓》, (五)《春秋》, (六)《左氏傳》·《國語》, (七)《世本》, (八)《竹書紀年》, (九)《戰國策》及周秦諸書, 일일술지. (十)《史記》. 地下之新材料有二種 (一)甲骨文字, (二)金文.今玆所講, 乃就此二種材料中可以證明諸書, 惑補足糾正之者, 一一述之."-《古史新證》(王國維, 謝維揚主編,《王國維全集·第11卷》, 241-242쪽).

《詩經》을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해석과 평가가 선결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왕국유는 《詩經》을 문학과 사료, 두 가지 층위에서 인식한다.

우선 그가 문학작품으로서의 《詩經》을 분석한 양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그가 문학작품으로서의 《詩經》을 연구한 텍스트로는 〈與友人論詩書中成語書〉가 있다. 그는 이 글에서 《詩經》의 텍스트에서, 成語를 중심으로 그것의 뜻을 풀이한다. 이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연구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인정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제시한다.

> 나는 한나라, 위나라, 육조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당나라와 송나라 사람들의 성어를 해석한다. 그리고 주나라와 진나라 사람들의 책을 가지고, 한나라와 위나라의 성어를 해석한다. 《詩經》과 《書經》에 비해 더 오래된 책은 없다. 거기에서 자주 보이는 성어들이 있다. 그것들을 서로 비교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뜻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의 의미를 하나의 단어로 정할 수 없다.[132]

여기에서 왕국유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론을 제시한다. 그것은 이전시기 문헌과의 비교와 동시대 문헌과의 비교이다. 그는 특정 시기의 성어는 그 특정시기보다 앞선 시기의 성어를 이해함으로써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한 시기의 성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의 문헌들을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국유는 글의 후반부에서 《詩經》의 단어를 풀이함에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취하고 있다. 후자의 방법론을 취한 경우, 《詩經》과 《書經》을 비교한다. 전자의 방법론을 취한 경우, 《詩經》과 《書經》의 내용과 毛公鼎[133]을 비교

132) "唐宋之成語, 吾得由漢魏六朝人書解之 ; 漢魏之成語, 吾得由周秦人書解之. 至於《詩》《書》, 則書更無古於是者. 其成語之數數見者, 得比較之而求其相沿之意義. 否則不能贊一辭."-〈與友人論詩書中成語書〉(王國維, 謝維揚 主編, 《王國維全集・第8卷》, 30쪽).

133) 모공정을 서적에 필적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공정에 대한 일련의 정리 작업이 요구된다. 왕국유는 〈毛公鼎考釋〉에서 그러한 작업을 진행한다. 그는 〈毛公鼎考釋〉에서 모공정의 위상을 金文字의 보고로 설정한다. 그리고 《詩經》, 《書經》, 《說文》, 《史記》

한다.

왕국유가 사료로서의 《詩經》을 활용한 예로, 〈釋樂次〉, 〈古史新證〉 등을 들 수 있다. 본 절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그는 사료로서의 《詩經》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물을 통한 진위여부 검정을 중시한다. 그는 종이로 된 사료의 해석과 실제 땅에서 나오는 유물이라는 사료의 해석을 이중으로 하여, 역사 사실의 진위여부를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釋樂次〉을 전통시기 樂禮를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재구성[134]한다. 그는 《詩經》의 몇몇 시를 樂詩로 분류하여,[135] 그것들이 활용되는 상황과 순서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古史新證〉에서 古史의 몇몇 요소들[136]에 대해서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金文을 활용하여, 해당 요소 字의 본의를 파악한다. 해당 요소를 파악함에 있어서, 《說文》 및 《詩經》 등의 저서를 활용한다.

왕국유가 《詩經》을 활용한 양태를 고찰해 보았을 때, 그의 방법론은 진위를 밝히는 데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詩經》의 字意와 그 내용의 진위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모두 몇 차례의 검토를 거친다. 이러한 그의 방법론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텍스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그 내용을 실증적으로 증명해내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5.3. 왕국유의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왕국유는 중국의 전통학술을 평가하며, 순수학문의 부재를 집중적으로 비난한다. 그는 〈論新學語之輸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등의 저서를 활용하여, 그 안의 문자의 뜻을 밝히는 작업을 한다.

134) 그는 악례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음악과 춤으로 나누어 인식한다. 그리고 악례를 복원하는 작업의 선결과제로, 〈說勺舞象舞〉, 〈說周頌〉, 〈周大武樂章考〉, 〈漢以後所傳周樂〉에서 악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나름의 정리를 진행한다.

135) 樂詩에 대한 구분은, 본장 1절의 인용 부분에 나타나있다.

136) 그는 〈古史新證〉에서, “禹”, “殷之先公先王”, “上甲”을 장을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 그는 각 장에서, 주제어와 관련되는 요소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 고찰한다.

> 생각건대, 우리 국민의 특질은 실제적이며 통속적이다. 서양인의 특질은 사변적이고 과학적이며 추상에 뛰어나 분류에 정밀하여 세계 일체의 유형, 무형의 사실에 대해 종합 개괄(generalization)과 분석(specification)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쓰지 않음이 없다. ... 우리나라 사람이 잘하는 것은 오히려 실천 방면에 있으며 이론 방면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식으로써 만족하고, 분류하는 일에 대해서는 실제에 급박한 것 외에는 거의 구하려 하지 않는다.[137]

이 부분에서 왕국유는 "실제적" 태도와 "사변적" 태도를 대립시켜서, 중국과 서양의 차이를 풀이한다. 그는 중국의 학문과 서학 사이의 발전 정도의 차이를, 사유의 방향성에서 찾는다. 즉, 각각 국민들의 서로 다른 성향이, 當代의 중국과 서양의 학문의 수준 차이를 야기하였다고 풀이한다. 실질적 태도와 사변적 태도의 대립을 통한 평가는 시인에 대한 비난에서도 이어진다. 시인들은 《詩經》과 가장 연관이 사람들로 볼 수 있다. 그는 〈論哲學家與美術家之天職〉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어찌 유독 철학자뿐이겠는가? 시인 또한 그러하다. "스스로 높이 오를 것을 생각해 본다. 요처에 올라 임금을 요임금과 순임금에 이르게 하여, 다시 풍속을 도탑게 하고자 한다." 이것은 두보의 포부가 아니겠는가? "어찌 글을 올려 스스로 천거하지 않는가. 앉아서 사해를 요임금과 순임금의 시대처럼 만들 수 있는 것을." 이것은 한유의 충고가 아니겠는가? "고요히 천고의 웃음거리 달갑게 여기리. 말을 달려 여전히 잔잔한 황하와 장강을 바라본다." 이것은 육기의 비분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은 자를 세상에서는 대시인이라고 말한다. 시인 중에 이러한 포부가 없는 자들은 소설, 희곡, 그림, 음악 분야의 제가와 더불어 모두 난장이나 광대로서 자처하고 세상에서도 또한 난장이나 광대로 그들을 길렀다. 소위 "시 바깥에 오히려 할 일이 있다.", "오로지 문인으로 목숨 걸면 볼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금과옥조이다. 아! 예술이 독립된 가치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역대 시인들

137) "抑我國人之特質, 實際的也, 通俗的也 ; 西洋人之特質, 思辨的也, 科學的也, 長於抽象而精於分類, 對世界一切有形無形之事物無往而不用綜括Generali-zation及分析Specification之二法. ... 吾國人之所長, 寧在於實踐之方面, 而於理論之方面則以具體的知識爲滿足, 至分類之事, 則除迫於實際之外, 殆不欲窮究之也."-〈論新學語之輸入〉(王國維, 謝維揚 主編, 《王國維全集・第1卷》, 126쪽).

> 대부분이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권선징악에 뜻을 기탁하여 스스로 비난을 면하고, 반면에 순수예술상의 저술은 자주 세상의 박해를 받으니, 그것을 위해 설욕해주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 또한 우리가 철학, 예술이 발달하지 않은 한 가지 원인이다.[138]

이 부분에서 그는 역대의 유명한 시인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제창한다. 그는 시인들이 실제적 태도만을 중시했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경향성으로 인해 철학, 예술과 같은 순수 학문들이 중국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인의 전반적인 사유 경향에 대한 비평의 논거와 시인들에 대한 비판의 논거는 동일하다. 그는 그들 모두가 지나치게 실제적인 경향을 지닌 까닭에 중국에 순수 학문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풀이한다.

비록 왕국유가 중국 전통학술을 비난하며 순수학문이 없다는 사실을 주요 근거로 삼지만, 이는 그가 학문이 사회와 단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순수학문에 대한 강조는 중국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계책의 하나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는 순수학문에 대한 긍정의 근거가 중국 문명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지니던 서구 문명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의 존재하던 중국과 서양의 학문의 수준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을 순수학문의 부재에서 찾았다. 이러한 논리는 순수학문이 서구로부터 이식되어 잘 배양되면, 종국에 중국도 서양에 버금가는 문명을 지닌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왕국유가 서양의 순수학문을 도입하고, 중국에 전파하려하는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의 발전이라고 보아야 한다.

왕국유의 주장이 무비판적인 서학에 대한 추종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는다. 왕

---

138) "豈獨哲學家而已, 詩人亦然. "自謂頡騰達, 立登要路津. 致君堯舜上, 再使風俗淳", 非杜子美之抱負乎?"胡不上書自薦達, 坐令四海如虞唐", 非韓退之之忠告乎? "寂寞已甘千古笑, 馳驅猶望兩河平", 非陸務觀之悲憤乎? 如此者, 世謂之大詩人矣. 至詩人之無此抱負者, 與夫小說, 戲曲, 圖畫, 音樂諸家, 皆以侏儒, 倡優自處, 世亦以侏儒, 倡優畜之. 所謂"詩外尙有事在", "一命爲文人便無足觀", 我國人之金科玉律也. 嗚呼, 美術之無獨立之價値也久矣!此無怪歷代詩人, 多托於忠君愛國, 勸善懲惡之意, 以自解免, 而純粹美術上之著述, 往往受世之迫害而無人爲之昭雪者也. 此亦我國哲學, 美術不發達之一原因也."-(王國維, 謝維揚 主編, 위의 책, 132쪽).

국유는 일본을 무시한 채, 서구 문명만을 하나의 전범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서구 문명을 기준으로 삼아 중국 문명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그는 중국인들에게 “실제적”태도는 충분하나, “사변적”태도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다. 근대화를 이원론적으로 바라보는 당시 중국인들의 시좌에서 보았을 때, 그의 주장은 최소한 그가 서학에 대해 무비판적인 추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는 도리어 서구 문명에 비해 “실제적”태도를 지니는 중국인들이 “사변적”태도 또한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왕국유의 이러한 근대화 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단 중국 문명을 서구 문명의 수준으로 따라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명을 서구 문명보다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이 “사변적”태도를 강조하는 왕국유의 주장만으로, 그가 무비판적으로 서학을 추종했음을 확인할 수는 없다.

제 4 장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

4장에서는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본고의 3장에서 수행된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의 시경론의 같고 다름을 비교한다. 이 과정에서 각 인물들의 시경론의 같고 다름을 보다 선연히 비교하기 위해, 다섯 인물을 두 분류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한다. '《詩經》과 사회의 거리'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다섯 인물을 '전통 시경학의 계승'과 '근대 시경학의 정초'로 나누고자 한다.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가 있다. 후자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양계초, 왕국유가 있다. 이러한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정당화 작업은 4장 전반에 걸쳐 예증의 방식을 통해 양자 간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수행한다.

본고에서 '전통 시경학의 계승'과 '근대 시경학의 정초'의 구분, 즉 '전통 시경학'과 '근대 시경학'을 구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으로 '《詩經》과 사회의 거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이들이 《詩經》을 사회개혁의 맥락, 구체적으로는 근대화의 맥락에서 활용했음을 전제로 한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의 해석이 보다 직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유한다.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의 해석이 보다 간접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사유한다.

근대전환기 시경론을 구성하는 두 부류의 시경론인 '전통 시경학의 계승'과 '근대 시경학의 정초'를 비교함으로써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한다. 양자 사이에 같음을 비교함으로써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한다. 양자 사이에 다름을 비교하고,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과 전통 시경학을 비교함으로써 전통 시경학과 근대 시경학의 과도기적 시기로서의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한다.

4.1 근대전환기 《詩經》에 대한 인식: 《詩經》의 가치 설정을 위한 노력

경전을 '道의 擔持體'로 인식하는 사유가 해체되어가는 시대적 배경 하에,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은 《詩經》의 존재 의의와 가치에 대해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때문에 그들의 《詩經》에 대한 인식은 《詩經》의 가치를 설정하는데 그 주안점이 놓여 있다. 《詩經》이라는 텍스트의 가치는 그것의 기능에 의해 정당화된다. 때문에 각각의 인물들은 《詩經》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몇몇 요소들, 공자와 '經'자의 정의, 《詩經》의 관계, 孔子刪詩說, 六義의 구분 등을 《詩經》이라는 텍스트의 기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활용한다.

본고의 3장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보았을 때, 근대전환기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詩經》의 기능은 경학・사학의 맥락과 문학의 맥락에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강유위는 《詩經》을 孔子의 道가 담겨져 있는 텍스트로 설정하고, 장병린은 《詩經》의 기능을 '경학'과 문학의 맥락에서 설정하며, 유사배는 《詩經》의 기능을 '경학'과 사학의 맥락에서 설정, 양계초와 왕국유는 《詩經》의 기능을 문학과 사학의 맥락에서 설정한다.

근대전환기에 경학과 사학의 맥락에서《詩經》의 기능이 설정되는 경우, 그것은 경전, 史書, 사료로 설정된다. 경학과 사학을 하나로 묶는 것은 양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한 사실에 근거 한다. 漢代의 今古文論爭에서 각 진영의 인물들은 여러 주제에 걸쳐 논쟁을 벌였다. 경전을 보는 관점에 대한 논쟁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금문경학가들은 六經을 공자의 저서로, 고문경학가들은 六經을 이전시기의 사서로 설정한다. 비록 魏晉南北朝代에 이르러 경학과 사학의 구분이 등장하지만, 이는 六經을 보는 관점이 통일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39] 예컨대 淸代의 章學誠은 六經皆史說을 주장하며, 六經을 모두 사서로 볼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에도 불구하고, 전통시기 지식인들은 경전으로서의 六經과 사서로서의 六經을 모두 '사유의 원천'으로 인식한다.

139) 경학과 사학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는 신승하, 앞의 책, 31-34쪽을 참조할 것.

근대전환기 지식인들이 《詩經》을 사학의 맥락에서 인식하는 경우, 그들의 인식은 《詩經》을 사서로 설정하는 관점과 사료로 설정하는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詩經》을 사료로 설정하는 인식은 고문경학파의 《詩經》에 대한 인식과 다르다. 고문경학파는 六經을 모두 사서로 설정한다. 사서와 사료는 다르다. 사료의 범주에 사서가 포함되지만, 전통시기 '사서'의 위상은 사료가 지니는 위상보다 높다. 고문경학가들은 《詩經》을 사서로 설정하고 활용함으로써, 왕조의 체제유지에 기여하려 했다. 즉, 그들은 《詩經》을 활용하여, 왕조의 정당성・정책의 정당성 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는 《詩經》이 정보전달의 매개체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방증한다. 사서로서의 《詩經》은 가치판단의 척도로 활용된다.[140] 그들의 이러한 행위의 기저에는 사서로서의 《詩經》을 본받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텍스트로 인식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서로서의 《詩經》에 대한 사유는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변화한다.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詩經》을 활용하여 왕조의 정당성을 추구하던 경향은 약화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은 모두 조정의 바깥에서 사회개혁을 시도한다. 《詩經》을 활용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 그리고 《詩經》을 본받을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텍스트로 인식하는 사유는 여전히 유지된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 반하는 사유 또한 등장한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가운데, 장병린과 유사배는 《詩經》을 사학의 맥락에서 언급한다. 강유위는 《詩經》을 사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설정한다. 강유위는 《詩經》을 '孔道의 擔持體'로 보았기 때문에, 별도로 《詩經》의 학문적 맥락을 설정하지 않는다. 특히 그는 《詩經》 내용의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없음을 근거로, 그것이 사학의 맥락에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141] 이는 그가 진위여부를 중시했다는 사실과 그의 금문경학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했음

140) 사서로서의 《詩經》이 단순한 정보전달의 매개체가 아닌, 가치판단의 척도로 기능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Helwig Schmidt-Glintzer. *Historical Truth, Historical Criticism, and Ideology*, 228-230쪽을 참조할 것.

141) "은나라 이전에 대해서는 그 사적을 나열하여 기록할 수 없었다고 하니, 대체로 공자의 시대에는 하나라와 은나라에 대해서도 증명할 자료가 없었던 것으로, 단지 오제 시대에 대해서만 그러했던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라와 은나라의 일은 불확실하여 상고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殷以前不可得而譜, 蓋孔子時, 夏殷無征, 非惟五帝然. 則夏殷之事茫昧無稽可見.)"-〈上古茫昧無稽考〉《孔子改制考》(康有爲, 姜義華 編校, 앞의 책, 6쪽).

을 방증한다.[142] 그는 《詩經》을 비롯한 六經에 공자의 道 및 改制에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고 설정한다. 그러나 강유위 역시 《詩經》을 '사료'의 일종으로 활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그가 《大同書》에서 《詩經》을 활용하는 양태를 확인해보면, 그가 《詩經》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근거로 자신의 언술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강유위는 《詩經》이 사학의 맥락에서 활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역시 《詩經》을 사료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장병린은 《詩經》을 '경학'의 맥락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六經을 비롯한 여러 諸子書를 모두 사서로 보았다. 그의 이러한 인식은 장학성의 경전의 속성에 대한 인식과는 동일하지만, 경전의 범주에 대한 인식과는 차이를 보인다. 장병린은 〈原經〉에서 장학성이 제창한 六經皆史說의 전반적인 관점을 긍정하나, 장학성이 "經"의 범주를 지나치게 좁게 잡았다고 비난한다. 장병린은 경전은 곧 사서라고 하며, '경전'의 범주에는 유가의 六經뿐만 아니라 諸子書 또한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경전'을 사서로 보는 장병린의 관점은 六經을 사서로 보는 고문경학가의 관점과 유사하다. 장병린 경전의 범주에 대한 주장과 고문경학가의 경전의 범주에 대한 의견 사이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양자는 모두 《詩經》을 사유의 원천으로 본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유사배는 장병린과 마찬가지로 《詩經》을 '경전'으로 설정한다. 그는 동시에 《詩經》을 사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詩經》을 사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는 《周末學術史序》〈工藝學史序〉에서 공예학의 전반적인 발달사에 대해서 언급한다.

> 상고시대의 백성들은 수렵에서 유목생활로 발달하였다. 이에 재료를 구분하고, 사물을 구별하였다. 또한 동물을 가지고 기술 발달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소를 중심으로 삼고, 양 또한 양을 가지고 식사를 공급했다. 그리고 물건을 만듦에 사용한 자원은, 뼈, 뿔, 깃털, 가죽을 벗어나지 않는다. 뿔을 깎아서 활을 만든다. 뿔을 모아서 술이 흐르게 한다. 뿔을 파서 고리를 만든다. 뿔을 불어서 소리를 낸다. 이것들은 고대에 뿔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다

142) 예컨대 그는 《新學僞經考》에서 고문경학의 경전 판본들이 모두 가짜임을 주장한다.

는 증거이다.[143]

이 구절에서 그는 상고시대의 공예발달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뿔의 활용을 언급한다. 이 부분 의 바로 뒤에는 뼈와, 가죽, 깃털의 사용 양상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万仕國은《儀徵劉申叔遺書》에서《詩經》을 활용하여 위의 몇몇 부분에 대해 주석을 단다.[144] 가령, 유사배가 상고시대에 활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詩經》의 "角弓其觩(뿔장식을 한 활은 구부정하다.)"[145], "觩觩角弓(잘 휜 뿔활은)"[146]을 언급한다. 가령, 유사배가 상고시대의 고리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부분에서는《詩經》의 "童子佩觿(아이가 뼈 송곳 찼네.)"[147]을 활용한다. 주석가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유사배가 매 시대의 공업발달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해당 시대의 자료를 활용한 사실을 고려했을 때, 상고시대의 공예 발달을 가늠하기 위해, 그 시대의 저서라고 여겨지는 텍스트를 활용했을 것이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는《詩經》을 '사유의 원천'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시기의 시경학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들은《詩經》에 본받을 만한 사유가 내재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사회의 변화를 도모한다. 강유위는《詩經》에서 孔子의 道를, 장병린과 유사배는《詩經》에서 정치적 활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찾을 수 있다고 설정한다. 그러나 실제 강유위와 유사배는《詩經》을 '경전' 뿐만 아니라 사료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양계초와 왕국유는 사료로서의《詩經》활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들은 사학의 목적, 사료의 활용 양태 등을 새롭게 설정한다. 우선, 양계초는 왕조중심의 역사 서술 체계를 비난함으로써, 사학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한다. 이는 동시대 일본의 사학에서 나타나는 특징[148]과 유사하다. 그는

143) "上古之民, 由獲獵進爲遊牧, 故飾材辨物, 亦以動物爲濫觴, .牛以易中, 羊以供膳. 而用物所資, 不外骨, 角, 羽, 革. 析角以爲弓, 萃角以爲注酒, 屈角以爲環, 吹角以爲音, 此古代以角爲器之證也."-〈工藝學史序〉《周末學術史序》(劉師培, 萬仕國 點校, 앞의 책, 1520쪽).

144) 劉師培, 萬仕國 點校, 앞의 책, 1520-1522쪽.

145)《詩經・頌》〈泮水〉.

146)《詩經・小雅》〈角弓〉.

147)《詩經・國風》〈芄蘭〉.

《詩經》을 다른 사료들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는 사료로 설정한다. 그는 《詩經》을 사유의 원천이 내재되어 있는 텍스트가 아닌, 다른 텍스트의 진위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척도로 설정한다. 양계초는 《詩經》을 "절대적 신뢰성"을 지니는 사료로 설정한다.

왕국유는 《詩經》을 사료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다. 그는 《詩經》을 諸子書와 함께 병치한다. 그는 사료로서 《詩經》이 지니는 위상을 《易經》, 《五帝德》, 《帝繫姓》, 《春秋》, 《左氏傳》, 《國語》, 《世本》, 《竹書紀年》, 《戰國策》, 《史記》의 위상과 동일하게 설정한다.

양계초와 왕국유는 《詩經》을 '정보의 보고'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통 시경학과 차이점을 지닌다. 다만, 양계초와 왕국유는 모두 《詩經》을 사료로 활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점에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들이 설정하는 사료로서의 《詩經》의 위상은 다르다. 양계초는 사료로서의 《詩經》의 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한다.

근대전환기 문학의 맥락에서 《詩經》이 활용되는 경우, 전통 시경학과는 다른 방향성이 등장한다.[149] 전통시기 문학의 맥락에서 《詩經》이 활용되는 경우, 《詩經》에 근거한 문학이론이 다른 문학 작품들에 적용된다. 그러나 근대전환기에는 그 반대의 방향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시기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혹은 새로이 등장한 문학이론이 《詩經》에 적용되기도 한다.

전통시기 문학의 맥락에서 《詩經》의 기능이 설정되는 경우, 그것은 문학 작품의 기원이자 전범으로 설정된다. 때문에 기존의 詩學 역시 《詩經》으로부터 뻗어 나와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경향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예시로는 "詩言

148) 근대전환기 일본 사학의 특징에 대해서는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옮김, 《일본 동양학의 구조》, 39쪽을 참조할 것.

149) 《詩經》이 경학의 맥락에서 활용되는 경우는 조금 다르다. 경전으로서의 《詩經》은 '道의 擔持體'로 설정되고, 학자들은 경전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詩經》에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詩經》을 비롯한 경전은 가장 보수적인 텍스트로, 새로운 방법론이 가장 마지막에 적용된다. 새로운 방법론은 諸子書 및 여러 서적들에 적용되어 검증을 마친 뒤에야, 《詩經》을 비롯한 경전에 적용되었다.

志”와 “詩言情”(혹은 “詩緣情”)이 있다. 이 두 개념은 시라는 문학 장르의 본연의 기능을 설정함에 있어서 주로 활용된 개념들이다. “詩言情”은 “詩言志”의 개념으로부터 파생되었지만, 두 개념은 상호배타적이다.[150] “詩言道”와 “詩言情”은 《詩經》의 詩에 대해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詩經》의 詩에 대한 정의의 차이는 각기 다른 시의 창작태도와 감상태도로 이어진다. “詩言志”는 《尙書》〈堯傳〉과 《左傳》에서 추출된 것으로, ‘志’자의 범주에 따라 “詩言道” 혹은 “詩言情”로 이어진다.[151] “詩言情”은 《毛詩序》에 근거한다.[152] 양자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개념은 모두 《詩經》을 하나의 전범으로 설정하고, 그에 근거하여 개념을 추출하고 추출된 개념을 후대의 시 창작 및 감상에 적용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가운데, 장병린과 유사배는 《詩經》을 문학의 맥락에서 언급한다. 강유위의 경우 《詩經》을 문학의 맥락에서 활용하지 않는다. 장병린은 〈辨詩〉에서 직접적으로 《詩經》이 시라는 문학 장르의 기원이자 전범이라 주장한다. 그는 별다른 논증의 과정 없이, 전통 시경학의 의견을 따라 《詩經》을 문학의 맥락에서 풀이할 수 있다고 설정한다. 그는 《詩經》을 四言體 문학의 기원으로 설정하고, 《詩經》에 근거하여 이후의 문학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한다.

유사배 역시 《中古文學史講義》에서 《詩經》을 문학의 기원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詩經》을 척도로 활용하여 후대 문인들의 글을 평가한다.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양계초와 왕국유는 모두 문학의 맥락에서 《詩經》을 활용한다. 그들 역시 《詩經》을 문학의 기원으로 설정하지만, 그들은 문학 이론을 《詩經》에 적용하기도 한다. 양계초는 《詩經》을 활용하여 문학의 개념을 정리한다. 양계초는 문학 작품의 주요 개념 중의 하나로 “情(혹은 情感)”을 언급한다. 그는 문학의 “情”을 활용하여 사회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150) “詩言志”와 “詩言情”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曾守正, 〈中國詩言志與詩緣情的文學思想〉, 1쪽; 李百容, 〈從‘群體意識’與‘個體意識’論文學史‘詩言志’與‘詩緣情’之對擧關係〉, 5-9쪽 등을 참조할 것.

151) “詩言志”의 연원과 “詩言道”로의 자세한 변천 과정은 蕭華榮, 앞의 책, 9-11쪽을 참조할 것.

152) “詩言情” 유래에 대해서는 李百容, 앞의 논문, 8-9쪽을 참조할 것.

서 그는《詩經》에서 “情感”의 표출방법을 추출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문학 작품을 창작, 감상,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그는 박자[節奏]에 근거하여《詩經》의 〈風〉, 〈雅〉, 〈頌〉, 〈南〉을 구분한다. 이러한 방법은 문학 이론을《詩經》에 적용하는 방향성을 잘 드러낸다.

왕국유 역시《詩經》을 문학 장르의 하나로 인식한다. 비록 그가 직접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는 그가《詩經》을 활용하는 양태에서 알 수 있다. 그는 〈釋樂次〉에서《詩經》의 시 몇 편을 樂詩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또한 그는 〈說周頌〉에서 문학이론, 즉 소리[聲]로 문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주장을《詩經》에 적용하여, 六義를 정의한다. 그가 〈說周頌〉에서 행한 연구 방법은《詩經》으로부터 추출되고 확립된 개념을 다른 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역으로 기존에 있던 개념을《詩經》에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 문학 이론을《詩經》에 적용하는 방법론은 근대전환기 시경론을 구성하는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도《詩經》을 문학의 맥락에서 활용하지만, 그들은《詩經》을 문학의 시초이자 전범으로 설정하고 활용하는 데에 그친다.

근대전환기에 이르러《詩經》의 텍스트로서의 가치는 다시 증명되어야 했다. 이러한 증명의 결과로 나타나는《詩經》을 경전과 사서로 설정하는 인식과《詩經》을 사료로 설정하는 인식의 비교,《詩經》을 문학의 시초이자 전범으로 설정하는 인식과《詩經》을 문학의 시초로 설정하나 전범으로 설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인식의 비교를 통하여,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의《詩經》에 대한 인식과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들의《詩經》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이들의《詩經》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의 차이는 근원적으로《詩經》에 대한 다른 인식에 기초한다. 금문경학과 고문경학 사이의 논쟁은 여러 주제에 걸쳐 발생하지만, 六經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은 양자 사이의 다른 부수적인 차이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차이이다. 이는 근대전환기 시경론을 구성하는 두 부류의 시경론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과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

당하는 인물들은 근원적으로 《詩經》에 대해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詩經》을 “사유의 원천”으로 설정하고, 후자는 《詩經》을 ‘정보의 보고’로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될 방법론상의 차이로 이어진다.

4.2 근대전환기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 전통의 계승 및 서학의 수용

《詩經》이라는 텍스트에 적용되는 방법론을 파악하기 위해 그들의 방법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서, 《詩經》의 텍스트 외적 요소들(Extratextual factors)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 있다. 나머지 하나로,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Intratextual factors)에 대한 이해를 위해 활용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구분을 《詩經》에 적용할 경우, “텍스트 외적 요소들”에 해당하는 것은 孔子와 《詩經》의 관계, 《詩經》의 기능성 설정 등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은 이러한 방법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들의 주장과 그 이면의 논리구조를 분석한다. “텍스트 내적 요소들”에 해당하는 것은 《詩經》의 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는 방법론으로,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이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4.2.1 《詩經》의 텍스트 외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詩經》의 텍스트 외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의 특징은, 《詩經》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진위여부를 가렸다는 점에 있다. 宋代 疑古主義의 존재를 고려해 보았을 때, 경학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유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다. 宋代에는 공자와 《詩經》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럿 제기되었다. 특히 《詩經》 내에 존재하는 雅하지 못한 시들의 존재는 孔子刪詩說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宋代의 지식인들은 《詩經》

내에 존재하는 雅하지 못한 시들의 존재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淫奔詩"와 《毛詩序》의 "正變說"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그 존재를 정당화하였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전통 시경학의 疑古的 태도는 《詩序》 등을 비롯한 주석서의 내용에 대한 의심으로, 《詩經》이라는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의심은 아니다.[153] 즉, 그들에게 있어서 《詩經》이라는 텍스트가 孔子의 손을 거쳐, 하나의 경전으로 활용된다는 것은 불변의 사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문제의 등장은 《詩經》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지 않고, 제기된 문제 자체의 문제로 여겨진다. 때문에 이러한 전통시기의 사유는 경전의 권위 혹은 신성성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근대전환기의 지식인들은 이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지닌다. 그들은 《詩經》이라는 텍스트가 孔子를 거침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詩經》의 六義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각자의 방법론에 입각해 증명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주요한 판단의 척도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다. 그에 대한 검증 여부가 타당하지 않을 시에는, 孔子와 《詩經》의 관계 자체를 의심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검증 결과에 근거하여, 《詩經》을 활용하는 학문적 맥락을 설정한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가 활용하는 《詩經》의 텍스트 외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모두 전통 시기 텍스트들에 근거하여 孔子와 《詩經》의 관계를 논증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다.

강유위는 "經"자의 정의에 근거하여, 《詩經》이 孔子의 저작임을 논증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淮南子》, 《孟子》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史記》〈孔子世家〉의 내용과 상충된다.

장병린은 《史記》〈孔子世家〉의 내용을 증명함으로써, 刪詩說을 긍정한다. 그는 《國學概論》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153) "宋代는 학술사상이 활발했던 시기로 이제까지의 중요한 자료였던 《毛詩序》·《毛傳》·《鄭箋》에 회의를 품게 되었다. 이러한 《詩經》 연구의 疑古學風은 歐陽脩(1007~1072)와 蘇轍(1309~1112)로부터 시작되었다. 歐陽脩는 《詩本義》 16卷을 저술하였는데 《毛詩序》·《毛傳》·《鄭箋》의 착오를 밝혀내며 다음과 같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이병찬, 《韓中詩經學硏究》, 39-40쪽.

> 어떤 사람은 3000여 편이란 것은 허구라고 의심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자가 판단하기엔 반드시 허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風〉, 〈雅〉, 〈頌〉은 이미 300여 편이 있었고, 이들이 기록되었던 곳을 고찰하니 산실된 시는 대략 600여 편에 이른다. 부, 비, 흥 등을 포함된다면 실제로 대략 1200 편에 이르게 된다. 《周禮》에 九德과 六詩의 노래[歌]가 언급된 것을 참고해보자. 六詩 외에 九德이라는 시가 있었다. 고대에 번성하였을 때에는 "官箴"과 "占繇"를 모두 시로써 지었다. 때문에 序에서 〈庭燎〉를 '箴'이라 하였으며. 〈沔水〉를 '規'라고 했고, 〈鶴鳴〉을 '誨'라고 했고, 〈祈父〉에서는 '刺'라 했다. 시가 아닌 것을 관잠이라 한 적이 없는데 《辛甲》의 여러 편에 3000여 편이 있다."라고 했다. 六詩를 예로 삼으면, 九德에도 1800여 편을 얻을 수가 있다. 이상을 모두 합하면 3000여 편이 되니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3000여 편을 300여 편으로 줄인 것은 공자가 한 것인가 아니면 공자 이전에 누군가가 이미 刪詩를 한 것인가?[154]

장병린은 사마천의 주장이 진실임을 주장하기 위해, 《詩》에 3000여 편의 시가 있었음을 논증한다. 사마천은 《史記》〈孔子世家〉에서, 공자가 기존의 《詩》에 있는 3000여 편의 시를 산정하여 《詩經》으로 편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마천의 주장은 《詩》에 3000여 편의 시가 없었음을 근거로 반박되어 왔다. 사마천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들은, 《詩經》 이전에 존재하던 문헌들에 존재하는 모든 시를 합산하여도 3000여 편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는 《詩》가 《詩經》의 六義와 九德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설정한다. 그리고 《詩經》의 六義와 九德을 모두 詩體로 설정하고, 《辛甲》 등의 텍스트에 근거하여 그 수를 추산하고 합산하는 방식으로 《詩》에 3000여 편의 시가 있었음을 논증한다.

유사배는 《論語》에 근거하여, 孔子가 노나라로 돌아와 《詩經》을 刪定하였다고

154) "可見古詩有三千余篇. 有人對於三千余篇有些懷疑, 以爲這是虛言. 據我看來, 這並非是虛言. 風, 雅, 頌已有三百余篇, 考他書所見逸詩, 可得六百余篇 ; 若賦, 比, 興也有此數, 就可得千二百篇了. 《周禮》稱九德六詩之歌, 可見六詩以外, 還有所謂九德之歌. 在古代盛時, "官箴, 占繇皆爲詩, 所以序《庭燎》稱'箴', 《沔水》稱'規', 《鶴鳴》稱'誨', 《祈父》稱'刺', 詩外更無所謂官箴, 辛甲諸篇, 也在三千之數". [3] 我們以六詩爲例, 則九德也可得千八百篇 : 合之已有三千篇之數, 更毋庸懷疑. 至於這三千篇刪而爲三百篇, 是孔子所刪, 還是孔子以前已有人刪過呢？"-《國學概論》(章炳麟, 慶善 編, 《梁啓超章太炎解讀中華文化經典》, 404쪽).

논증한다. 그는 孔子 이전의 《詩》와 孔子 이후의 《詩經》의 활용 양상을 비교하며, 孔子만이 《詩經》을 비롯한 六經을 수정 및 편찬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양계초, 왕국유가 활용하는 《詩經》의 텍스트 외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공자와 《詩經》의 관계를 실증하기 위해 시도한다. 그들은 실증하기 위해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비해 보다 다양한 종류의 자료를 활용한다.

양계초는 《史記》〈孔子世家〉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孔子刪詩說을 부정한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史記》〈孔子世家〉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예전에는 시가 3천여 편이 있었으나, 공자에 이르러 중복된 것을 버리고, 예와 의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리었다. 위로는 후직 때의 것을 채집한다. 중간으로는 殷代・周代의 많은 시를 옮겨놓았다. 그리고 유왕・력왕 때의 시가 없어질 때까지의 것에 이르기까지 305편을 모아놓았다." 만약 이 설명이 확실한 것이라면, 오늘날의 《詩經》은 공자가 손수 刪定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제 나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論語》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詩經》의 3백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또 "《詩經》의 3백 편을 다 외우고 있다고 하여도, 이에 정무를 맡길 때 일이 잘 되어가지 않고..."라고도 하였다. 이것이 모두 공자 자신의 말이며 시편의 수를 말할 때마다 서슴없이 "詩三百"이라고 한 것을 보면, 공자가 본래 송습한 것은 3백 편뿐이지, 더 많은 것 중에서 그가 스스로 취사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左傳》에 실려 있는 吳의 季札이 魯에 가서 주악의 연주를 본 것은, 공자 이전의 일이다. 그때 가창된 국풍이, 금본 《詩經》의 15국풍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3백 편이 공자가 刪詩한 것이 아니라는 명증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공자가 刪詩한 것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취사선택하였겠는가? 후인들이 말하는 '정절'과 '음탕'을 가르는 척도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음탕한 음악이라고 하는 〈鄭風〉과 〈魏風〉의 남녀해정을 표현한 작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고, 삭제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 《詩經》에서 빠진 고대시가로서 다른 기록에 보이는 것, 예컨대 《論語》의 "아가위 꽃 한들한들, 너 그립지 않을까만, 집이 멀어 어이하리" 혹은 《左傳》의 "비단실 삼실 있

다 해서, 띠풀 그렁풀 버리지 마소. 귀한 아씨 있다 해서, 천한 아씨 버리지 마소."라든지 또는 "우리 임군 법도를 보소. 옥과 같고 금과 같네. 백성 힘을 길러 주고, 당신 호강 생각 없네." 같은 시구들은 대체 이러한 시가의 어느 한 자 한 구절이 '예의'에 어긋나기에, 공자가 이 시들을 제외하였는가? 이런 까닭에 공자가 刪詩한 일이 절대로 없는 것이다.155)

이 부분에서 양계초는 공자의 刪詩說을 부정하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우선, 그는 공자의 일생에 대한 시기적 고찰과 《論語》의 구절을 그 근거로 사용한다. 그는 만일 공자가 《詩經》을 刪定했다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공자 노년에 지어졌음을 언급한다. 만일 공자가 그것을 노년에 편찬했다면, 《論語》에 나오는 "詩三百"이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다고 풀이한다. 양계초는 《詩經》이 공자 이전에도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것이 의도된 저작인지 혹은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못한다고 언급한다.156) 다음으로 그는 《詩經》의 淫奔詩와 《左傳》에 존재하는 《詩》에서 刪除 시를 근거로 활용한다. 양계초는 《詩經》의 〈鄭風〉과 〈魏風〉에 있는 시들이 음탕한 시라고 설정한다. 《詩經》에 존재하는 음탕한 시들의 존재는 공자의 刪詩說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된다. 공자는 《詩經》에 대패 평가하며, "《詩經》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157)라고 한다. 때문에 《詩

155) "《史記》〈孔子世家〉云 : "古者詩三千余篇, 及至孔子, 去其重, 取可施於禮義, 上采契, 後稷, 中述殷, 周之盛, 至幽, 厲之缺, 三百零五篇."此說若確, 則今本《詩經》, 實爲孔子所手選, ... 謹案 : 《論語》云"詩三百, 一言以蔽之……"又云 : "誦詩三百, 授之以政, 不達……"此皆孔子之言, 而述詩篇數, 輒擧三百, 可見孔子素所誦習卽止此數, 而非其所自刪明矣. 《左傳》記吳季札適魯觀樂, 事在孔子前, 而所歌之風, 無出今十五國外者, 益可爲三百篇非定自孔子之明證. 且孔子如刪詩也, 則以何爲標準耶? 如後人所謂"貞淫"耶? 鄭, 衛言情之作具在, 未嘗刪也. 且如逸詩之見於傳記者, 如《論語》之"唐棣之華, 偏其反而. 豈不爾思, 室是遠而", 如《左傳》之"雖有絲麻, 無棄菅蒯. 雖有姬姜, 無棄憔悴", "思我王度, 式如玉式如金, 形民之力, 而無醉飽之心", 凡此之類, 何字何句悖於"禮義", 而孔子乃刪之哉! 是故以吾儕所信, 則孔子絶無刪詩之事."-《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梁啓超全集》, 4652쪽).

156) "오늘날 전해지는 《詩經》의 3백 편이 일찍이 의식적인 편찬을 거쳐서 된 것인지 아닌지는 알아낼 도리가 없다. 설령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편찬자는 사관이 아니면 태사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일 것이다. 그가 누구라고 꼭 꼬집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今三百篇是否曾經一度有意識的編纂, 不可深考. 藉曰有之, 則編纂者或史官太師之屬, 不能确指爲誰.)"-《要籍解題及其讀法》(梁啓超, 張品興 主編, 위의 책, 4652쪽).

157) "詩三百, 一言而蔽之曰, 思無邪."-〈爲政〉《論語》(程樹德 撰, 程俊英 點校, 위의 책, 65쪽).

經》에 존재하는 음분 존재는, 성현인 공자의 정당성에 의문을 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刪詩의 기준에 대해서 의문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어서 양계초는 《詩經》외의 문헌에 존재하는 詩들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論語》와 《左傳》의 시들이 禮義에 부합함을 지적함으로써, 刪詩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禮義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양계초는 《詩經》의 시들이 공자의 특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편찬되었다는 사실을 회의적으로 본다.

그는 《論語》와 《左傳》에 근거하여 공자 刪詩說에 대해 고찰한다. 이러한 참고 문헌의 확대는 그가 제시한 근거를 보다 탄탄하게 한다. 그가 제시한 두 가지 근거는 이미 이전시기에 언급되고 합리화 되었다. 우선, 《詩經》이 공자의 노년에 지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늦어도 宋代에는 존재했다. 가령, 歐陽脩는 〈答吳充秀才書〉에서, "옛날에 孔子가 연로하여 魯나라로 돌아와서 六經을 지은 것은 몇 해의 짧은 기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周易》을 읽는 자에게는 마치 《春秋》란 책은 없는 것 같고, 《尙書》를 읽는 자에게는 《詩》란 책은 없는 듯하니, 어쩌면 그 들인 공력은 적으면서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단 말입니까."[158]라고 한다. 그러나 같은 논거를 사용하는 양계초와 구양수의 주장은 정반대이다. 다음으로, 주희는 《詩經》의 淫奔詩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는 "思無邪"를 재해석함으로써, 그것의 대한 책임을 독자에게 돌린다. 그리하여 그는 《詩經》의 권위를 보존한다.[159] 양계초는 기존의 정당화 작업을 뒤집기 위해 《論語》와 《左傳》까지 확대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詩經》을 다른 사료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詩經》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양의 자료를 활용한다.

왕국유는 《詩經》의 외재적 요소들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二重證據法"[160]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다른 인물들과는 다르게 孔子와 《詩經》의 관계에 근거하여

158) "昔孔子老而歸魯, 六經之作, 數年之頃爾 . 然讀《易》者如無《春秋》, 讀《書》者如無《詩》, 何其用功少而至於至也."-郭紹虞, 《中國歷代文論選・第二卷》, 256쪽.

159) 주희가 "思無邪"를 재해석함으로써, 《詩經》 淫奔詩의 존재를 인정하는 과정의 상세한 내용은 이병찬, 앞의 책, 172-174쪽을 참조할 것.

160) 이는 왕국유의 방법론을 대표하는 표어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는 논문으로는 喬治忠, 〈王國維 "二重証据法" 蘊義与影響的再審視〉; 李銳, 〈"二重証据法" 的界定及規則探析〉, 劉毅, 〈王國維 "二重証据法" 的形成及其意義〉 등이 있다. "二重證據法"과 유사한 표현으로 "二重證明法"이 있다.

《詩經》의 기능을 설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는 《詩經》을 여러 문서자료와 유물자료의 사이에 놓음으로써, 그것의 기능을 설정한다. 그는 《詩經》을 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정하지만, 그것이 다른 자료들과 함께 활용되어야만 사료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詩經》을 문학으로 설정함에 있어서도, 기존의 관점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는다. 그는 《詩經》에 문학 이론을 적용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을 문학 작품으로 활용한다. 예컨대, 그는 〈說周頌〉에서 음(音)에 포함되는 개념인 소리[聲]를 가지고 《詩經》의 詩體를 분석할 수 있음을 논증하고, 〈釋樂次〉에서 《詩經》의 몇몇 시를 樂詩로 설정한 것을 정당화한다.

이와 같이 양계초와 왕국유는 이전 시기에 다루어진 주제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활용한다. 즉, 《詩經》을 구성하는 요소라 할지라도, 《詩經》뿐만이 아닌 다른 자료를 함께 놓고 그것에 대해 고찰한다. 그들의 이러한 방법론은 기존의 연구되었던 동일 주제가 연구되는 맥락을 바꾸고, 동시에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지닌다.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은 모두 《詩經》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시도한다. 그들은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국의 전통 시기 텍스트들을 활용한다.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방식은 두 가지 한계를 지닌다. 우선, 활용 가능한 전통 시기 텍스트들의 범주에 대한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 이들이 자신들의 시경론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하는 텍스트로는 《史記》 등이 있다. 그 외에는 《論語》, 《孟子》, 《禮記》, 《墨子》, 《左傳》 등 전통 시기 텍스트들을 필요에 따라 활용한다. 이러한 경향은 당시 활용 가능한 전통 시기 텍스트들의 범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러한 방식은 후대의 읽는 이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자료를 서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같은 구절을 근거로 삼으면서도, 그것을 각기 다른 방향 및 맥락에서 풀이하여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이들은 모두 《史記》〈孔子世家〉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으나, 《詩經》과 공자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들의 관점은 조금씩 상이하다. 이러한 한계들은 그들 각각이 주장하는 활용 가능한 전통의 학술자원의 범주에 대한 견해와 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상이함을 방증한다.

4.2.2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

근대전환기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론의 특징으로는 그것의 실제 내용은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과 유사하나, 개념의 층위에서 서학 및 일본 학문을 수용하려고 시도한다는 점, 그리고 방법론의 설정에 있어서 이전시기에 비해 家學과 師學으로부터 자유로웠다는 점이 있다. 전통시기의 학문은 경학을 중심으로 한다.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전통시기의 학술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전통 시경학에서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漢代의 훈고학, 宋代의 성리학, 淸代의 고증학이 있다. 이들은 방법론인 동시에 각 시대를 대표하는 학문으로 평가된다. 세 가지 모두 일종의 방법론으로서, 경전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밝혀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비록 이 세 가지 방법론이 독립된 것처럼 언급되었으나, 실제 《詩經》에 대한 주석서를 살펴보면 이 방법론들은 배타적이지 않다.

근대전환기에 이르러 《詩經》에 대한 인식의 분화가 발생하지만, 방법론상의 분화는 분화하지 않는다. 근대전환기의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을 "사유의 원천"으로 설정한다. 때문에 그들은 방법론 및 학문 체계를 끌어들여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양자 모두 《詩經》의 기능을 사학과 문학의 맥락에서 설정함으로써, 그것의 가치를 재설정하였다. 이는 전통시기 시경학의 관점과 유사하다.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론 역시 전통시기 시경학의 방법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가 주장하는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그들은 《詩經》이라는 텍스트에 여러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것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사유를 추출

하고자 한다. 강유위는 '托古'라는 새로운 이름의 방법론을 주장하지만, 그의 방법론은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과 거의 일치한다. 강유위의 "孔子의 道"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에 근거하여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은 경전으로서의 《詩經》의 권위에 기대어 정치의 영역에서 활용하던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장병린은 전통시기의 여러 방법론 가운데, 《詩經》뿐만 아니라 六經 및 諸子書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추려서 그것들을 "국학을 연구하는 방법론[治國學的方法]"이라 명명한다. 장병린은 1) 서적 진위의 판별, 2) 소학의 정통, 3) 지리의 파악, 4) 고금 인정의 변천 파악, 5) 문학에의 응용에 대한 분별이라는 다섯 가지 방법론을 《詩經》 및 국학의 범주에 해당하는 텍스트들을 해석하는 데에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본고의 3장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들은 모두 《詩經》에 적용되었던 전례가 있는 방법론이다. 이 가운데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소학과 지리의 방법론이다.

유사배의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字義"와 "大義"로 나누어 볼 것을 주장한다. 그는 자의 "字義"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毛詩》의 注를 활용한다. 그러나 《詩經》의 大義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그는 "字義"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들의 大義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詩經》의 대의를 파악하기 위해 四家詩, 《公羊》, 《荀子》, 《穀梁》 등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유사배의 주장은 家學의 구속력이 약해졌음을 방증한다. 그는 고문경학을 추종하는 家學의 특징과 달리, 《魯詩》, 《齊詩》, 《韓詩》, 《公羊》, 《穀梁》을 모두 함께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사배의 이러한 방법론은 《詩經》에 대한 전통 시경학의 관점을 계승하나, 家學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근대전환기의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을 "정보의 보고"로 설정한다.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 검증 가능한 정보를 추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양계초는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을 "文意"와 "詩意"로 나누어 볼 것을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文意"를 파악하는 방식은 새로울 것이 없다. 그장 제시하는 "詩意"를 파악하는 방식 역시 《論語》와 《孟子》로

부터 추출한 것으로 새롭지 않다.

왕국유는 역사적 사실의 진위여부뿐만 아니라,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二重證據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한다. "二重證據法"이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함에 적용된 예는 〈與友人論詩書中成語書〉에서 목도할 수 있다. 그는 《詩經》의 '成語'를 종합 및 분석하고, 동시에 毛公鼎을 활용하여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즉, 텍스트를 구성하는 '成語'의 의미를 문서자료와 유물자료의 교차검증을 통하여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詩經》은 문서자료로, 모공정은 유물자료로 기능한다.

다섯 인물들이 주장하는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하는 방법론은 모두 새로운 용어들로 명명되지만, 그것의 기본적인 전제, 실제의 내용 등은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의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하는 방법론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전통시기의 방법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그들이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들을 해석하기 위해 주장한 방법론을 구성하는 개념들은 서학 혹은 일본 학문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 실제 내용은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실제로 강유위와 장병린의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은, 《詩經》을 하나의 고정적인 대상으로 설정하고,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을 종합 및 새로 개념화하여 《詩經》에 적용하려 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유사배와 양계초의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은 《詩經》의 텍스트를 '문면 그대로의 의미'와 '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왕국유의 경우, 《詩經》을 비롯한 문서자료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 자료들을 모두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왕국유의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를 해석하는 방법은 '成語'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문서자료와 유물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그 의미를 검증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여러 문서자료를 비교하여 《詩經》의 텍스트의 내적 요소들을 해석하고 검증하려 했던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과 유사하다. 다만,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비교 대상의 범주를 유물자료로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3 근대전환기《詩經》을 해석하는 목적: 사회개혁을 위해 활용된《詩經》

본고에서 다루는 인물들의 시경론의 성향은 다르지만, 근대전환기 지식인들의《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은 사회와 연관 지어 풀이하여야 한다. 이는 전통시기《詩經》이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활용되었던 목적에 근거한다. 전통시기 중국에서《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은 늘 사회와 연관되어 설정된다. 중국의 지성사에서《詩經》은 두 가지 위상을 지닌다. 경전이 되기 이전의《詩》와 경전으로서의《詩經》이 그것이다.《詩》와《詩經》의 위상은 다르나, 그것들은 모두 정치적 맥락에서 주로 활용되었다.《詩經》이 경전으로 확립되기 이전의 텍스트인《論語》[161],《孟子》[162],《荀子》[163],《左傳》[164],《莊子》[165] 등, 그리고《詩經》이 경전으로 확립된 이후의 텍스트

161) 예컨대《論語》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詩經》의 '정치적' 기능을 잘 드러낸다.《論語》〈陽貨〉, "공자가 말하였다. 소자들을 어찌하여《詩經》을 배우지 않는가?《詩經》을 가지고 흥하게 할 수 있고, 볼 수 있으며, 무리 짓게 할 수 있으며, 원망을 할 수도 있다.《詩經》을 가지고 가깝게는 부모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길 수 있다. 그리고《詩經》을 가지고 새, 짐승,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 수 있다. (小子, 何莫學夫詩？詩, 可以興, 可以觀, 可以群, 可以怨. 邇之事父, 遠之事君. 多識於鳥獸草木之名.)"(程樹德 撰, 程俊英 點校, 앞의 책, 1212쪽) 이 구절에서 공자는 직접적으로《詩經》의 효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162) 예컨대《孟子》다음과 같은 구절은,《詩經》의 '정치적' 기능을 잘 드러낸다.《孟子》〈離婁〉, "맹자가 말하였다. 왕의 자취가 끊기고《詩》가 사라졌다.《詩》가 사라진 후에《春秋》가 지어졌다. (孟子曰 : 王者之迹熄而詩亡, 詩亡然後春秋作.)"(孟子, 焦循 點校, 앞의 책, 572쪽)에서《詩經》의 기능을《春秋》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설정한다. 그리고 양자의 기능은 '정치적 행위'의 주체인 왕과 관련되어 설정된다.

163) 예컨대《荀子》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詩經》의 '정치적' 기능을 잘 드러낸다.《荀子》〈儒效〉, "성인은 道의 중추이다. 천하의 道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여러 왕의 도가 이것 하나이다. 고로《詩》·《書》·《禮》·《樂》의 道가 여기에 귀착한다.《詩》는 성인의 뜻을 말한 것이다. (聖人也者, 道之管也. 天下之道管是矣, 百王之道一是矣. 故詩書禮樂之道歸是矣. 詩言是其志也.)"(荀子, 王先謙 點校,《荀子集解》, 134-134쪽) 이 구절에서 순자는《詩經》을 비롯한《書經》,《禮記》,《樂經》을 道의 擔持體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순자는 이 텍스트들에 천하를 다스리는 여러 왕의 본보기가 될 만한 성인의 道가 존재한다고 풀이한다.

164) 예컨대《左傳》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詩經》의 '정치적' 기능을 잘 드러낸다.《春秋左氏傳》〈襄公〉, "오나라의 공자 계찰이 노나라로 가서 손숙목자를 보고, 그를 좋아하였다. 목천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잘 죽지 못할까 걱정이오. 그대는 선량함을 좋아하면서 현인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오. 내가 듣건대, '군자는 현인을 찾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고 했소. 그대는 군주와 동종의 세경인 노나라의 종경으로서 국경을 맡고 있으면서 사람을 신중하게 천거하지 못하니 어찌 그 자리를 감당하겠소? 화가 반드시 그대에게 미칠 것이오. 이때 공자 찰이 노양공에게 주왕실의 춤과 음악을 들려줄 것을 청했

다. 노양공이 악공에게 명해 〈周南〉과 〈召南〉을 노래하게 하였다. 계찰이 말하였다. 아름답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주나라의 터전을 닦기 시작하면서 부른 것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윗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그를 위해 〈邶風〉, 〈鄘風〉, 〈衛風〉을 노래하게 하였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름답습니다. 뜻이 매우 깊어 비록 근심하는 기색이 있기는 하나, 곤군한 느낌이 전혀 업습니다. 제가 듣기에, '주공 단의 동생인 위강숙과 위강숙의 9대손인 위무공의 덕이 이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衛風〉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 〈王風〉을 노래하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름답습니다. 근심하는 기색이 있기는 하나 두려워하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주나라가 동천한 이후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 〈鄭風〉을 노래하게 하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너무 섬세합니다. 백성들이 곤경을 견디기 힘들어 하니 아마 다른 나라보다 먼저 망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齊風〉을 노래하게 하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답습니다. 굉대한 것이 대국의 풍도인 大風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해 이래의 제후들을 대표하는 태공의 나라 노래일 것입니다. 나라의 운세가 한량없습니다." 그를 위해 〈豳風〉을 노래하게 하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답습니다. 호탕합니다. 또한 크게 즐거워하면서도 도에 넘치지 않는 모습이니 아나 주공이 동정할 때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를 위해 〈秦風〉을 노래하게 하니,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이를 두고 서방의 노래라고 합니다. 하성은 굉대하니 장차 정점에 이르게 되면 그야말로 주왕실의 옛 음악과 같이 도리 것입니다. 그를 위해 〈魏風〉을 노래하게 하니,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아름답습니다. 가벼운듯하면서도 완곡하고, 거친듯하면서도 부드럽고, 까다로운듯하면서도 순하게 넘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에 덕으로 보충한다면 현명한 군주가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 〈唐風〉을 노래하게 하니,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생각이 실로 깊습니다. 요임금인 陶唐氏 후손의 노래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렇게 심원할 수 있겠습니까? 미덕을 지닌 자의 후손이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이런 노래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를 위해 〈陣風〉을 노래하게 하니, 다음과 같이 평하였다. "나라에 군주가 없으니, 어찌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鄶風〉 이항의 노래에 대해서는 비평하지 않았다. ... (吳公子札來聘, 見叔孫穆子, 說之, 謂穆子曰, 子其不得死乎, 好善而不能擇人, 吾聞君子務在擇人, 吾子爲魯宗卿, 而任其大政, 不愼擧, 何以堪之, 禍必及子, 請觀於周樂, 使工爲之歌周南召南, 曰, 美哉, 始基之矣, 猶未也, 然勤而不怨矣, 爲之歌邶, 鄘, 衛, 曰, 美哉, 淵乎, 憂而不困者也. 吾聞衛康叔武公之德如是, 是其衛風乎, 爲之歌王, 曰, 美哉思而不懼, 其周之東乎, 爲之歌鄭, 曰, 美哉, 其細已甚, 民弗堪也, 是其先亡乎, 爲之歌齊. 曰, 美哉, 泱泱乎, 大風也哉, 表東海者, 其大公乎, 國未可量也, 爲之歌豳, 曰, 美哉, 蕩乎, 樂而不淫, 其周公之東乎, 爲之歌秦, 曰, 此之謂夏聲, 夫能夏, 則大, 大之至乎其周之舊也, 爲之歌魏, 曰, 美哉, 渢渢乎, 大而婉, 險而易, 行以德輔, 此則明主也, 爲之歌唐. 曰, 思深哉, 其有陶唐氏之遺民乎, 不然, 何憂之遠也, 非令德之後, 誰能若是, 爲之歌陳. 曰, 國無主, 其能久乎, 自鄶以下, 無譏焉. ...)"(左丘明 傳;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李學勤 主編, 《春秋左傳正義》, 1095-1101쪽) 이 구절은 孔子刪詩說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이 孔子刪詩說과 연결되는 맥락과 무관하게, 계찰이라는 인물이 《詩經》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詩經》 〈國風〉의 詩들을 노래로 들음으로써, 각 국의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낸다. 《左傳》의 이러한 구절은 《詩經》이 정치적 상황을 드러낸다는 사유를 방증한다.

165) 예컨대 《莊子》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詩經》의 '정치적' 기능을 잘 드러낸다. 《莊子》〈天下〉, "옛사람은 완전한 덕을 갖추었던가 보다. 신묘한 도와 밝은 지혜와 짝하며 천지에

인 《毛詩序》,[166] 《詩集傳》 등에는 모두 《詩經》의 기능을 정치적 맥락에서 설정하는 구절이 있다. 예컨대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여 道學이라 칭해지는 성리학에서도 《詩經》의 정치적 기능을 인정한다. 주희는 《詩集傳》〈序〉에서 공자 이전의 《詩》의 기능에 대해서, "《詩經》의 말이 순수하여 모두 正道에서 나온 것은 성인이 진실로 이것을 성률에 맞추어 지방 사람들에게도 사용하고 국가에도 사용하여 천하를 교화하였고, 列國의 詩에 이르러서는 천자가 巡狩할 때에 또한 반드시 이것을 진열하고 관찰하여 黜陟의 법을 행하였다."[167]라고 언급한다. 이는 《毛詩序》에서 제시되는 《詩經》의 '정치적' 기능을 계승한 것이다. 《毛詩序》에서는 "그리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천지를 움직이며 귀신을 감동시키는 것은 《詩經》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왕이 《詩經》을 이용하여 부부를 떳떳하게 하고, 효도와 공경을 이루며, 인륜을 도탑게 하고, 교화를 따르게 하며, 풍속을 개선하였다.[168]"라고 말하며, 《毛詩序》의

순수하게 화합하며, 만물을 육성하며, 천하를 화평하게 하여 그 은택이 백성에게 미치고, 근본의 원리와 법칙에 밝고, 말단적인 법도까지 체계화하며, 상하사방으로 통하고 사계절에 열려, 작고 크고 정밀하고 거친 모든 존재에 이르기까지 道의 운행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다. 그중에서 분명하게 법도로 나타난 것은 예부터 전해온 법률을 대대로 전하는 사관의 기록에 지금도 많이 남아 있고, 《詩》, 《書》, 《禮》, 《樂》에 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鄒魯)의 선비들과 띠를 두른 선생들 중에서 밝게 아는 이가 많다. 《詩》로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書》로 고대의 정사를 말하고, 예로 인간의 실천을 말하고, 《樂》으로 조화를 말하고, 《易》으로 음양을 말하고, 《春秋》로 명분을 말하고 있다. 옛 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천하에 흩어져 중원의 나라에 베풀어진 것을 제자백가의 학파에서도 때로 말하는 자가 있다. (古之人其備乎 ! 配神明, 醇天地, 育萬物, 和天下, 澤及百姓, 明於本數, 係於末度, 六通四辟, 小大精粗, 其運無乎不在. 其明而在數度者, 舊法世傳之史尙多有之. 其在於《詩》, 《書》, 《禮》, 《樂》者, 鄒, 魯之士, 搢紳先生多能明之. 《詩》以道志, 《書》以道事, 《禮》以道行, 《樂》以道和, 《易》以道陰陽, 《春秋》以道名分. 其數散於天下而設於中國者, 百家之學時或稱而道之.)"(莊子, 郭慶藩 點校, 《莊子集釋》, 1067쪽) 이 구절에서 장자는 《詩經》을 비롯한 六經의 '정치적'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166) "이 때문에 한 나라의 일이 시인 한 사람의 뜻에 관계된 것을 '風'이라 하고, 천하의 일을 말하고 사방의 풍속을 묘사한 것을 '雅'라 한다. '雅'는 바르게 함이니, 王의 政敎가 이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흥기됨을 말한 것이다. 작은 정사와 큰 정사가 있으므로 '小雅'가 있고 '大雅'가 있다. '頌'은 훌륭한 덕의 모습을 찬미함이니, 그 이루어진 공을 神明에게 고한 것이다. 이것을 四始라 하니, 시의 지극함이다. (是以一國之事, 系一人之本, 謂之風 ; 言天下之事, 形四方之風, 謂之雅. 雅者, 正也, 言王政之所由廢興也. 政有大小, 故有小雅焉, 有大雅焉. 頌者, 美盛德之形容, 以其成功告於神明者也. 是謂四始, 詩之至也.)"-毛亨傳; 鄭玄 箋; 孔達穎 疏, 李學勤 主編, 《毛詩正義》, 16-19쪽.

167) "其言粹然無不出於正者, 聖人固已協之聲律, 而用之邦國, 以化天下. 至於列國之詩, 則天子巡守亦必陳而觀之, 以行黜陟之典."-朱熹, 성백효 옮김, 앞의 책, 21쪽.

168) "故正得失, 動天地, 感鬼神, 莫近於詩. 先王以是經夫婦, 成孝敬, 厚人倫, 美敎化, 移風俗."-

정치적 공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각각의 인물들은 모두 《詩經》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도모한다. 본고에서는 다섯 인물들의 사회개혁을 '정신문명'의 재건이라는 당시의 시대적 화두와 연결하여 제시하였다. 궁극적으로 《詩經》의 활용을 통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한 이들의 시도는 전통 시경학의 목적과 동일하다. 그러나 근대전환기의 시경론을 구성하는 두 부류의 시경론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전제하는 《詩經》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다르다.

그 차이는 '《詩經》과 사회의 거리'라는 표현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을 활용하여, 직접적으로 사회에 적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을 활용하여 분과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러한 학문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개혁을 도모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이는 그들의 "《詩經》에 대한 인식"과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면 선연히 드러난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을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의 원천'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詩經》을 비롯한 六經 혹을 六經과 諸子書 등의 텍스트의 활용이, 정치를 통하여 사회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그들이 제시하는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은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과 마찬가지로 해석학적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詩經》이라는 텍스트에 형이상학적 진리가 있음을 전제하고,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詩經》에 적용하다.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을 '정보의 보고'로 본다. 이러한 관점은 《詩經》을 비롯한 전통 시기의 텍스트들이, 서학의 영향으로 확립된 각각의 독립된 학문 분과에서 유의미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다만, 이들 역시 형이상학적 진리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詩經》을 유의미한 자료로 설정한다. 하지만, 이들은 《詩經》의 위상을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비해 낮게 설정한다. 그리고 전통 시기 텍스트들의 활용으로 발달된 서학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毛亨 傳; 鄭玄 箋; 孔達穎 疏, 李學勤 主編, 앞의 책, 10쪽.

제 5 장 결론

이상의 논의를 통해 근대전환기 강유위,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 등의 지식인들이 '정신문명' 재건이라는 시대적 화두에 부응하기 위하여 《詩經》을 활용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들이 활동했던 근대전환기는 서구의 침입으로 인하여, 中華 관념이 어그러지던 시대였다. 中華 관념의 약화는 그것의 중추를 이루는 경학과 경전의 권위 약화로 이어진다. 동시에 서학의 수용, 특히 독립된 학문 분과 개념의 수용은 전통시기 경학이 지니던 위상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詩經》은 전통 시경학과는 다른 새로운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이 지니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근대전환기 시경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1) 《詩經》에 대해 인식함에 있어서, 그것의 가치 설정에 큰 주안점을 두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로, 장병린, 유사배, 양계초, 왕국유는 《詩經》을 경학・사학과 문학의 맥락에서 읽을 것을 주장한다. 2) 근대전환기의 《詩經》을 해석하는 방법의 특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詩經》의 텍스트 외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진위여부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본고에서 다루는 인물들은 모두 전통 시기 텍스트들을 활용한다. 다음으로, 《詩經》의 텍스트 내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방법에 있어서, 실제의 층위에서는 전통 시경학의 방법론을 계승하나 개념의 층위에서 서학 혹은 일본의 사상을 수용한다. 3) 근대전환기 《詩經》을 해석하는 목적은 여전히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읽힐 수 있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근대화 시도의 일환으로 '정신문명' 재건이라는 목적의식 하에 《詩經》을 해석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이 지니는 차이점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근대전환기의 시경론은 '전통 시경학의 계승'과 '근대 시경학의 정초'라는 시경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강유위, 장병

린, 유사배가 있고,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양계초, 왕국유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분의 척도로 '《詩經》과 사회의 거리'를 제시한다. 이는 본고에서 다루는 다섯 인물들이 전제하는, 《詩經》의 활용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근거로 한다. 그들은 모두 《詩經》을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들이 전제하는 《詩經》의 활용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상이하다.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을 "사유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그것의 활용이 직접적으로 사회개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제한다. 때문에 이들의 방법론은 텍스트 내에서 특정 사유를 추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詩經》을 '정보의 보고'로 인식하고, 그것의 활용이 독립된 학문 분과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제한다. 그리고 독립된 학문 분과의 발전이 궁극적으로 사회 개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전제한다.

'《詩經》과 사회의 거리'에 근거한 전통 시경학과 근대 시경학의 구분은, 양자의 차이를 보다 본원적인 층위에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오늘날 우리는 《詩經》이 《詩》로 변화했음을 안다. 후대의 학자들은 근대전환기 시경론을 구성하는 두 가지 시경론인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시경론과 '근대 시경학의 정초'에 해당하는 시경론 가운데, 후자의 시경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 결과 근대 시경학의 특징으로 '경전의 신성성 해체', '의고(疑古)적인 태도', '다양한 연구 방법의 활용' 등[169]이 제시된다. 이는 몇몇 지식인의 《詩經》 활용 양태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4장에서 근대전환기 시경론의 전반적인 특징을 고찰하여 보았을 때,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근대 시경학의 특징이 전통 시경학과 근대 시경학을 구분하는 절대적 척도로 기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전통 시경학의 계승"에 해당하는 장병린과 유사배 역시 《詩經》의 신성성을 부정하고, 《詩經》에 대한 몇몇 논의의 진위 여부 논증함을 통하여 《詩經》의 기능을 정당화하였음을 안다. 또한 장병린은 이전시기 방법론을 집대성하고, 《詩經》을 비롯한 國學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들에 일괄 적용할 수 있는 방법

169) 오늘날 근대 시경학의 특징을 고찰하는 연구들로는 白憲娟, 〈胡适的《詩經》研究〉; 汪大白, 〈胡适傳統詩經學的終結者〉; 毛蕊, 〈近代詩經學轉型及特征研究〉; 毛蕊, 〈近代詩經學轉型的內在理路與外緣影響〉; 洪湛侯, 《詩經學史》 등이 있다.

론을 추려낸다.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 ‘경전의 신성성 해체’, ‘의고(疑古)적인 태도’, ‘다양한 연구 방법의 활용’ 등의 특징만으로는 전통 시경학과 근대 시경학을 구분해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보았을 때, ‘《詩經》과 사회의 거리’라는 보다 본원적인 층위에서의 구분은 전통 시경학과 근대 시경학을 구분하는 기준, 즉 근대성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척도로 기능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원전 및 주석서

康有爲, 姜義華, 張榮華 編校,《康有爲全集・第3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出, 2007.

_____,《康有爲全集・第7集》, 中國人民大學出版社出, 2007.

孟子, 焦循, 沈文倬 點校,《孟子正義・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7.

毛亨 傳; 鄭玄 箋; 孔達穎 疏, 李學勤 主編,《毛詩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0.

司馬遷 撰; 裴駰 集解; 司馬貞 索隱; 張守節 正義,《史記》, 北京: 中華書局, 1959.

謝維揚, 房鑫亮 主編,《王國維全集・第1卷》, 浙江教育出版社, 2009.

荀子, 王先謙, 沈嘯寰, 王星賢 點校,《荀子集解・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1988.

_____,《王國維全集・第8卷》, 浙江教育出版社, 2009.

_____,《王國維全集・第11卷》, 浙江教育出版社, 2009.

梁啓超, 張品興, 楊鋼, 王相宜 主編,《梁啓超全集・全十八卷》北京出版社, 1999.

吳楚材, 吳調侯 編, 謝冰瑩 注譯,《古文觀止》, 臺北 : 三民書局, 2012.

劉師培, 萬仕國 點校.《儀徵劉申叔遺書・全十五冊》, 廣陵書社, 2014.

左丘明 傳; 杜預 注; 孔穎達 正義, 李學勤 主編,《春秋左傳正義》,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9.

章炳麟, 薑玢 編選,《革故鼎新的哲理》, 上海遠東出版社, 2003.

章炳麟, 慶善, 于唐編,《章太炎解讀中華文化經典》, 沈陽: 遼海出版社, 2002.

章炳麟, 龐俊, 郭誠永 疏證,《國故論衡疏證》, 中華書局, 2008.

章炳麟, 陳平原 導讀,《國故論衡》, 上海古籍出版社, 2003.

章學誠,《文史通義》. 上海書店, 1988.

莊子, 郭慶藩, 王老魚 點校,《莊子集釋・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61.

程樹德, 程俊英, 張見元 點校,《論語集釋・全四冊》, 北京: 中華書局, 1990.

程千帆, 曹虹 導讀,《中國中古文學史講義》, 上海古籍出版社, 2011.

朱熹, 趙長征 點校,《毛集傳》, 中華書局, 2010.

강유위, 이성애 옮김,《大同書》, 서울: 을유문화사, 2006.

김학주 옮김,《새로 옮긴 시경》, 서울: 명문당, 2010.

캉유웨이, 김동민 옮김,《공자개제고》, 서울: 세창출판사, 2013.

좌구명 찬, 김월회 옮김.《춘추좌전: 중국 문화의 원형이 담긴 타임캡슐》, 풀빛, 2013.

Menzi, James Legge translate, *The Works of Mencius*, Clarendon, 1985.

2. 단행본

姜義華.《章太炎思想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5.

國立政治大學文學院 主編,《中國近代文化的解構與重建》, 臺北: 國立政治大學文學院, 2000.

遡艾,《一代大師: 王國維研究論叢》,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1988.

蕭華榮,《中國詩學思想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易新鼎,《梁啓超和中國學術思想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2.

鍾賢培,《康有爲思想研究》, 廣東: 廣東高等教育出版社, 1988.

洪國梁,《王國維之詩書學》, 臺北: 國立臺灣大學文學院, 1984.

洪湛侯,《詩經學史》, 北京: 中華書局, 2002.

김유리,《서원에서 학당으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07.

김학주,《중국의 경전과 유학》, 서울: 신아사, 2000.

류준필,《동아시아의 자국학과 자국문학사 인식》, 서울: 소명출판, 2013.

서경호,《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문학과지성사, 2004.

신승하,《중국사학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심경호,《조선시대 한문학과 詩經論》, 서울: 一志社, 1999.

이원석,《근대중국의 국학과 혁명사상》, 서울: 국학자료원, 2002.

이병찬,《한・중 시경학 연구》, 보경문화사, 2001.

홍석표,《중국 근대학문의 형성과 학술문화 담론》, 성남: 북코리아, 2012.

갈조광, 이등연 옮김,《중국사상사2》, 서울: 일빛, 2015.

곽사량 외 편저, 학이사 옮김,《고대중국어: 한문 학습의 길잡이》, 역락, 2016.

리쩌허우, 임춘성 옮김,《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_____, 임춘성 옮김,《중국현대사상사론》, 한길사, 2005.

린사오앙, 서광덕・최정섭 옮김,《수사라는 사상》,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3.

벤저민 엘먼, 양휘웅 옮김,《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서울: 예문서원, 2004.

서복관, 고재욱 옮김,《중국경학사의 기초》, 춘천: 강원대학교 출판부, 2007.

스테판 다나카, 박영재 옮김,《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2004.

윌리엄 T. 로, 기세찬 옮김,《하버드 중국사 청》, 너머북스, 2014.

존 킹 페어뱅크, 멀 골드만, 김형종, 신성곤 공 옮김,《신중국사》, 서울: 까치, 2005.

피터 두으스, 김용덕 옮김,《日本近代史》, 지식산업사, 1983.

Bruce Rusk. *Crtitics and commentators: The book of Poems as Classic and Literatu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Distributed by Harvard University Press, c2012.

Helwig Schmidt-Glintzer. *Historical Truth, Historical Criticism, and Ideology*, Leiden; Boston: Brill, 2005.

Wong, Young-tsu, *Beyond Confucian China: the rival discourses of Kang Youwei and Zhang Binglin*, London; New York: Routledge, c2010.

3. 논문

藺文龍,〈論章太炎的詩學觀及創作實踐〉,《山西大學學報》, 2016.

毛蕊,〈近代《詩經》學轉型的內在理路與外緣影響〉,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5.

_____,〈近代詩經學轉型及特征研究〉,《商丘師範學院學報》, 2017.

白憲娟,〈胡适的《詩經》研究〉,《遼寧師範大學學報》, 2008.

汪大白,〈胡适傳統詩經學的終結者〉,《江淮論壇》, 2011.

李百容,〈從'群體意識'與'個體意識'論文學史'詩言志'與'詩緣情'之對學關係〉,《新竹教育大學人文社會學報》, 2009.

曾守正,〈中國詩言志與詩緣情的文學思想〉,《淡江人文社會學刊》, 2002.

김시준,〈詩經正變說考〉,《東亞文化》, 16輯, 1976.

김월회,〈20세기초 中國의 文化民族主義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_____,〈章炳麟 文學理論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김경천,〈고염무의《詩經》체제론〉,《中國語文論叢》, Vol. 30, 2006.

이현선,〈《音學五書・詩本音》연구〉,《中國語文學誌》, Vol. 49, 2014.

_____,〈《音學五書・詩本音》연구(2)〉,《中國語文學誌》, Vol. 57, 2016.

조병한,〈19세기 청제국의 개혁과 근대 지식인의 탄생〉,《역사학보》, Vol. 236, 2017.

부록

근대전환기《詩經》관련 문헌 목록 및 정리

인명	서명 및 편명	출판연도	내용	비고
강유위	孔子改制考	1897년	강유위의 경전의 활용과 그 목적에 대한 주장이 담겨있는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孔子가 托古의 방법을 활용하여 改制하였다고 언급하며, 후대의 유학자들 역시 그를 본받아 경전을 활용하여 改制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大同書	1913년	강유위의 사회개혁의 목표와 그를 실현할 구체적인 개혁론이 담겨있는 글이다. 그는 경전을 활용하여 자신의 사회개혁 주장을 뒷받침한다.	
	新學僞經考	1891년	강유위의 "신학"과 "위서"에 대한 관점이 담겨있는 글이다. 여기에서의 "신학"은 금문경학 이후에 등장한 고문경학을 가리키고, "위서"는 고문경학가들이 중시한 경전을 가리킨다. 강유위는 고문경학가들의 학문과 그들이 주장하는 경전들이 거짓된 것이라 주장한다.	
장병린	原經	1910년	《國故論衡》에 수록된 글이다. 경전에 대한 고찰을 한 글. "經"자의 정의를 재정의함을 통해서, 유가 경전이 아닌 諸子書를 경전의 반열로 올리는 작업을 수행한다.	
	辨詩	1910년	《國故論衡》에 수록된 글이다. 장병린이 詩體의 변화 과정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詩經》의 요소들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國學概論	1922년	장병린이 1922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上海에서 진행한 국학을 주제로 한 강의 원고를 책으로 옮긴 글이다. 《國故論衡》과 같이 단편의 글 여러 편이 수록되어 있는 형식이 아니라, 특정한 흐름의 목차에 따라 배치되어 있다. 장병린의 국학 전반에 대한 사상이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文學總略	1910년	《國故論衡》에 수록된 글이다. 장병린의 '文'에 대한 개념이 담겨있는 글이다. 그는 《論衡》, 《文心雕龍》, 《文選》을 근간으로 설정하여, '文'에 대한 이론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詩經》은 그의 '文'이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經學略說	미상	《國學講演錄》에 수록된 글이다. 장병린의 경학 전반에 대한 사상이 담겨져 있다. 《國學講演錄》은 그의 제자 諸祖耿 등이 장병린 선생의 국학에 대한 강연을 기록하여 출판한 책이다.	1936년에 출판되었다.
유사배	經學教科書	1905년	유사배가 경학사의 전반을 기술한 글이다. 이 글에서 유사배는 중국의 역사를 학문의 전환을 중심((1) 양한, (2) 삼국・남북조・수・당 (3)송・원・명 (4)청)으로 구분한다. 매 시대의 경학사를 다시 六經에 의거하여 나눈 후, 논의를 진행한다.	
	漢代古文學辨誣	1907년	유사배가 漢代에 금문경학과 고문경학이 나누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다. 논의의 시대적 배경은 前漢시기부터 시작하여 淸代의 龔自珍에까지 이른다.	

	毛詩詞例擧要詳本	미상	유사배 사후 그의 집에서 발견된 〈毛詩詞例擧要〉원고를 1935년에 교정하여 출간한 것이다. 본래 《國故》 1권 2期에 수록되어 있던 〈毛詩詞例擧要〉와 내용도 다르고, 글자 수도 10배 이상 많다. 둘을 구분하여 〈毛詩詞例擧要詳本〉과 〈毛詩詞例擧要略本〉이라 칭한다.	1935년에 출판되었다.
	毛詩詞例擧要略本	1919년	《國故》 1卷 2期에 실린 글이다. 《毛詩》에 있는 注를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체계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毛詩》의 注를 발췌한 글이다.	
	群經大義相通論	1906년	유사배의 '경전'에 대한 인식이 잘 나타난 글이다. 그는 大義에 근거하여 여러 경전과 諸子書를 함께 보아야 할 것을 주장한다. 그는 금문경학에 해당하는 저서들과 諸子書도 '경전'의 범주에 속해야 한다고 풀이한다.	
	周末學術史序	1905년	유사배가 주나라 말기의 학술사에 대해서 서술한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주나라의 학술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심리학, 논리학, 사회학, 종교학, 政法學, 計學, 兵學, 교육학 등으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한다.	
	淸儒得失論	1907년	유사배가 淸代 學術史를 고찰하며, 그들의 공과를 논한 글이다. 그가 청나라 유신들을 비난하는 논리구조에 근거하여, 그의 학술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양계초	要籍解題及其讀法	1925년	양계초가 본인이 생각하는 반드시 읽어야 하는 고적의 목록과 그 독해법에 대해 기술한 글이다. 《詩經》을 비롯한 六經뿐만 아니라, 《荀子》, 《韓非子》, 《楚辭》 역시 필독서로 제시한다.	

	中國之美文及其歷史	1924년	양계초가 중국의 역대 문학 가운데 “美文”에 해당할 수 있는 장르를 설정하고, 그것들을 이어 계보화한 글이다. 그는 《詩經》을 “美文”의 시초로 설정하고, 그것에서 “美文”의 근원적인 성질을 뽑아내고자 한다.	
	中國韻文里頭所表現情感	1922년	양계초는 문학 작품의 주요 개념 가운데 하나로 “情(혹은 情感)”을 언급한다. 그는 《詩經》을 韻文이라는 문학 장르의 시초로 설정하고, 《詩經》에서 전체 韻文에 적용될 수 있는, 근원적인 情의 표현 방법을 추출하고자 한다.	
	中國歷史研究法	1922년	양계초가 자신의 史學, 즉 新史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新史學의 사료, 방법론, 역사학의 주제, 목적 등에 대해서 언급한다.	
왕국유	論哲學家與美術家之天職	1905년	왕국유의 순수학문에 대한 사유가 반영된 글이다. 그는 철학과 미술과 같은 순수학문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經學概論	1918년	왕국유가 경학 전반에 대해 풀이한 글이다. 그는 통시적 관점에서 경학의 변천을 다루지 않고, 저서를 중심으로 경학 전반에 대한 본인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 과정에서 《詩經》을 비롯한 六經뿐만 아니라 《論語》, 《爾雅》, 《孟子》을 병치하여 언급한다.	
	古史新證	1925년	왕국유가 古史를 구성하는 몇몇 요소들에 대해 새로운 진위여부를 가린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詩經》을 하나의 사료로 활용한다.	

	與友人論詩書中成語書	1921년	왕국유가 친구와 《詩經》 안의 成語에 대해 논한 글이다. 왕국유는 이 글에서 成語를 《詩經》을 읽는 하나의 주요 요소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진행한다.	
	毛公鼎考釋	1916년	왕국유는 〈毛公鼎考釋〉에서 모공정(毛公鼎)의 글자를 풀이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모공정은 주나라 선왕 시기에 주조된 청동으로 된 정(鼎)이다. 정 안에는 책명(冊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1843년 섬서성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정 안에 새겨진 문자와 《詩經》, 《書經》, 《易經》 등에 수록된 구절을 비교함으로써, 정 안의 문자의 의미를 증명한다.	
	說勺舞象舞	1916년	《樂詩考略》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다. 왕국유는 이 글에서 〈勺舞〉, 〈象舞〉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는 勺舞는 周代의 “大武”, 象舞는 周代 의 “小武”라 설정하며, 그것들의 연원과 그 같고 다름에 대해서 언급한다.	
	說周頌	1916년	《樂詩考略》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다. 《詩經》의 〈頌〉에 대해 고찰한 글이다. 그는 이 글에서 〈頌〉이 〈風〉과 〈雅〉와는 다르고, 그 다름을 소리[聲]에 근거하여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周大武樂章考	1916년	《樂詩考略》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다. 왕국유는 주나라 악례의 한 요소인 大武에 대해 연구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毛詩序》를 하나의 사료로 활용하며 논의를 전개한다.	

	漢以後所傳周樂考	1916년	《樂詩考略》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다. 한나라 이후 주나라의 음악이었던 《詩經》이 활용되던 양태와 그것이 유실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한 글이다.	
	釋樂次	1916년	《樂詩考略》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다. 이 글에서 왕국유는 전통 시기의 樂禮를 재구성한다. 그는 이 과정에서 《詩經》의 몇몇 시를 樂詩로 설정하고, 그것들이 어떠한 방식과 순서로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언급한다.	

中文提要

《诗经》与其他经典一样在传统时期王朝的形成以及其维持过程中起到中枢作用。然而，近代之后对《诗经》活用范式与以往截然不同。《诗经》的这种活用范式的转变是在近代转型期发生的。

近代转型期的时代背景的变化导致了包括《诗经》的六经的转变范式。西方列国的入侵导致了中华思想的瓦解，継而加速了经学以及经典的解体。另外，当时接受西学以及日本学的社会氛围也大大加速了经学与经典学的解体。在那个时代，杂志和讲课记录等方式作为新的学术手段开始陆续出现。杂志和讲课记录作为新形式的研究成果成为了一种崭新的学术传播方式。在此背景下，近代转型期的知识分子积极利用《诗经》试图近代化的到来。本文以上述时代背景为基础展开讨论。

近代转型期的诗经论可经过对几位重要人物的诗经论的构建与分析从而变得更加具体，也可通过对《诗经》的讨论以及研究成果使其具体化。康有为，章炳麟，刘师培，梁启超，王国维等人是构建近代转型期的诗经论的核心人物。他们提倡以杂志、演讲稿等新的方式对《诗经》进行研究，而不是加注释等以前的方式。因此，本文先从五位学者对《诗经》的言辞以及研究成果中了解他们对《诗经》的认识、分析方法、解析目的等内容，并对此内容进行重新排列，継而比较康有为，章炳麟，刘师培，梁启超，王国维诗经论的相同点与不同点，整理并归纳出近代转型期诗经论的特征。

首先，通过比较相同点能够归纳出近代转型期的以下特点：近代转型期的知识分子为了把《诗经》的意义正当化，着眼于设定其功能。他们各自提出了解释《诗经》的方法，但是分析其实际内容可以发现其实是継承传统诗经学，并且在设定概念方面展现接受西学以及日本学的倾向。他们都具有利用《诗经》来试图促进近代化的特点。

其次，通过比较他们的不同点可以树立“《诗经》和社会的间隔”概念，作为区分传统诗经学与近代诗经学的尺度。“《诗经》和社会的间隔”主张解析《诗经》的目的与社会改革有关，并以此为其根据。通过考察他们的共同点与不同点，本文所研究的五位学者可以分为“継承传统诗经学”的学者与作为“近代诗经学的先驱”的学者。前者是康有

为，章炳麟，刘师培；后者是梁启超，王国维。“継承传统诗经学”的学者认为对《诗经》的解析会对社会产生直接影响，而作为“近代诗经学的先驱”的学者则主张对《诗经》解释会对社会产生间接影响，在此展现其差异性。

综上所述，康有为、章炳麟、刘师培、梁启超、王国维等人作为近代转换期的知识分子，试图对当代社会进行改革。他们试图通过《诗经》来进行当代的社会改革，即促进近代化。

关键词：近代转型期，《诗经》，诗经论，康有为，章炳麟，刘师培，梁启超，王国维
学　号：2015-22443